

KLPGA members

Korea 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Autumn 2024



Autumn Fall of Challenges

찬란하게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유현조

KLPGA TOUR 정규투어 타이틀 스폰서

KYOCERA 1991

주식회사 넥센

넥센타이어

DAEBO

더헤븐리조트

덕신EPC

동부건설

DOOSAN (주)두산

두산건설

DOOSAN 두산에너지빌리티

DB

LOTTE

MEDIHEAL

BCcard

상상인

서울경제

CELLTRION

SBS Golf

Sh수협은행

S-OIL

SK 실터스

SK telecom

NH투자증권

MBN

OK저축은행

MONA YONG PYONG

E1

일화

삼다수

KB금융그룹

KG

CREAS

하나금융그룹

하이원리조트

하이트진로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TV

한국일보

한국토지신탁

Hanwha

DREAM TOUR · JUMP TOUR · CHAMPIONS TOUR

드림 · 점프 · 챔피언스 투어 타이틀 스폰서

군산컨트리클럽

그랜드컨트리클럽

무안컨트리클럽

모나크컨트리클럽

백제 Country Club

삼미

SAEKIP&C

서울제약

솔라고

SBS Golf

O'acle

ALLFORYOU 올포유

이시스카미CC

큐캐피탈

Crowning

CREVE9

파마리서치

MARKETING PARTNERS 마케팅 파트너

HS효성 더클래스

gamtan

롯데칠성음료

슬병원

CNPS

SBS Golf

ALLFORYOU 올포유

WEMADE

Geno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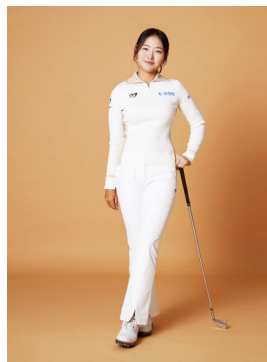
PAGODA 교육그룹

FREDERIQUE CONSTANT GENEVE



contents

2024 . AUTUMN



COVER STORY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매진해온 선수들은 이제 다시 한번 '도전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KLPGA members> 가을호 표지의 주인공은 메이저대회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유현조입니다. 올해 신인상을 확정지은 유현조의 통통 튀는 입담과 개성 넘치는 매력을 인터뷰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4년 11월 1일

발행인 이영미

발행처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221 KLPGA빌딩 3, 4층

TEL 02.587.2929 FAX 02.539.6003

홈페이지 www.klpga.co.kr

기획·디자인 매경골프(02,2000,2967)

04 INTERVIEW

찬란하게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유현조

10 DATA REPORT

데이터로 보면 더 재미있는 KLPGA

12 REVIEW

숫자로 보는 KLPGA대회 리뷰

16 PLAYERS

연장전 끝 짜릿한 승리를 거머쥔 주인공들

22 COLUMN

KLPGA투어 팬덤 문화, 동업자 정신이 필요하다

SPECIAL THEME

24 WITH CHALLENGE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26 INTERVIEW

생애 첫 승을 향해 다시 한번 도전! 최예림

28 INTERVIEW

첫 우승까지 한 걸음, 멀지 않은 이제영

30 INTERVIEW

성실함으로 쌓아 올리는 내일의 우승 최민경

32 NEW CHALLENGE

KLPGA 선수들이 올해 새롭게 도전에 나선 일들

34 PLUS POINT

도전을 하는 데 있어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

36 CHALLENGING

선수들이 밝히는 도전이 되었던
변화와 도전적이었던 것

38 RECORD

KLPGA, 도전의 기록들

60

한국 무대 우승에 날개를 달다

빠따랏 랏따난

프로 데뷔 2년 만에 'KLPGA 2024

인터내셔널 켈리파잉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 빠따랏 랏따난.



40 INTERVIEW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가겠다

KLPGT 이영미 대표

44 MEMORY

THE HISTORICAL TIMELINE

46 COURSES

2024 대회가 열린 골프장의 코스 가이드

BEST GOLF COURSES

52 TRAVEL

골프장 주변 가이드

56 F&B

골프장에서 즐기는 가을의 맛

58 HEALTH

HYDRATING SKINCARE FOR AUTUMN

60 CHALLENGER

한국 무대 우승에 날개를 달다

빠따랏 랏따난

62 ADVICE

최혜정의 노하우

오래도록 건강하게 투어 생활 하는 법

16

연장전 끝 짜릿한 승부수

승부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우승을 따낸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64 GUIDE

KLPGA 프로들을 위한 은퇴 후 코칭

골프 스튜디오

66 UNDERWEAR

세상에 없던 편안함, 감탄브라

70 FOCUS

제14회 SBS골프·김안과병원배

한국시각장애인 골프대회

KLPGA-삼천리 투게더 꿈나무대회 2024

72 FAN

캘피크루 271가 소개하는 KLPGA

74 RANKING

43주 차 2024 K-RANKING

2024시즌 투어 주요 순위

76 KLPGA TOUR SCHEDULE

정규투어/드림투어/점프투어/챔피언스투어

80 회원맞춤형교육 공지문

83 위메이드 대상 포인트 우수 선수

84 KLPGA TOUR NEWS

90 MEMBER'S SERVICE

KLPGA 회원을 위한 혜택

2024 MEMBER'S SERVICE

96 EVENT

퀴즈 이벤트 <빈 칸을 채워라>



46

YOO HYUN JO

A RISING STAR SHINING BRIGHT



찬란하게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유현조

화려한 신인 탄생의 순간이었다. KLPGA투어 메이저대회인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유현조는 통통 튀는 입담과 개성 넘치는 매력으로 새로운 메이저 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글 · 신정희 | 사진 · 임한수

신데렐라 탄생의 순간

신인 돌풍이 거세다는 말이 있다. 유현조는 이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다. 일찌감치 이번 시즌 신인으로 가장 주목받은 선수였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은메달, 개인전 동메달을 목에 걸며 유현조라는 이름 세 글자를 대중들에게 각인시켰다.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이름을 알린 것도 모자라 'KLPGA 2024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본선'을 5위로 통과하며 이번 시즌 화려한 투어 데뷔에 나섰다. 데뷔한 이후부터 승승장구의 시간이었다. 5월에 열린 'E1 채리티 오픈'에서 공동 8위로 프로 데뷔 이후 첫 톱텐을 기록했다. 첫 우승을 하기 전까지 18개 대회에 출전해 톱텐에 4번이나 진입했다. 일찌감치 사람들은 이번 시즌 첫 루키 우승의 주인공으로 유현조를 떠올렸다. 그리고 9월 8일 경기도 이천 블랙스톤 골프클럽에서 열렸던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최종라운드에서 1타 차 선두로 대회를 시작했던 유현조는 마지막까지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주인공이 되었다.

“정말 일뿔뿔하고 우승을 한 것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우승을 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했는데 우승하게 되어 인정받은 느낌이에요. 전반에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티 샷에서 미스샷이 나면서 당황했고 우승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먹는 계기가 되었고 우승보다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 순위를 끌어올리자고 마음먹었는데 그게 경기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번 대회에서 유현조는 1라운드부터 시작이 좋았다. 1라운드에 공동 2위로 올라가더니 대회 2라운드에서는 5번 홀 파5에서 이글 1개를 잡고, 버디 8개를 기록했다.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깔끔하게 버디만 4개를 잡고 단독 선두에 오른 뒤 최종라운드에서는 성유진, 배소현과 한 조를 이뤄 경기를 했다.

The Birth of a Cinderella Story

The buzz surrounding rookie sensations has been loud this season, and no player embodies this excitement better than Yoo Hyun Jo. She has been a standout from the start, earning attention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rookies of the year. Yoo made her mark on the global stage at the 2023 Hangzhou Asian Games, winning a silver medal in the team event and a bronze in the individual competition, solidifying her name among the public. Not stopping there, she earned her KLPGA Tour card by finishing 5th in the qualifying rounds, setting the stage for a spectacular debut season.

Since her debut, Yoo's journey has been nothing short of remarkable. She claimed her first top-ten finish at the E1 Charity Open in May, tying for 8th. Over 18 tournaments, she broke into the top ten four times, hinting early

“ ”

정회원 선발전부터 시드순위전까지
순조롭게 치르고 나니 빨리 우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투어에
데뷔하고 마음먹은 대로 빨리 우승을 하고
싶다는 조급함이 앞섰는데요. 그러다 보니
실수가 많아지며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on that her first victory was just a matter of time. On September 8th, that moment finally came at the KB Financial Star Championship at Blackstone Golf Club in Icheon, Gyeonggi Province. Starting the final round with a one-shot lead, Yoo displayed an impressive level of composure and skill, securing her first career win.

“I still can't believe I won?it hasn't sunk in yet. I often wondered if I'd ever be able to win, and now that it's happened, it feels like validation. I had a tough time on the front nine, making mistakes off the tee, which made me think I was slipping away from the win. But that actually helped me relax. I decided to just focus on improving my position rather than stressing over the trophy, and that mindset really worked in my favor”,she shared.

Yoo started the tournament strong, staying near the top from the opening round. In the second round, she recorded an eagle on the par-5 5th hole along with three birdies. She followed it up with a bogey-free third round, carding four birdies. Paired with Seong Yu



“배소현 선수의 경기 흐름이 좋아 이번 우승은 내 것이 아닌가 보다 하고 마음을 놓았어요. 그러니 오히려 긴장이 덜 되더라고요.”

3라운드를 단독 선두의 성적으로 마치고 루키로서 앓을 게 없다는 마음으로 담담하게 최종라운드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이야기했는데 후회를 많이 했다. 밤잠을 설칠 정도로 긴장이 되었고 아침에는 원래 식사를 잘하는 편인데 밥도 잘 못 먹을 정도였다. 경기 중에도 캐디에게 계속 너무 떨린다고 이야기했는데 경기를 하면서 다행히 긴장감이 풀렸고 경기감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1타 차이로 선두로 출발한 유현조는 5, 6번 홀에서 연속 보기로 오히려 2타 차로 끌려가는 고비가 있었지만 9번 홀부터 아이언 샷의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3m 이내 버디 퍼트로 선두를 되찾더니 17번 홀에서는 그야말로 명장면이 탄생했다. 무려 18m 길이의 오르막 버디 퍼트를 넣고 2타 차이로 점수를 벌리며 승부를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다. 17번 홀에서의 버디 퍼트 성공 이후 유현조 역시 우승을 예감했는지 환한 미소와 함께 오른손을 치켜들며 세리머니를 해서 갤러리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홀을 꼽으라면 17번 홀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오른손을 들고 세리머니를 했는지도 몰랐어요. 홀아웃하고 나서 ‘내가 방금 뭘 한 거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집에서 PGA 경기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런 세리머니가 나왔어요.”

우승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 운도 따라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유현조는 ‘나도 우승을 할 운명이라면 이런 거 하나는 들어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다고 한다. 사실 홀에 잘 붙여서 파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공이 홀로 쏙 들어가는 순간 혹시 내가 우승을 하나 싶었다. 오히려 18번 홀은 진짜 우승에 췌기를 박는다는 생각 때문인지 많이 떨렸다.

할 말 시원하게 하는 발랄한 MZ

이번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우승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유현조의 데뷔 시즌 첫 우승이자 KLPGA투어에서 신인 선수가 메이저대회 첫 승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신인 선수의 메이저대회 우승 사례는 상당히 드문 일이다. 전인지 이후 11년 만의 기록이다. 그만큼 쟁쟁한 선배들과의 경쟁에서 우승을 차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시즌에는 올해 데뷔한 루키 가운데 누가 첫 우승의 주인공이 될지 기대를 모았는데 유현조가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다.

Jin and Bae So Hyun for the final round, Yoo kept her nerves in check. “I thought Bae So Hyun’s momentum was so good that the win might not be mine, and that actually helped ease my nerves”,she admitted.

Though she initially struggled with two bogeys, Yoo had resolved to stay calm, treating the final round with a sense of acceptance. Yet, the night before the final round, she struggled to sleep due to anxiety, and even her usual appetite failed her on the morning of the event. “I kept telling my caddie how nervous I was, but thankfully, as the game progressed, my rhythm started to return”,Yoo said.

Starting with a slim one-shot lead, Yoo’s two consecutive bogeys on the 5th and 6th holes put her two strokes behind. But her game turned around as her iron shots began to sharpen, and she reclaimed the lead with birdie putts within three meters starting on the 9th hole. The decisive moment came on the 17th hole, where she sank an 18-meter uphill birdie putt, extending her lead to two strokes. That remarkable putt earned her a standing ovation from the gallery, as Yoo raised her right hand in celebration, fully embracing the moment.

“The 17th hole is the most memorable for me. Honestly, I didn’t even realize I raised my hand to celebrate. After the hole, I thought to myself, ‘What did I just do?’ Maybe I’ve watched too many PGA tournaments at home!” she said with a laugh.

Luck, Yoo believes, plays its part in every win. “I thought, if I’m destined to win, at least one lucky shot would go in?and it did”,she recalled. She admitted that her thoughts going into the final hole were filled with the pressure of sealing her victory.

The Bold Spirit of an MZ Generation Star

Yoo Hyun Jo’s victory at the KB Financial Star Championship carries significant weight. Not only did she secure her first win during her debut season, but she also became the first rookie in 11 years to win a major tournament on the KLPGA Tour, following in

“앞으로 밝고 재미있는 선수로 팬들에게 기억되고 싶어요. 꼭 성격만 밝은 게 아니라 플레이도 재미있게 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우승을 한 순간에는 프로님과 감독님, 단장님을 안았을 때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유현조는 잘나가는 선수였지만 중학교 때부터 부진하기 시작해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기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 어려운 시간을 같이 견뎌낸 것은 부모님이었다. 지난겨울 동계훈련에는 무릎 부상 때문에 또 힘들었다.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서 주목받았는데 시즌 초반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걱정이 많았고 코치진과 상의하며 시즌을 시작했다. 시즌 초 성과를 빨리 보여주고 싶어 조급함을 많이 느꼈다.

“정회원 선발전부터 시드 순위전까지 순조롭게 치르고 투어에 데뷔해 빨리 우승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는데요. ‘맥콜·모나 용평 오픈 with SBS Golf’에서 공동 12위를 한 뒤부터 마음을 달리 먹었어요. 훈련을 더 하기보다는 ‘결과보다 과정에 충실하자’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을 달리 먹자 성적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맥콜·모나 용평 오픈 with SBS Golf’ 다음 대회였던 ‘롯데오픈’에서 공동 4위까지 올라간 뒤 ‘한화 클래식 2024’에서 공동 7위, 그리고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 드디어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사실 메이저대회라고 해서 더 떨리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첫 승을 하지 않은 상태라 어떤 대회에서라도 빨리 우승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게 메이저대회가 될 줄은 몰랐어요. 이제 남은 경기 열심히 해서 가능하면 우승을 더 추가하고 싶은 바람이에요.” ◆

the footsteps of Jeon In Gee. Competing against established veterans made the achievement even more extraordinary. Throughout the season, the question loomed?who among the rookies would capture their first win? Yoo became the fortunate one to answer that question.

“I want to be remembered as a bright, fun player, not just personality-wise but in the way I play as well”,she expressed. The victory felt like a reward for the tough times Yoo had endured. Though she shined as a junior player, she faced setbacks during her middle and high school years. “My parents were my biggest supporters during those difficult times”,Yoo shared. A knee injury during winter training further complicated her journey, and though she earned attention with her Asian Games medals, her early-season results fell short of expectations. Feeling the weight of those expectations, she sought advice from her coaches to manage her mindset and find her game. “I initially rushed things, wanting to win as soon as possible after securing my tour card. But after tying for 12th at the McCol Mona Yongpyong Open with SBS Golf, I shifted my focus. Instead of obsessing over results, I told myself to concentrate on the process, and that change in mindset really paid off”,Yoo reflected.

Her approach bore fruit, with a 4th-place finish at the Lotte Open and a 7th-place finish at the Hanwha Classic 2024 leading up to her major victory.

“Honestly, I didn’t feel extra pressure just because it was a major. I simply wanted my first win to come sooner rather than later, and I didn’t expect it to happen at a major tournament. Now, I’ll keep working hard and hopefully grab another win before the season ends”,she said with determination. ◆

유현조 선수의 data

(23개 대회, 42주 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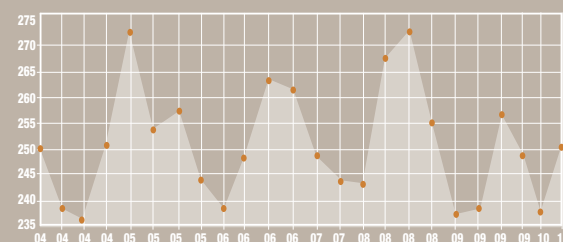
[투어별 우승]

100%
(정규 1회)

15
상금 순위 15위
(551,651,842)

대상 포인트
12위(268)

[드라이브 거리] 8위(250.2152)



8

1
위(5)

[총 이글 수]

3위
80.0154

[그린 적중률]

14위
71.0952

[평균 타수]

대회별 순위

제12회 E1 채리티 오픈	공동 8위
롯데오픈	공동 4위
한화 클래식 2024	공동 7위
2024 동부건설·하이트진로 챔피언십	공동 4위

※ '상상인·한경 와우넷 오픈 2024' 종료 기준



윤이나



박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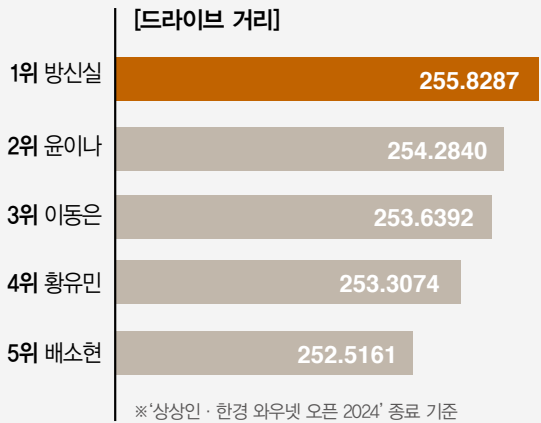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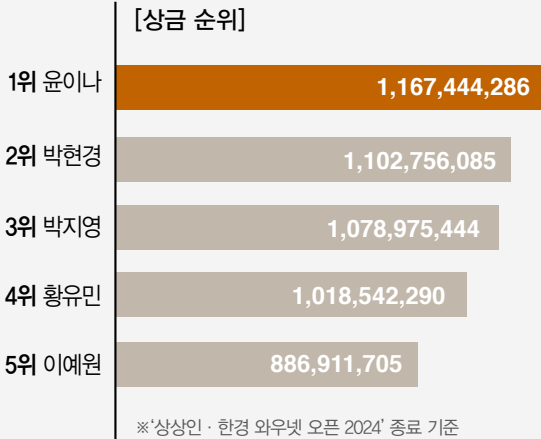
데이터로 보면 더 재미있는 KLPGA

KLPGA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는 일도 흥미진진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면 또 다른 재미가 있다. KLPGA 데이터 센터의 수치로 선수들의 이번 시즌 경기력을 되짚어보았다.

2024시즌 KLPGA투어 상금왕 자리를 놓고 역대급으로 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KLPGA투어에 복귀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윤이나가 현재 상금 1위로 올해 남은 3개 대회 가운데 2개만 뛴 예정이다. 10월 24일 기준 윤이나는 11억6744만4286원, 2위 박현경은 11억275만6085원, 3위 박지영은 10억7897만5444원, 4위 황유민은 10억1854만2290원 순으로 1, 2위 격차가 크지 않아 남은 경기를 두고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다. 남은 대회에서 박현경이 우승을 차지할 경우 이 순위는 바뀔 수 있다. 위 선수들 가운데 누구든 우승을 추가하면 상금왕의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된다.

박지영은 '덕신EPC·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에 출격해 올 시즌 4승에 도전한다. 이번 경기에는 박지영뿐만 아니라 시즌 3승을 기록 중인 박현경, 이예원, 배소현도 출전해 모두 4승 경쟁에 나서게 되었다. 지난 시즌 이 대회 우승자는 박현경이었다. 생애 첫 승을 거두었던 김민별은 이번 대회를 통해 시즌 2승에 도전한다.

장타자들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방신실은 평균 드라이버 거리 255.8287야드로 현재 1위를 기록 중이다. 방신실과 함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윤이나는 254.2840으로 2위에 올랐다. 3위는 루키 이동은이 차지했다. 이동은은 이번 초부터 장타자로 이름을 알렸다. 현재 1위 방신실과 2위, 3위의 차



박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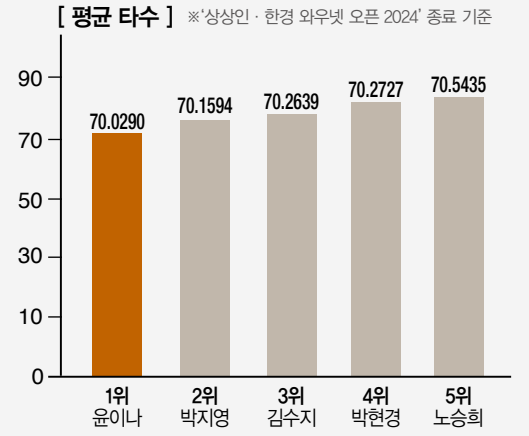
황유민

는 상당히 근소한 편이다. KLPGA투어에서는 이번 시즌 상금 랭킹 톱텐에 오른 골퍼들 가운데 다수가 드라이브 거리 상위권에 올라 있다. 올 시즌 3승을 달성한 배소현과 박지영은 각 252,5161야드와 249,8444야드로 5위와 9위를 차지했고, 유현조가 250,2152야드로 8위, 김수지가 249,0421야드로 10위를 차지했다.

이런 장타자들은 버디율도 높게 기록하며 실속까지 챙기고 있다. 장타자들의 버디율을 보면 투어 평균인 16.0652를 훨씬 웃도는 기록들이다. 1위인 윤이나는 22,9469를 기록했고 멀리 보내기로 유명한 황유민과 방신실은 각 3위와 4위에 올랐다. 배소현 역시 9위를 기록 중이다. ◆

[평균 버디] ※'상상인 · 한경 와우넷 오픈 2024' 종료 기준

1위 윤이나	4.1304
2위 박현경	3.9481
3위 황유민	3.8873
4위 방신실	3.8101
5위 박지영	3.7971





숫자로 보는 — KLPGA 대회 리뷰

KLPGA투어 선수들의 놀라운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 객관적인 숫자를 통해 화제가 되었던 기록들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

3

이번 시즌 3승을 기록한 선수들이 4명으로 다승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

데뷔 10년 차 박지영은 올해 3승을 거두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커리어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다. 박현경 역시

'2024 두산 매치플레이',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24', '맥콜 ·모나 용평

오픈 with SBS'에서 우승을 차지해 시즌

3승을 기록했다. 생애 첫 승에 이어

연이은 우승으로 시즌 3승을 기록한

배소현, 지난 시즌 대상과 상금왕,

최저타수상 등 3관왕을 차지했던

이예원도 지난 3월 '블루캐니언 레이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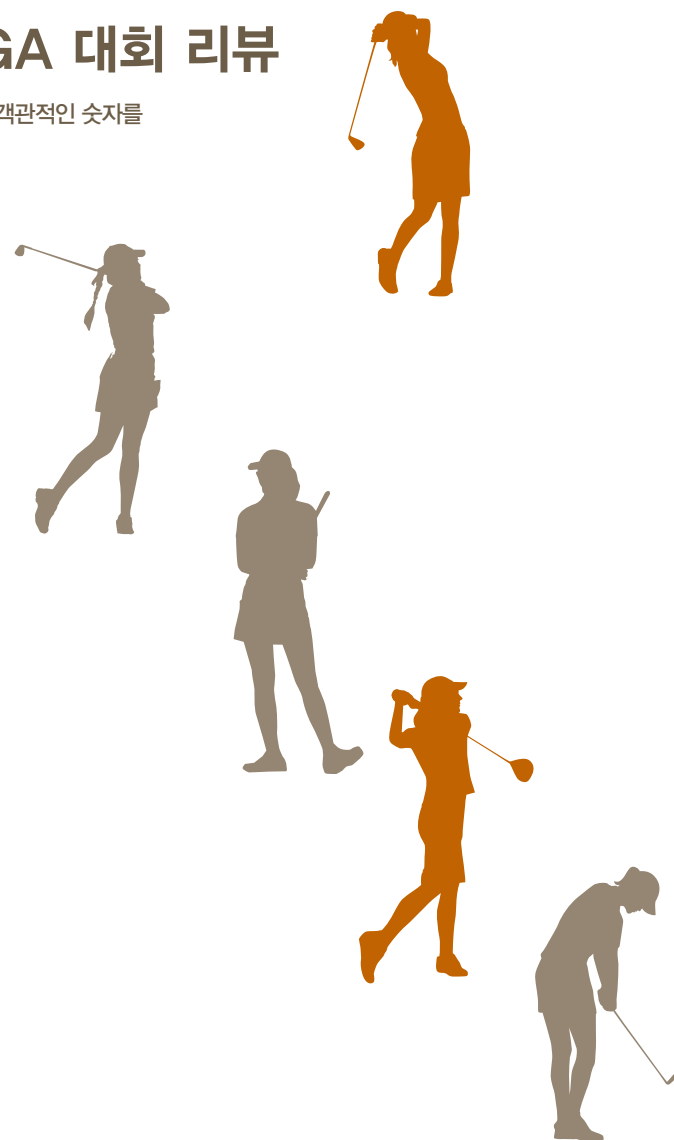
챔피언십'과 지난 달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이어 3주 만에

시즌 3승째를 따냈다.

1

KLPGA투어 신인왕 출신의 김민별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김민별은 익산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투어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 최종라운드에서 최종합계 49점으로 우승했다. 이번 대회는 타수로 우열을 가리는 스트로크 플레이가 아니라 점수 합산으로 순위를 매기는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앨버트로스는 8점, 이글은 5점, 버디는 2점을 받고 보기는 -1점, 더블보기 이상은 -3점을 매겨 성적을 결정했다. 버디나 이글을 잡아야만 점수를 얻는 방식이라 공격적인 스타일이 유리하다. 김민별은 지난해 우승 없이 최고의 신인으로 우뚝 섰지만 우승이 없는 신인왕이라는 부담을 갖고 있었다. 준우승 3차례, 3위 2차례 등 톱텐에 12번이나 들었지만 우승과는 연이 닿지 않았다. 이날 52번째 대회를 통해 마침내 생애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FREDERIQUE CONSTANT
GENEVE

Live your passion



HIGHLIFE
Chronograph Automatic

MOVING FORWARD

frederiqueconstant.com

프레드릭 콘스탄트 5년 무상 공식서비스는 공인된 매장에서 구입한 홀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1899-7848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7122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660-3146 롯데백화점 강남점 02)531-2287 롯데백화점 본점 02)2118-6124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1970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 031)8072-1870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5170-2246 현대백화점 미아점 02)2117-1755

롯데면세점 소공점 02)759-6771 월드타워점 02)3213-6862 신라면세점 서울점 02)2230-1480 신라아이파크면세점 02)490-3681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02)6370-4075

부산점 051)775-3264 현대백화점면세점 02)2142-6170

한국심장재단 후원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판매금의 일부를 한국심장재단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The Korea Heart Foundation

1.012

KLPGA 시청률이 1%를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지난 '제24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최종라운드 시청률은 1.012%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나흘간 총 36시간 이상을 생중계했다. 최종라운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생중계되었는데 장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시청률 1%가 넘었다. 단일 라운드로 1%를 돌파한 것은 지금까지 치렀던 경기 가운데 3번째이고, 메이저대회 가운데는 1위다. 대회에는 약 7만 명의 갤러리가 KLPGA 스타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기 위해 방문해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김수지가 우승을 차지했다.

359

꾸준히 성실한 플레이로 투어 내 터줏대감이 된 안송이는 '최다 대회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KLPGA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안송이는 10월 24일 경기 용인의 88CC 서코스(파72)에서 개막한 '덕신EPC·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총상금 10억 원)에 참가하며 출전 대회 수를 '359'로 늘렸다. 이로써 안송이는 2022년 은퇴한 홍란이 가지고 있는 투어 최다 대회 출전 기록(359대회)과 타이틀을 이뤘다. 이번 시즌 남은 대회 중 한 대회만 출전해도 신기록을 세우게 된다.

2058

슈퍼루키라 불리는 유현조가 신인상 1위를 조기에 확정지었다. KLPGA투어에서 이제 남은 경기는 3개. '덕신EPC·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10월 24~27일), 'S-OIL 챔피언십'(10월 31일~11월 3일), 'SK텔레콤·SK실더스 챔피언십'(11월 8~10일)이다. 유현조는 신인상 포인트 총 2058점을 기록 중인데 2위인 이동은은 1296점으로 762점의 격차가 벌어진다. 남은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더라도 신인상 포인트는 730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현조를 따라잡기는 힘들다. 유현조는 9월 메이저대회인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 데뷔 후 첫 승을 따내며 실력을 입증했다. 올해 25개 대회에 나가 컷오프가 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 발군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15



아마추어 여자골프 국가대표 오수민이 KLPGA투어에서 의미 있는 기록을 작성했다. 오수민은 'OK저축은행 옷맨 오픈' 둘째 날 2라운드 경기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9개를 잡아내며 9언더파 63타의 스코어를 기록했다. 오수민이 기록한 9언더파 63타는 라이프 베스트 스코어일 뿐만 아니라 최혜진이 지난 2017년 '조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 3라운드에서 기록한 KLPGA투어 역대 아마추어 선수 한 라운드(18홀) 최소타 기록과 타이 기록이다. 최혜진의 기록이 18세 생일을 2개월 앞둔 시점에 작성된 것에 비해 오수민의 이날 스코어는 16세 생일을 이틀 앞둔 시점이라 'KLPGA 역대 아마추어 18홀 최연소 최소타 기록'을 작성하게 되었다. ◆



gamtan®
All day, Everyday

감 탄
브 라®



감탄 공식 온라인몰 <https://gamtanstore.com>



연장전 끝 짜릿한 승리를 거머쥔 주인공들

우승은 늘 기쁘지만 그 우승이 연장전이라는 점전 끝에 이뤄낸 것이라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진다. 승부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우승을 따낸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 신정희 | 사진 · 임한수

KLPGA 드림투어 군산CC · 세기P&C
2024 16차전 우승

윤수아

‘KLPGA 군산CC · 세기P&C 드림투어 2024 16차전’에서 생애 첫 우승을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셨나요?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첫 우승이라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정말 우승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연장전에 돌입해 연장 첫 번째 홀에서 버디를 성공시키며 파로 마무리한 윤혜림 선수를 따돌리고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는데요. 연장전 끝에 우승이라 더욱 느낌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장전 경험이 많지 않아서 좀 긴장되기도 했는데요.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해야 할 것들만 생각하며 한 홀 한 홀 플레이하면 좋은 성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경기에 임했어요.

연장전이라 마지막 퍼트의 순간에는 긴장감이 크지 않았으셨나요?

긴장이 되긴 했는데요. 사실 그 퍼트가 이상하게 칠 때부터 확신이 들더라고요. 18번 홀 연장 승부에서 2.5m 버디 퍼트를 하며 공이 굴러가는 순간 ‘아 이걸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며 우승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우승을 예감했던 홀이 있으셨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홀은 파5 6번 홀이었어요. 티샷을 했는데 왼쪽으로 치우치는 미스샷을 치게 되었어요. 이후 비바람이 많이 불면서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는데요. 재개되고 나서 다시 경기를 했는데 그 홀에서 버디를 했어요. 오늘 흐름이 나쁘지 않겠다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마지막 조랑 타수 차이가 크지 않아서 마지막 홀에서 따라잡힐 수 있으니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는 마음이었고 코스를 공략하면서 우승을 예감하지는 않았어요.

우승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컸다는 우승 소감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어떻게 부담감을 이겨냈나요?

일단 그런 부담감은 선수라면 누구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담감을 느끼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PROFILE | 윤수아

생년월일 2002년 11월 21일

입회 연도 2021년 4월

KLPGA 드림투어 군산CC·세기P&C 2024 16차전 우승

2024년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 공동 7위

KLPGA 2024 무안CC·울포유 드림투어 19차전 공동 8위

KLPGA 2024 무안CC·울포유 드림투어 4차전 공동 10위

KLPGA 2022 큐캐피탈파트너스 노랑통닭

드림챌린지 2차전 공동 5위

KLPGA 2022 롤비스트·휘닉스CC

드림투어 5차전 공동 9위

좋은 성적이 날지 프로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2023년 정규투어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요. 시드를 지키지 못했던 부담감이 상당히 컸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지난해 투어를 하면서 샷 감이 좋지 않다 보니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동계훈련을 하며 스윙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골프 스타일을 바꾸려고 많이 시도했어요.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웨지 샷도 거리별로 나눠서 연습하고 체력훈련도 병행했더니 샷이 나아지는 속도가 빨랐어요. ♦



PROFILE | 권서연

생년월일 2001년 10월 7일

입회 연도 2019년 11월

KLPGA 2024 서울제약·큐캐피탈파트너스 드림챌린지 15차전 우승

KLPGA 2024 무안CC·울포유 드림투어 7차전 2위

KLPGA 세기P&C·군산CC 드림투어 2024 9차전 공동 6위

KLPGA 2024 SBS골프·크리브나인 드림투어 with 이지스카이CC 10차전 공동 7위

KLPGA 2024 무안CC·울포유 드림투어 11차전 공동 7위

KLPGA 2024 서울제약·큐캐피탈파트너스
드림챌린지 15차전 우승

권서연

‘서울제약·큐캐피탈파트너스 드림챌린지 15차전’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올해 목표가 우승보다는 드림투어에서 정규투어 시드권을 얻는 것이었는데요. 큰 욕심 없이 제 플레이만 했는데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시즌 초반 몇 번 챔피언즈에서 플레이를 했는데요. 그때마다 우승 욕심을 냈더니 더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그랬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1라운드에 공동 18위로 마쳐서 우승은 꿈도 꾸지 않았는데요. 성적에 연연하지 말고 오로지 내 플레이에만 집중하자고 마음먹었어요. 전날 많이 놓쳤던 버디 찬스를 떠올리며 집중했더니 샷과 퍼트가 둘 다 잘 되면서 타수를 줄일 수 있었어요.

구래현 선수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연장 첫 홀인 18번 홀 버디로 승리를 차지했는데요. 당시를 기억해보면 어떠셨어요?

연장전을 가기 전에 더 긴장감이 많았고 17번 홀에서 위기를 넘긴 덕분에 갑작스럽게 치른 연장전에서는 신기하게 긴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 홀에서 이를 동안 버디를 쳐서 자신감도 있었어요. 16번 홀에서 우연히 경기위원을 통해 공동 선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긴장감도 생겼지만 그때부터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계기도 되었어요.

허리 부상을 딛고 2년 만에 우승 경쟁에 뛰어들어 더욱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허리 부상이 있고 나서 마음을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어요. 성적에 연연하기보다는 몸 컨디션에 따라 움직이자는 생각으로 플레이했어요. 예전에는 연습만 죽어라 해서 이뤄낸 우승이었다면 이번에는 몸 컨디션에 집중해서 이뤄낸 우승이라 더 의미가 있어요.

지난 5월 시즌 첫 출전한 정규투어인 ‘더 캐리티 오픈’에서 공동 25위에 오르며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맥콜·모나 용평 오픈 with SBS Golf’ 둘째 날 2라운드에서는 2022년 KLPGA투어 데뷔 이후 한 라운드 최스타를 기록했어요. 이렇게 상승세를 탈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요?

오랜만에 투어에 복귀하고 난 뒤 초반에는 제가 원하는 스윙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난 겨울 스윙 연습보다는 체력훈련만 하다 보니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요. 너무

성적에 연연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스윙이나 코스 공략에 좀 더 신경 쓰기로 했어요. 이런 때일수록 현재에 집중하기로 했고 꾸준히 골프일지도 쓰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단계별로 성적이 나아지면서 기복 없이 꾸준히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루키 시절 정규투어인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와 ‘한국여자오픈’에서 준우승을 기록하며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을 때 찾아온 허리 부상이라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지난 겨울 전지훈련을 가지 않고 3개월간 한국에서 체력운동과 재활운동만 하루에 3시간씩 했어요. 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 점차 컨디션이 좋아지고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시즌 초반에는 스윙이 제 마음처럼 되지 않아 걱정이었었는데 적응을 하다 보니 스윙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성적이 좋을 때 부상이 생겨 심적으로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제가 잘했을 때를 돌이켜보며 극복할 수 있었어요.

처음 골프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5살에 골프를 처음 접했는데 그때 가르쳐주셨던 코치님이 마침 제가 다니는 유치원의 유아스포츠 선생님이로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골프를 계속 할 수 있었죠. 어릴 때는 부모님이 수영과 스노보드, 수상스키, 발레 등 여러 가지 예체능을 고루 접하게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골프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6살부터는 매해 방학 때마다 뉴질랜드에 가서 골프를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연맹 대회에 나가면서 골프 선수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주니어 국가상비군이 되면서 계속 선수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운동에 소질이 있는 편이었나봐요.

운동에 소질이 있기보다는 100% 노력형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잔소리하기 전에 알아서 일찍 일어나서 연습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불평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는 편이었죠.

골프 외에 쉬는 시간에는 어떤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세요?

집순이여서 집에서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편이에요. 투어에 가서도 근처를 구경하기보다 숙소에서 잘 나오지 않아요. 쉬 때는 친구들을 만나 맛집을 다니거나 카페에 가는 정도죠. 책도 많이 읽는데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읽으려고 해요. 이번에는 시즌이 끝나면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요?

함께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언니나 친구들이 정규투어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며 동기부여가 됐는데요. 내년에는 저도 정규투어에 가서 좋은 성적을 났으면 좋겠어요. 이번 겨울 전지훈련을 통해 우승까지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할 거예요. ♦





KLPGA 2024 무안CC·올포유
드림투어 4차전 우승

황연서

18번 홀에서 심지연 선수와 연장전을 벌였는데요, 7m 거리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심지연 선수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연장전 당시 어떤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고 우승을 차지한 순간 기분이 어떠셨어요?

버디 퍼트를 하면서 공을 치자마자 잘못 쳤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홀 왼쪽으로 공이 갔는데 운이 좋게도 들어가더라고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우승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믿기지 않았어요.

재작년에도 같은 코스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해서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코스 분석을 잘했나 보다 생각했어요. 이 코스에서 두 번이나 우승하니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학생 시절부터 무안컨트리클럽에서 많이 쳐봐서 좀 더 익숙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예감하셨나요?

우승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어요. 허리 부상으로 고생하면서 이번 시즌에는 부상 없이 경기를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이전 대회까지는 샷감과 퍼트감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샷감과 퍼트감이 살아나서 버디를 많이 기록한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어요. 연장전을 처음 해봤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플레이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2021년 6월 KLPGA 정회원으로 입회한 이후 지난해 KLPGA투어에 진출했지만 허리 부상 여파로 시드권을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이후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허리 부상을 극복하기 위해 코어운동에 집중하고 부상 재발 방지를 위해 운동량도 늘리며 준비했어요. 원래 하던 스윙 자체가 허리에 무리가 가는 편이어서 스윙법을 교정하려고 했어요. 이 부분을 고치지 못하면 앞으로 골프를 할 때 고생이 많을 것 같아 열심히 교정했어요.

지난해 정규투어 시드권 확보도 못하고 부상도 있어 멘탈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시드권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다운된 상태에서 멘탈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를 조금씩 파악해보려고 했고 멘탈 코칭도 받았어요.

아버지가 캐디를 해주고 계시는데 아버지와의 호흡은 어떠세요?

아빠랑 다니니까 여러 가지로 편한 점이 많아요. 아빠는 제가 골프 선수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제 캐디하시는 게 꿈이었어요. 늘 지켜보고 계시니까 연습하다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큰 도움이 돼요. 선배 언니들이 저랑 아빠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친하냐고 다들 신기해해요. 둘 다 긍정적인 성격이라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거기에서 우승하면 상금왕이 될 확률도 커서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드림투어에서 우승을 더 추가해서 정규투어 시드권을 확보하고 싶어요.

2월 개최된 골프존 WG투어에서 공동 3위를 기록해 신인왕 후보에 오르며 스크린과 필드를 오가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병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지난해 부상으로 전지훈련을 가지 않아서 시간이 많았는데요. 엄마가 스크린골프대회를 권유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스크린골프는 이동이 없어 체력적인 소모가 적고 하루 안에 끝나서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필드에서 하는 골프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적응하는 데 어려워서 아빠랑 유튜브를 보며 퍼트에 대해 연구를 했더니 실력이 늘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수영 선수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골프에 도움이 되었나요?

박태환 선수를 보면서 매력을 느껴서 수영 선수를 했는데요. 체력훈련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린 시절 마음의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시작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수영 선수 준비를 하며 너무 고강도 체력훈련을 했더니 골프를 하면서 체력적인 부분에는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골프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골프는 클럽으로 공을 쳐서 적은 타수로 우승자를 가리는 운동인데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양하고 과정 자체가 멋진 것 같아요. 위기 상황에서도 샷을 만들어내 위기를 극복하는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골프는 다른 운동과 달리 선두를 달리다가도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뒤처지다가 선두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경기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재미있어요. ♦



PROFILE | 황연서

생년월일 2003년 4월 13일

입회 연도 2021년 6월

KLPGA 2024 무안CC·올포유 드림투어 7차전 공동 6위

KLPGA 2024 SBS골프·크리브나인 드림투어 with 이지스카이CC 10차전 공동 7위

KLPGA 2024 더해븐 마스터즈 드림투어 with SBS골프 12차전 2위

KLPGA 2024 군산 드림투어 14차전 공동 4위

KLPGA 2024 서울제약·큐캐피탈파트너스 드림챌린지 15차전 공동 3위



KLPGA투어 팬덤 문화, 동업자 정신이 필요하다

팬덤 문화는 투어의 발전과 흥행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 요소다. 하지만 최근 KLPGA투어 팬덤 문화의 역기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KLPGA투어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수뿐 아니라 팬들까지 동업자 정신이 필요하다.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뿐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팬덤(Fandom)은 파내틱(Fanatic)의 'Fan'과 '영지·나라' 등을 뜻하는 접미사 'dom'의 합성어다. 사전적 의미는 가수, 배우,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나 특정 분야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 또는 그 무리를 말한다. '열광자', '광신자'를 뜻하는 팬덤은 오늘날 하나의 문화이자 장르가 됐다. 팬덤은 절대적 팬심으로 결성된 팬클럽이 모태다. 1980년대에 “기도하는~” 한 소절만 불러도 방청석에서 “까아악” 비명을 질렀던 오빠부대와 같은 그런 존재들로 당시만 해도 1020세대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60~70대의 노년층으로까지 팬덤 문화는 확산 추세다. 오늘날 팬덤 문화는 골프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걸그룹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KLPGA투어에서 더욱 위세를 떨친다. KLPGA에 따르면 현재 일주 70~80여 개의 팬클럽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중 회원 수가 많아 투어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큰 팬클럽은 대략 20여 개 정도인 것으로 집계된다.

오롯이 선수들의 플레이에 매료돼 응원하는 팬덤 문화는 투어의 발전과 흥행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 요소다. 하지만 팬심이 '세 과시'라는 그릇된 양태로 발전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최근 들어 KLPGA투어 팬덤 문화의 역기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다음과 같은 사례들 때문이다.

경쟁 선수에 매너와 예의 어긋난 행동을 보이기도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가 샷을 하기 전에 응원을 위해 집단으로 구호를 외친 뒤 지지 선수가 샷을 하고 나면 썰물처럼 자리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종종 목격한다. 특히 그린에서 퍼팅을 할 때 더 소란스럽다. 이 같은 불쌍사나운 광경은 경쟁 관계인 선수들이 한 조에서 경기할 때 더 심해진다.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고질적 병폐다. 주요 개인상 타이틀을 놓고 매주 순위가 엇지락 뒤치락하는 A, B, C 선수가 있다. 이들은 종종 한 조로 경기를 치른다. 대회 흥행을 고려한 주

최측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그에 부응해 선수들은 최상의 경기력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하지만 팬클럽들은 다르다. 상대 선수를 향한 시기와 질투, 반목과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심지어는 상대 선수를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발언들까지 쏟아진다. 그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선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은 쪽에서 발끈하는 건 당연. 이들의 고성으로 경기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진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순수 팬들은 얼굴을 찌푸린 채 서둘러 발걸음을 옮긴다.

선수 응원 현수막, 도를 넘는 경쟁으로 세 과시

KLPGA투어 거의 모든 대회장 입구에는 형형색색의 현수막이 걸린다. 대다수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팬클럽이 걸어놓은 것들이다. 멀리서 보면 흔들리지만 앓을 뿐 영락없는 만장(輓章)이다. 한 선수의 현수막이 많게는 10개 이상 걸린 경우도 있다. 여기서도 세 과시는 어김이 없다. 좋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도를 넘을 정도로 치열하다. 한 대회가 끝나면 다음 대회장으로 한걸음에 달려가 자리를 선점하는 진풍경마저 연출된다고 한다.

그릇된 팬심으로 KLPGA투어나 언론사에 도를 넘는 공격하기도

자신이 지지하는 선수에 비우호적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공격도 도를 넘고 있다. 비판 기능은 제도와 함께 언론의 고유 기능 중 가장 중요하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지나친다면 언론인의 참모습은 아니다. 스타플레이어일수록 일거수일투족은 언론의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타의 모범을 보이면 미담 기사가 되고 그 반대면 언론이 지적하는 건 당연지사다. 그런데 그릇된 팬심은 그마저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비판성 기사를 실으면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으로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한다. 그런 그릇된 행동은 결코 자신이 지지하는 선수를 위한 행동은 될 수 없다.

그릇된 팬심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를 때 KLPGA투어 주관 방송사 공격도 서슴지 않는다. 그 방식은 댓글이다. 스포츠 기사에는 댓글창이 없지만 KLPGA투어 주관 방송사인 SBS골프채널 라이브 중계방송에는 댓글창이 있다. 중계방송 때 중계진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선수에게 비우호적 멘트를 하면 댓글 폭탄이 쏟아진다. 그 정도는 그나마 애교로 넘길 수 있다. 이제는 방송사 편성 또는 중계 방향에 대해서도 개입하려 든다. 지지 선수가 화면에 자주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속어를 써가며 항의하는 댓글이 난무한다. 방송은 청소년 등 불특정 다수가 시청한다. 따라서 개인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댓글을 올리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하지만 그릇된 팬심에게 그런 지적은 쇠귀에 경 읽기가 된 지는 오래다.

봉사나 기부 활동 펼치는 팬클럽도 늘어

물론 많은 팬들은 KLPGA투어를 여전히 지지하고 사랑한다. 그러한 힘이 모아져 현재 KLPGA투어는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대다수 팬클럽은 시즌 중이거나 시즌 종료 이후를 가리지 않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선수와 함께 선행에 나선다. 최근 들어 작게는 대회 기간 코스 내 청소에서부터 크게는 봉사활동 또는 기부 행위 등 다양한 형태로 선수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하는 팬클럽이 속속 늘어나고 있



다. 글로벌 투어를 지향하는 KLPGA투어를 지탱하는 근간이라는 점에서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십수 년 전 기자는 한 칼럼에서 KLPGA투어 선수를 비롯한 구성원들의 '동업자 정신' 부족에 대해 쓴소리를 한 적이 있다. 선수들이 대회 기간 벙커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쓴 글이었다.

지금은 대부분 전문 캐디를 고용하고 있어 그런 후진적 모습은 볼 수 없지만 하우스 캐디를 임시로 고용했던 당시에는 혼란 광경이었다. 한 선수가 벙커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뒤따라오는 선수들도 덩달아 정리를 하지 않아 벙커는 순식간에 엠보싱처럼 울퉁불퉁해진다. 그런 벙커에서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건 당연했다. 일부 그릇된 팬덤 문화는 그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선수와 팬은 KLPGA투어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업자 정신이 필요하다. 선수들은 치열하게 경쟁할 때 하더라도 패자는 승자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승자는 패자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마음이 중요하다.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주연은 나머지 조연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더 강렬한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글쓴이 | 정대균
(국민일보 골프전문기자)



with CHALLENGE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다. 그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매진해온 선수들은 이제 다시 한번
도전의 순간을 맞이했다. 단풍으로 곱게 물든 필드 위에서
만나는 선수들의 승부 현장은 지켜보는 팬들에게도 잊지 못
할 감동과 추억을 선물할 것이다.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길이기에 더욱 긴장감과 설렘을 동시
에 안겨주는 도전정신. 스포츠에서 도전은 더 큰 목표를 향
해 갈 때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다. 선수들을 더 크게 발전
시키는 도전이 있기에 내일의 우승도 찾아오고 어제의 실수
를 보완하는 더 멋진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

Embracing the Spirit of Challenge

As the sweltering summer days fade away, a
new season emerges, bringing with it fresh
opportunities. For the players who have dedicated
themselves to relentless practice, the moment to
rise to new challenges has arrived. The battles
that unfold on the course, now adorned with
autumn's vibrant colors, will leave fans with
unforgettable memories and lasting inspiration.
Challenge is a source of both excitement and
tension, especially when it takes us down
uncharted paths. In sports, the pursuit of
challenge is indispensable when striving toward
greater goals. It pushes athletes to evolve, fuels
their ambitions for tomorrow's victory, and turns
yesterday's mistakes into stepping stones for
remarkable performances. Without challenges,
progress would stall, and the thrill of triumph
would remain elusive. It is through this spirit of
challenge that true greatness is achieved. ◆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어느덧 무더위는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과 푸른 하늘,
알록달록 물든 필드가 선수와 팬들을 맞이한다. 이제 새롭게
도전의 한 페이지가 쓰여지는 시점이다.

이번 시즌 최예림은 두 차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을 포함해 3차례 준우승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아직 최예림의 첫 승을 향한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마음을 비우며 승리의 그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PROFILE | 최예림

생년월일 1999년 3월 8일

입회 연도 2017년 7월

2024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공동 2위

맥콜·모나 용평 오픈 with SBS Golf 2위

롯데오픈 공동 2위

PLK 퍼시픽링크스코리아 챔피언십 with SBS Golf 2위

생애 첫 승을 향해 다시 한번 도전! — 최예림

우승을 향해 욕심 내려놓기 연습 중

최예림은 '맥콜·모나 용평 오픈 with SBS Golf'에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다. 2라운드에서 최종합계 13언더파로 박현경과 동타를 이룬 상황에서 연장으로 우승을 가려야 했다. 18번 홀에서 진행된 첫 번째 연장전에서 박현경이 5m짜리 버디 퍼트를 성공시켰다. 반면, 최예림은 아쉽게도 버디 퍼트가 홀을 비켜가면서 박현경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다. 전반까지는 선두와 타수 차이가 커서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던 최예림은 담담하게 경기를 했다. 최종라운드에서 박현경이 꽤 길이가 긴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는 것을 보면서 '아! 이번 우승은 내가 아니구나'를 예감했다고 한다.

"우승에 대한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좀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경기 전반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플레이가 괜찮았기 때문에 마음을 추스리며 다음 경기를 또 준비하려고 했어요."

최예림은 지금까지 경기를 하면서 '잘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경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기대하지 말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되뇌면서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다. 지금까지는 꼭 경기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어야 자신의 존재가 증명된다는 생각이 있었다. 지난해보다 올해 성적이 더 좋아진 것도 멘탈적인 면에서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스wing은 계속 꾸준히 연마하는 부분이라 부족한 면이 멘탈이라고 봤어요. 선수들이 누구나 경기에서 노력하는 건 같은데 마지막 승패를 가르는 요인은 강인한 멘탈이라고 생각해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요."

내일의 우승을 향하여

첫 우승에 도전한 최예림은 '맥콜·모나 용평 오픈 with SBS Golf'에 이어 '롯데오픈'에서 이가영에게 밀려 2주간 모두 연장전 끝에 준우승을 차지했다. 2, 3라운드에서 단독으로 질주했던 이가영을 최예림과 윤이나가 동시에 맹추격해 동타를 이루며 연장전에 돌입한 것이다. 18번 홀에서 열린 연장 1차전에서 이가영이 1.5m 버디 퍼트에 성공해 파에 그친 최예림은 준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다. 시즌 3번째이자 통산 8번째 준우승이었다.

"항상 우승을 할 듯 말 듯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니 저도 아쉬움이 커요. 아예 기대를 하지 말게 하지 내 자신에 이리면서 제 자신을 탓하기도 했어요."

지나가던 갤러리분들도 우승을 응원할 만큼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예림의 우승을 바라는 상황. 계속 2등을 하면서 숙제가 있는데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계속 숙제가 밀려 있는 느낌을 받으니 개운하지 못한 기분이다. 골프 때문에 애간장을 많이 태우다 보니 역류성식도염이 심해지기도 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밥을 잘 못 챙겨 먹으면서 속병이 나는 것이다.

"다음 경기들이 또 있으니 바로 털어버리고 다음 대회를 준비하며 이겨내요. 윤이 좋게도 이번 시즌에는 지난해보다 기량이 향상되어 성적이 좋아졌어요. 프로님이랑 호흡이 잘 맞은 덕분이예요."

최예림과 8년째 호흡을 맞추고 있는 권오연 코치는 멘탈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존재다. 워낙 오랜 시간 최예림을 지켜보며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어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데 "골프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큰 걸 보지 못한다. 내려놔라. 원한다고 우승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내려줘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대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권오연 코치와 이야기를 하며 약해진 부분을 다잡으려고 한다. 스윙 부분에서도 틀어지는 측면이 있으면 바로 교정을 해주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 좀 더 안정적으로 나설 수 있다.

하반기 첫 메이저대회였던 '한화 클래식 2024'에서는 첫날 1라운드로서 6언더파 66타로 자신의 한화 클래식 한 라운드에서 최소타 기록을 세운 일도 있었다. 코스가 어려워 어떤 기록을 세워야겠다는 마음보다는 한 홀 한 홀 집중하며 플레이하고, 코스 공략에만 힘썼는데 나중에 보니 기록이 좋게 나와 있었다. 그만큼 이번 시즌에는 경기력이 좋아진 게 느껴진다. 지난해 겨울 동계훈련에서 아이언 샷 위주로 연습을 많이 했다. 다양한 위치와 상황에서 아이언 샷을 연습했고 같은 피니시라도 다르게 치는 연습을 하며 몸에 맞게 훈련한 게 도움이 된 것 같다. "여러분이 응원해주는 만큼 이번 시즌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해서 첫 승을 거두도록 노력할게요." ◆



첫 우승까지 한 걸음,____ 멀지 않은 이제영

2020년 정규투어에 데뷔한 이제영은 이번 시즌 두 번이나 준우승을 하며 최고의 활약을 선보이고 있다. 이제 이제영에게 생애 첫 우승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핑크빛 미래가 멀지 않은 것만 같다.



PROFILE | 이제영

생년월일 2001년 3월 2일

입회 연도 2019년 6월

블루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 3위

제10회 교촌 1991 레이디스 오픈 공동 2위

2024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공동 2위

맥콜·모나 용평 오픈 with SBS Golf 공동 3위

제13회 KG 레이디스 오픈 공동 3위

데뷔 첫 승 도전을 향해

이제영은 지난 5월 골프존카운티 선산에서 개최된 '제10회 교촌 1991 레이디스 오픈'에서 둘째 날 3타 차 단독 선두를 기록하며 첫 우승에 대한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우승까지는 단 한 걸음만 남겨둔 시점이었다. 함께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통산 4승의 박현경과 통산 8승의 노련한 박지영. 결국 박지영은 2라운드까지 선두를 지켰던 이제영에게 3타 뒤진 공동 2위였지만 8번, 9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하며 한 타 차로 압박하더니 마지막까지 타수를 잃지 않으며 선두를 지켜 최종라운드에서 한 타 차이로 준우승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 제가 선두로 나서기도 했고 우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 아쉬움이 있긴 했는데요. 이전 경기에서 챔피언즈에 속했을 때보다는 제 플레이를 좀 더 자신 있게 했고 주변에서도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보기 좋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아쉬움을 좀 덜 수 있었어요. '2024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에서도 사실 우승에 대한 기대를 안 하고 경기에 임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2위를 한 것도 만족해요."

'제10회 교촌 1991 레이디스 오픈'은 비바람이 부는 날씨 속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높은 시청률만큼이나 많은 관심이 있던 경기였다. 초반에는 단독 선두로 올랐다가 박지영 선수에게 역전을 당하면서 우승 경험 많은 베테랑 선수의 면모를 다시 한번 느끼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준우승 이후 응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팬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첫 승

지난해 처음으로 시드를 유지하면서 2024년 시즌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다. 부족한 부분이 원지 살펴보고 보완해야 될 문제점을 챙겼다. 동계훈련을 미국 올랜도로 갔는데 날씨도 춥고 지대도 낮아 드라이버 거리가 평소보다 나오지 않았다. 드라이버 거리를 내기 위해 평소보다 세게 치는 연습을 했고, 아이언 컨택이나 방향성도 개선하려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했다. "제13회 KG 레이디스 오픈'은 우승에 정말 가까웠다고 생각해 긴장도 많이 했고 아쉬움이 컸던 대회예요. 우승을 생각하지 않고 제 플레이만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마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2위와 3위를 하는 기록이 나오면서 우승에 대한 갈망이 더 커졌다. 이제 곧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과 동시에 스트레스도 많았다. 그걸 털어내고 우승에 대한 생각 없이 플레이하는 것이 목표다. 다행히 이번 시즌 준우승까지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작년까지 훈련으로 준비가 잘 된 덕분이었다. 자신 있게 어느 곳을 향해 쳐도 원하는 곳으로 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지난해 퍼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짧은 거리에 퍼트 티를 꽂아두고 성

LEE J E Y E O N G



공할 때까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 연습했던 덕분에 퍼트가 상당히 좋아졌다. 최종적으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퍼트가 조금 더 정교해지면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 부담감을 낮추는 마인드 컨트롤까지 잘한다면 우승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한다.

"마음속에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지만 겉으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럴수록 더 자주 웃으려고 하죠. 웃다 보면 긍정적으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 덕분에 처음 골프를 접했다가 아버지의 권유로 골프 선수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입문 3년 만에 전국 초등골프대회 5개 가운데 3개 대회에서 연속으로 우승할 정도로 두각을 드러냈다. 그러다 신인 시절에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2020년 KLPGA투어에 입성한 뒤 신인 시즌을 상급 랭킹 99위로 끝내 이듬해 드림투어에서 뛰어야 했고 2022년 KLPGA에 복귀했지만 상급 랭킹 89위에 그쳐 다시 시드전을 치러야 했다. 이후 2023년 '맥콜·모나 용평 오픈 with SBS Golf'에서 공동 2위를 차지하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KLPGA 프로 데뷔 첫해에는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 이후로도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좋을지 몰라 또 헤맸어요.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저의 모든 걸 다 바 꾸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어릴 때는 비교적 아이언 샷을 잘하는 선수였는데 아이언 샷 정확도도 떨어지고 여러 부분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잃을 게 없다는 마음으로 스윙부터 모든 부분을 바꾸었더니 성적도 나오기 시작하고 시드권 걱정을 덜며 좀 더 마음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어요."

이제영이 우승을 향해 도전하며 힘을 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팬클럽이다. 이제영을 응원하는 팬클럽 '러블리 제영'은 경기가 있을 때마다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경기장에 와서 응원해주고 사소한 기록도 놓치지 않고 찾아보며 늘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다. 첫 우승으로 팬들의 마음에 꼭 보답하고 싶다. ◆

누구보다 꾸준히 노력하는 성실파 최민경.
통산 준우승 3회를 기록하며 우승을 향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오랫동안 안정적인
시드권을 유지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한 발자국씩 첫 승을 향해 나아가는
최민경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는 분명하다.



PROFILE | 최민경

생년월일 1993년 4월 10일

입회 연도 2011년 6월

블루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 2위

크리스토프앤씨 제46회 KPGA 챔피언십 6위

롯데오픈 7위

한화 클래식 2024 공동 3위

부족한 면 미리 보완하는 파워J

지난 3월 태국 푸켓에서 열렸던 '블루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최민경에게 여러모로 의미가 큰 대회였다. 해외 시합이다 보니 리더보드에 마땅치 않아 선두와 점수차가 크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17번 홀에서 2위랑 1타 차, 3위랑 2타 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예원이 먼저 9언더파로 경기를 끝낸 상황에서 최민경이 16번 홀 버디로 1타 차까지 따라붙게 된다. 1타 차로 박빙인 상황에서 17, 18번 홀에 타수를 줄이지 못한 것이 마지막 승리를 가르게 되었다.

“우승을 위해서는 무조건 공격적으로 플레이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17번 홀 파3 핀 위치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더블보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핀 쪽으로 공략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경기를 했는데 파로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마지막에 홀까지 86m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스샷을 하게 된 거예요. 비록 한 타 차 준우승이었지만 제 미스샷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어요.”



성실함으로 쌓아 올리는 —— 내일의 우승 최민경

아쉬움도 남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진짜 우승을 노려봐도 좋겠다는 확신도 갖게 했던 대회다. 마지막 홀만 놓고 보면 아쉬움이 크지만 최종라운드를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많이 보였다. 우승을 차지했던 이예원 선수의 경기를 다시 보니 중요한 퍼트를 성공시킨 경우가 많았다. 좀 더 퍼트를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제가 장타자가 아니다 보니 샷에 대해 큰 데미지가 있지는 않은데요, 항상 챔피언조에 들어가서 부족했다고 여겼던 부분이 퍼트였어요. 그런데 지난 미국 동계훈련에서는 퍼트 연습보다는 스윙 교정과 체력훈련을 중점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퍼트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현재 최민경의 평균 퍼팅은 26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성적이지만 아직 우승이 없는 이유로 퍼트와 아이언 정확도를 높이는 부분에 집중할 것이다.

느리지만 탄탄한 베테랑 선수

이번 시즌 최민경은 토텐 안에 6번이나 들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던 비결로 지난 미국 동계훈련을 꼽았다. 60일 동안 전지훈련을 다녀왔는데 함께 갔던 선수들의 연령층이 대부분 20대 초반이었다. 이 선수들과 경쟁하려면 그 선수들과 견주었을 때 훈련 강도가 떨어지지 않게만 해보자며 60일을 버텼다. 이렇게 훈련을 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성적이 좋았다. 훈련 효과가 제대로 나온 것이다.

“지금도 빨리 훈련하러 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기대가 돼요. 훈련을 하고 돌아왔을 때 성장해 있을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크기 때문이죠. 김성운 코치님도 훈련에 9년째 함께하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호흡이 더 잘 맞고 믿음이 강해요.”

김성운 코치는 최민경에게 인생의 멘토이자 골프 스윙 롤모델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실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냉정하게 이야기해주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며 더 강해지는 것을 느낀다.

9년 연속 시드권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KPGA투어에서 뛰고 있지만 이런 최민경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 2017년 순위가 60위까지 떨어진 것이다. 그때 김성운 프로는 이번에 기회를 얻어 시드권을 받는다면 다시는 떨어질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한 대회에서 60위가 아니라 1년 전체 경기의 순위가 60위라면 너의 실력 그 자체를 받아들이라는 조언도 해줬다. 이 조언을 새기며 열심히 한 끝에 간신히 30위로 올라서 시드권을 따낼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시드권에 대한 걱정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 번 내려갔다 올라왔던 경험이 있기에 이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다. 60위의 서러움을 겪어보고 나니 무서운 것이 없었다. 60위로 떨어졌던 경험이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된 계기였다.

“제가 KPGA투어 1년 차일 때 선배 언니들을 보며 어떻게 10년이나 투어를 뛸 수 있을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어느덧 그 위치에 오게 되었어요. K-10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선수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최민경은 드림투어에서도 5년이나 있었고 순위가 60위까지 떨어지는 등 고비를 맞기도 했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기에 '느리지만 탄탄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다. 내년 시즌 목표는 물론 첫 승이지만 단순히 우승을 하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는다. 2승이나 3승을 목표로 하면 자연히 우승도 따라올 것이라고 믿는다. 이번 동계훈련에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목표를 다 잡으며 도전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

SOMETHING NEW CHALLENGE I'VE TRIED

새로운 도전은 일상에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KLPGA 선수들이 올해 새롭게 도전에 나선 일들은 무엇이었는지 직접 소개해준다.



KIM MIN BYEOL 김민별

지금은 한창 시즌 중이라 다른 분야에 새롭게 도전하기는 힘든데요, 골프와 관련해서는 늘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골프를 치면서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부분은 '대회 중 실수가 나왔을 때 멘털 무너지지 않게 하기'예요. 경기를 하다가 실수가 한 번 나오면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분노감이 생겨 다음 홀까지 플레이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런 부분은 제 자신은 물론 경기력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실수를 하더라도 속상한 마음을 금방 털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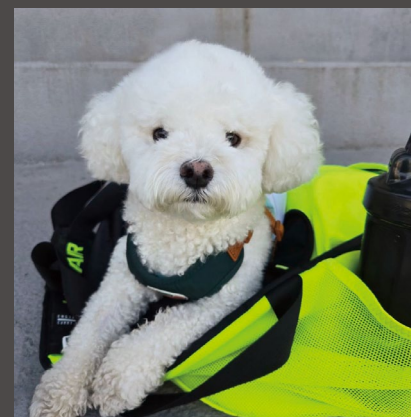
LEE YE WON 이예원

저는 올해 첫 해외 대회에 도전했어요, 여러모로 성장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JLPGA투어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살롱파스컵', 그리고 LPGATour '아문디 예비앙 챔피언십'에서 대회를 치렀는데요, 국내와는 다른 코스 상태와 환경 속에서 경기를 경험해본 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실력을 갖춘 뛰어난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공부가 되었어요. 체력 안배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보게 되었고, 제 자신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HEO DA BEEN 허다빈

평소에 근력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았었는데요, 올해 새롭게 도전해본 것은 '웨이트트레이닝 습관 만들기'입니다. 원래는 근력운동의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 스윙 동작을 좀 더 부드럽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근력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전완근과 힙 운동을 위주로 꾸준히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시간이 날 때만 운동을 했다면 올해부터는 운동을 위한 시간을 일부러 빼서 했다는 점이 달라진 부분이에요. 꾸준한 근력운동 도전으로 골프 스윙도 더 개선되기를 바라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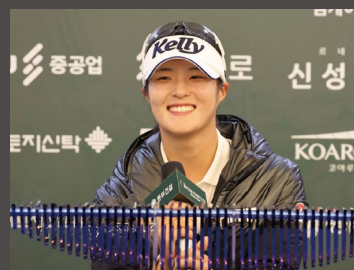
LIM HEE JEONG 임희정

제가 올해 개인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분야는 바로 '반려견에게 좋은 주인 되기'예요. 매주 대회를 치르다 보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제가 사랑하는 반려견 모찌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놀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대회가 마무리되는 이번 겨울에는 모찌와 함께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추억 만들기에 도전하겠습니다!



HWANG YOU MIN 황유민

올해에는 특별히 골프 외적으로 새로운 분야에 취미를 가지는 것에 도전을 했는데요, 2024년 초부터 롤이라는 게임을 시작했어요. 함께 KLPGA투어 생활을 하는 친한 선수들과 PC방에 가서 롤 게임을 해보니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골프 외적으로 새로운 분야에 매력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율린 선수와 함께 e-스포츠를 직접 보러 갔었던 일이에요. 처음 경기 직관을 했는데 즐거운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



도전을 하는 데 있어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

자신의 실력을 뛰어넘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계를 극복하며 새롭게 도전해야 한다.
그래야 더 높은 실력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도전에는 늘 부담이 따른다.



05

Special Theme
Plus Point

더 높은 목표 설정을 막는 일은 자신의 한계 규정짓기 골프선수 아니카 소렌스탐은 LPGA 18홀 경기에서 남들이 보기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54타 기록을 목표로 삼았다. 남들은 어려운 도전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기록을 목표로 삼았기에 소렌스탐은 59타라는 대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은 새로운 도전의 길이다. 이러한 도전은 생각의 그릇을 키우는 일이다. 최근 뉴욕의 허드슨강에서는 농구공보다 두 배나 큰 금붕어가 자주 보인다고 한다. 뉴욕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금붕어들이 유전자에 변하기라도 한 것인지 왜 이렇게 큰 금붕어들이 출현하는 것일까?

집에서 키우는 금붕어는 작은 사이즈다. 집에서 키울 수 있도록 특화되어 진화했기 때문이다. 작은 어항에서 자라는 물고기는 삶의 터전의 크기에 맞춰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에 자연에서 사는 금붕어보다 수명이 짧은 것이다. 높고 이상적인 목표를 잡는 일은 금붕어가 강으로 나가는 것과 같다. 한계를 정하지 않고 몸집을 불리는 일이다. 한계를 정하지 않고 세계관을 넓혀보자. 그리고 새롭게 도전해보자. 도전에 나서기도 전에 미리 내 한계를 정해서 '안될 거야'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코칭 전문가가 한 골프 선수를 코칭했던 일화를 소개한다. 이 선수는 대회에서 우승을 종종 차지했던 선수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중상위권에 머물며 높은 순위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코칭을 받으며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기를 원했다. 이 골프 선수는 자신감도 있었고 심리적인 부분도 안정적이었다. 상담을 진행하며 진짜 문제를 파악하게 되었다. 문제는 바로 '목표 설정'에 있었다. 어느 순간 이 선수가 10~20위권에 머무르는 게 편안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두려움과 부담감이 생기면서 경기를 망쳤고, 중상위권이 내 실력인가 보다 하고 자기 자신을 규정지은 것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중상위권 유지'를 목표로 정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버린 것이다.

무모한 도전이 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 세우기 새로운 한계에 도전하는 일은 늘 외롭고 장애가 따른다. 자신이 해왔던 안정적인 길을 버리고 나서는 새로운 길이기도 '더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도사리게 마련이다. 또 괜한 짓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급기야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은 습관 때문에 새로운 시도에 적응이 잘 되지 않으면서 금세 포기 of 유혹을 받기 마련이다. 어차피 도전해봤자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자기 자신을 위로한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는 틀 때문에 더 큰 도전에 응하는 이들이 소수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얻는 것이 없다는 건 자명한 일이다. 그동안 가두었던 아주 작은 성과라도 돌아보자. 새롭게 시도하지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만 했는데 갑작스럽게 얻었던 성공이 있었는지?

도전을 가로막는 불안감과 편안하고자 하는 익숙함은 마이너스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높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것도 물론 옳지 않다. 그것은 '무모한 도전'이 될 것이다. 본인이 달성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우면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도록 세팅되어 있다고 한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정신적으로 해롭겠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의 긴장감을 주고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실제로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할 때 마지막에 20개의 윗몸일으키기를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만 더를 외치며 파이팅을 하면 결국 21개를 할 수 있게 된다.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한계를 뛰어넘는데 기꺼이 도전해보자. 자기만의 가치를 담은 이상적인 목표를 세우고 싶다면 10년 후 모습과 이루고 싶은 것들, 10년 후를 위한 5년 후 모습,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 올해 계획을 세워보자. 구체적인 목표를 이렇게 세우다 보면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도전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도서 : <이기는 멘탈>

CHALLENGING CHANGE

박현경



▶ 2024시즌을 준비하며 가장 도전적이었던 변화는? 전지훈련을 하는 동안 몸이 부서져라 싶을 정도로 드라이버 연습에 매진했어요. 기존 캐리 거리가 벅커 등 장애물을 넘기는 데는 애매한 거리였어요. 지난 동계훈련 동안 5야드라도 늘리기 위해 정말 드라이버를 많이 쳤는데요. 처음에는 세계 치면서 방향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하지라며 걱정도 했지만 좋아질 거라는 믿음으로 비거리 늘리기에 도전했어요. 상반기 동안 늘린 거리를 잘 유지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어요.

▶ 이번 시즌을 돌아보며 가장 도전적이었던 샷과 퍼트의 순간을 떠올린다면? '2024 두산 매치플레이' 경기에서 마지막 홀 우승이 되었던 퍼트를 잊을 수 없어요. 상반기에 쇼트 퍼트 미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우승 퍼트는 제가 가장 많이 놓쳤던 1.5m 버디 퍼트였어요. 이번 퍼트만 넣으면 우승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많이 부담되는 상황이었지만 숨 한 번 크게 내쉬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공시킨 후 더 기뻐던 것 같아요. 긴장되는 순간을 잘 이겨내고 극복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죠.

배소현



▶ 2024시즌을 준비하며 가장 도전적이었던 변화는? 기존에는 일자형 숏넷퍼터를 사용했는데요. 이번 시즌부터는 블레이드 센터퍼터로 교체했어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고 예민할 것 같다는 편견이 있었는데요. 옴폼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해주셔서 미국 전지훈련 때부터 테스트를 했어요. 연습에서 괜찮았지만 시즌을 소화하기에는 너무 예민한 퍼터가 아닐까 걱정했는데요. 전지훈련을 하면서 이시우 프로님이 도전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해주셨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승현 프로님도 새로운 퍼터로 시즌을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해주셔서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 이번 시즌을 돌아보며 가장 도전적이었던 샷과 퍼트의 순간을 떠올린다면? '제13회 K그레이디스 오픈' 최종라운드 11번 홀에서 티 샷을 잘 보내놓고 8번 아이언 세컨샷을 쳤는데 우측으로 휘는 미스샷이었어요. 공이 벅커 우측을 맞고 벅커에 들어가기 직전 내리막 경사에서 가까스로 멈췄어요. 핀 위치가 우측에 붙어 있는 핀이고 언덕도 있어 내리막에 공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우측 미스를 하면 세이브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클럽을 가파르게 들어서 공이 맞을 때 손목을 쓰면서 걷어 올리는 샷을 구사했는데 생각대로 공에 스핀이 많이 걸려 멀리 않은 파파트를 할 수 있었어요. 제대로 원하는 샷을 구사할 거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큰 도전이었지만 어프로치샷을 했죠.

선수들이 밝히는 도전이 되었던 변화와 도전적이었던 샷

우승을 향해 가는 선수들에게는 경기마다 매 샷이 도전이고 모험의 순간이다.
이번 시즌 3승을 거둔 선수들에게 가장 도전이 되었던 변화와 도전적이었던 샷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박지영



▶ 2024시즌을 준비하며 가장 도전적이었던 변화는? 동계훈련 동안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고 싶었는데요. 스윙트를 반복해서 하면서 지면반력을 이용해 비거리 늘리기에 도전했어요. 다행히 이번 시즌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노력했던 보람이 있어 다행이에요. 비거리가 늘어 경기를 하는 게 더 수월해졌어요. 2023년 드라이브 거리 순위 35위였는데 올해에는 9위까지 올랐으니 성공적이었어요.

▶ 이번 시즌을 돌아보며 가장 도전적이었던 샷과 퍼트의 순간을 떠올린다면? '한화 클래식 2024'에서 4라운드 13번 홀 파3 티 샷이 기억에 남는데요. 언제나 모든 경기에서 티 샷이 중요하지만 그 경기는 정말 우승하고 싶었기 때문에 굉장히 간절했고 도전적으로 다가왔어요.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 4라운드 마지막 홀 버디 퍼트도 저에게는 도전이었는데요. 노 보기 행진을 이어가다가 16번 홀에서 두 번의 퍼트를 하며 보기를 기록했어요. 아쉬움이 컸지만 17번 홀을 파로 지킨 뒤 18번 홀 파5에서 약 13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승기를 굳힐 수 있었어요.

이예원



▶ 2024시즌을 준비하며 가장 도전적이었던 변화는? 이번 시즌에는 스윙보다는 생각에 변화를 주었던 부분이 컸는데요. 경기 중 미스샷을 치고 나면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전반적으로 다운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다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멘탈에 변화를 줬어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생각에 변화를 주니 또 다른 다음 경기나 다른 대회를 준비할 때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남은 경기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샷의 경우 원래 가지고 있던 감을 잘 유지하지만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멘탈적인 부분에 변화를 주려고 노력했어요.

▶ 이번 시즌을 돌아보며 가장 도전적이었던 샷과 퍼트의 순간을 떠올린다면?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살롱파스컵' 파이널 라운드 17번 홀 파3의 티 샷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앞바람 140m 좌측 앞편인 상황에서 벅커 뒤에 핀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원래라면 우측으로 공략해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6번 아이언으로 핀을 바로 보고 공략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결과는 벅커로 빠졌고 3위로 마무리했지만 그래도 새롭게 도전했던 것에 후회는 없어요. 다음으로 '2024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파이널 라운드 16번 홀 파3에서 파파트 상황이었는데요. 티 샷 실수가 나온 후 어프로치샷에서도 실수가 이어졌어요. 6m 내리막 슬라이스 라이 퍼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과감하게 퍼트를 했어요. 이 퍼트를 성공시킨 덕분에 2등 선수와의 타수 차이를 유지할 수 있었고 시즌 2승을 거둘 수 있었어요. 과감한 퍼트 후에 얻은 우승이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

KLPGA, _____ 도전의 기록들

이번 2024시즌 놓쳐서는 안 되는 선수들의 놀라운 도전과 열정의 승부를 기록해보았다. 한계를 넘는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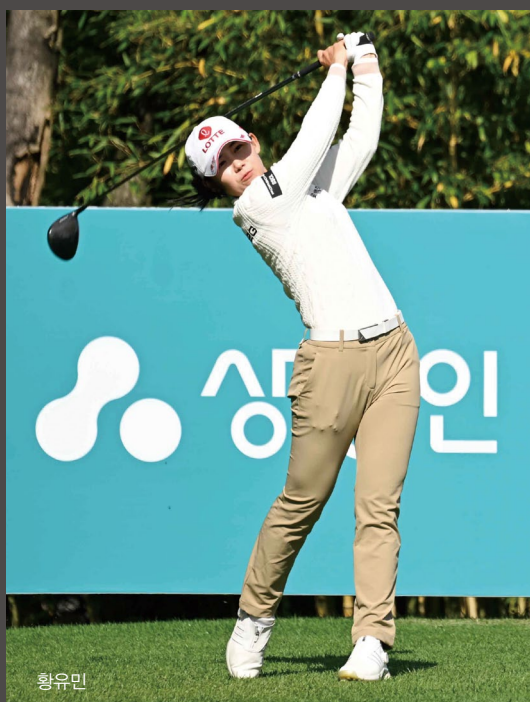
※ '상상인 · 한경 와우넷 오픈 2024' 종료 기준



박민지

동일 대회 4연패 박민지 새 역사

박민지는 KLPGA투어 최초로 동일 대회 4연패라는 새로운 기록을 썼다.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에서 최종 합계 13언더파 203타로 와이 어투와이어 우승을 달성한 박민지는 동일 대회 최다 우승(연속 우승 포함) 부문에서도 1990 · 92 · 94 · 96년 KLPGA 선수권 챔피언 고우순(60)과 나란히 공동 1위로 올라섰다. 2017년 KLPGA투어에 데뷔한 이후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1승 이상을 달성하며 8년 연속 우승이라는 대단한 기록도 써 내려가고 있다. 박민지는 이번 우승을 통해 통산 20승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과연 새로운 기록을 추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지금까지 동일 대회 3연속 우승을 했던 선수는 고(故) 구옥희, 강수연, 박세리, 김해림 4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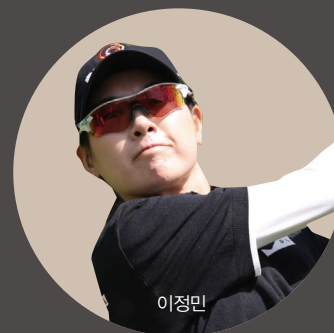
황유민

최다 10억 상금 돌파 4명의 선수

KLPGA투어 사상 최초로 한 시즌에 상금 10억 원을 넘긴 선수가 4명이나 등장했다. 과연 이번 시즌 역대 최고액 상금왕이 탄생할 것인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KLPGA투어 상금 순위를 보면 윤이나가 11억6744만4286원으로 1위를 기록하고, 박현경은 11억275만6085원으로 2위, 3위 박지영은 10억7897만5444원으로 3위를, 4위 황유민은 10억1854만2290원을 기록했다. 지난 9월 29일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에서 끝난 KLPGA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 윤이라는 단독 2위, 박현경이 공동 5위를 기록하면서 시즌 상금 10억 원을 나란히 돌파했다. 황유민은 이번 '동부건설 · 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에서 단독 12위를 기록하며 상금 10억 원 클럽에 이름을 처음 올렸다. 우승이 많지는 않지만 꾸준한 상위권에 오르며 상금을 차곡차곡 쌓은 덕분이다. 투어 사상 시즌 상금 10억 원을 처음 기록한 선수는 김효주다. 김효주가 10억 원 클럽에 가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10개 시즌 동안 총 10명의 선수가 10억 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지금까지 단일 시즌 최고의 상금액은 2021년 박민지로 6승을 기록하며 역대 한 시즌 상금 최고액인 15억2137만4313원을 찍은 적이 있다.

RECORD OF
CHALLEN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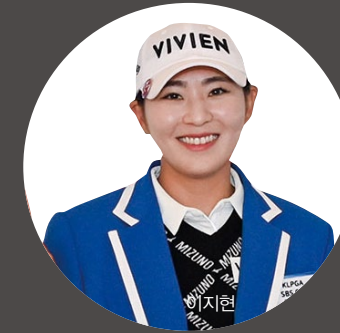
주요 경신 기록 돌아보기



이정민

정규투어

KLPGA투어 15년 차 이정민이 KLPGA투어 2024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크리스토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 최종라운드에서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과 출신원, 역대 72홀 대회 최소타 타이 기록, KLPGA 챔피언십 최소타 우승까지 잊지 못할 대회를 만들었다. 이번 대회에서 최종합계 23언더파 265타를 기록한 이정민은 전예성을 4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정민이 세운 이번 기록은 KLPGA투어 72홀 최소타 타이 기록이다. 기존의 기록은 김하늘과 유해란이 작성한 23언더파 265타였는데 이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게 되었다. 이번 우승으로 이정민은 11번째 KLPGA투어 우승을 차지했다.



이지현

드림투어

이지현3가 드림투어 역대 최소타로 우승을 차지하며 시즌 2승을 차지했다. 이지현3은 이지스카이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SBS골프 드림투어 with 이지스카이CC 18차전'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지현3이 이번 대회에서 기록한 17언더파 125타는 타수 기준 역대 드림투어 최소타이다. 이전까지 기록은 김승연, 정지민, 박아름이 기록한 16언더파 128타였다. 3타 차를 경신한 새로운 기록이 쓰여졌다. KLPGA투어에 동명이인이 많아 이지현3이라고 등록된 이지현은 지난 7월 이지스카이 컨트리클럽 드림투어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손에 쥐었다.



홍진주

챔피언스투어

홍진주는 KLPGA 챔피언스투어 18홀 최소타 기록을 경신하며 3개 대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이지스카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2024 SBS골프 챔피언스 투어 with 이지스카이CC 3차전'에서 이글 1개, 버디 9개, 보기 1개로 10타를 몰아쳐 최혜정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홍진주가 기록한 10언더파 62타는 KLPGA투어 18홀 최저타 기록이다. 종전의 기록은 지난 2018년 KLPGA 2018 '좋은데이-모리턴 챔피언스 오픈 5차전' 최종라운드에서 유재희가 기록한 9언더파였다. ◆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가겠다

KLPGA 이영미 대표

KLPGA투어는 이제 세계 3대 투어로
꼽힐 만큼 성장을 계속해왔다. 이렇게
한국 여자골프가 성장한 데에는
무엇보다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이하
KLPGA) 경영진의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KLPGA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긴장감을 갖고 진정성 있게
나아가겠다는 KLPGA 이영미 대표를
만났다. 글 · 유희경 | 사진 · 이재철

Never Settling for the Present, Always Moving Forward

LEE YOUNG ME, CEO OF KLPGA

KLPGA투어는 1978년 처음 KPGA에서 만들어졌던 ‘여성부 투어’에서 1988년 독립 후 성장을 거듭하며 이제 세계 3대 투어로 자리 잡았다. 1978년 1개였던 대회는 2024시즌 정규투어뿐 아니라 드림투어, 점프투어, 챔피언스투어까지 총 76개 대회로 늘었다. 상금 역시 1989년 처음 1억을 넘기고 2012년에는 100억을 돌파한 후 올해는 361억 원에 이른다.

흔히 사람들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결과만 얘기할 뿐 그 과정이나 뒤에 어떤 것들이 뒷받침되고 있었는지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정상에 오른 골퍼와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위상은 회자되지만, 그 뒤에서 그림자로 밀거름이 되었던 존재들은 관심 밖이다.

무엇이든 활짝 핀 나무나 꽃의 아래에는 뿌리가 있는 법. KLPGA 이영미 대표 역시 화려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한국여자프로골프의 발전을 위해 뿌리처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인물이다.

한국 여자골프 발전 위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2012년부터 KLPGA 이사로 협회에서 업무를 시작한 이 대표는 2016년부터 협회 부회장으로 행정 실무를 쌓았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KLPGA 공동대표를 거쳐 2023년 신임 대표로 선임됐다. 10년 넘게 협회에서 일한 그는 누구보다 투어에 애정을 쏟으며 무슨 일이든 힘 있게 추진해왔다. 그래서인지 이 대표를 만나면 60대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진다.

“제가 나이가 많은데, 만나는 분들이 부담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어린 선수들도 많고, 스폰서 분들도 저보다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이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또 선수 출신이다 보니 ‘파이트’ 정신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표는 선수로서의 이력도 화려하다. 1985년 KLPGA 정회원으로 입회해 정규투어에서 3승을 비롯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에서 8승, KLPGA 챔피언스투어에서 9승을 수확하는 등 개인 통산 20승을 기록했다. 이 대표가 처음 골프를 시작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다. 등하굣길에 친구 아버지께서 운영하는 골프 연습장이 있었는데, 우연히 골프 스윙을 따라 하다 눈에 띄어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제가 스윙을 곧잘 따라 했던 것 같아요. 연습장 하시던 친구 아버지께서 저에게 프로를 한 번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셨죠. 프로가 되려면 골프를 정식으로 배우고 연습을 해야 하는데, 당시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때라

The KLPGA Tour began in 1978 as the “Women’s Division” under the KPGA. It became independent in 1988, growing into one of the world’s top three tours. In its early years, the tour consisted of just one tournament. By the 2024 season, it has expanded to 73 events, spanning the KLPGA regular tour, Dream Tour, Jump Tour, and Champions Tour. Prize money has also skyrocketed from surpassing the 1 billion KRW mark in 1989, to 10 billion KRW in 2012, and reaching a record 34.7 billion KRW this year.

While the success of Korean women’s golf is celebrated, the behind-the-scenes efforts that made this growth possible are often overlooked. Just as thriving trees need strong roots, so too does Korean women’s golf need a stable foundation. At the core of this foundation is Lee Young Me, the CEO of the Korea Ladies Professional Golf Tour (KLPGA). Although her work often goes unnoticed, she has become a vital part of Korean women’s golf development, firmly supporting it from the ground up.

Speaking Hard Truths for the Future of Korean Women’s Golf

Lee Young Me began her journey with the KLPGA in 2012 as a board director, later serving as vice president in 2016. From 2020 to 2022, she co-chaired KLPGA before being appointed CEO in 2023. With more than a decade of experience, Lee’s passion for the tour has been evident in every initiative she’s undertaken. Meeting her, it’s hard to believe she’s in her 60s her energy is infectious.

“At my age, I don’t want anyone to feel uncomfortable around me. Many of the players are young, and most sponsors are younger than I am. So I make an effort to meet everyone with positivity and enthusiasm. I think being a former player helps me keep that ‘fighting spirit,’” she said with a smile.

Lee’s career as a player is just as impressive. She became a KLPGA member in 1985, earning three wins on the KLPGA Tour, eight on the JLPGA Tour, and nine on the KLPGA Champions Tour, totaling 20 career victories.

Her introduction to golf came during her second year of high school. On her way to and from school, she would stop by a friend’s father’s driving range. One day, she imitated a golf swing, catching the attention

of the owner.

"I guess I did a pretty good job copying the swing. My friend's father suggested I consider becoming a professional. But to do that, I needed formal lessons and practice, which we couldn't afford at the time. So, I spent two years working at the driving range without telling my family, learning and playing golf on the side."

Even with natural talent, passing the pro test didn't come easy it took her eight attempts. "Back in the 1980s, golf clubs cost about 400,000 KRW, a hefty sum. My mother saved up and bought me a set, but every time I failed the test, I felt guilty and more determined. I kept trying, working part-time at Plaza CC (formerly Myungseong CC), and finally earned my pro card in 1985."

With limited opportunities in Korea only two or three women's tournaments annually many players, including Lee, moved to Japan to compete on the JLPGA Tour. In 1987, Lee joined the JLPGA, securing her first victory in 1989 at the non-official Given Ladies event. She went on to claim eight titles on the JLPGA Tour, becoming a prominent Korean golfer abroad.

"I helped not only Korean players but also other international players on the JLPGA Tour, often acting as a translator. Eventually, the JLPGA asked me to serve as the head of the foreign players' committee. I communicated their concerns to the tour and helped them understand the association's policies."

Lee naturally became a central figure among Korean players on the JLPGA Tour, always fostering a deep connection to Korean women's golf. Her passion and candid feedback didn't go unnoticed, leading the KLPGA to invite her to join as a board member. Drawing from her experience abroad, she took on the challenge, eventually rising to her current leadership role.

Preparing for the Future: Never Resting on Success
KLPGT oversees all levels of the KLPGA, from the regular tour to the Dream, Jump, and Champions Tours. This makes Lee's schedule packed from week to week.

"No matter how busy I am, I need to be present at tournaments to ensure everything runs smoothly. When I attend events, sponsors and journalists often say things like, 'You're here again today?' or 'Weren't you at a different event yesterday?' But I know what's going on. Just making an appearance isn't enough you have to engage and communicate with everyone", she explained.

Lee works tirelessly to attract new tournaments and grow the tour's scale, seeing value in every event that offers opportunities to the players. She's not shy about reaching out to sponsors, knowing that even asking for support is part of the job. "The moment you become complacent, you fall behind. The world changes rapidly, and we must



2년 동안 집에 말을 안 하고 연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골프를 쳤어요." 배운 적도 없는 스윙을 곧잘 따라 할 정도로 골프에 재능이 있었지만 프로 테스트는 8번 만에 통과할 수 있었다. "1980년대 당시 클럽 가격이 40만 원 정도로 비쌌어요. 근데 어머니가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클럽을 사주셨는데, 자꾸 프로 테스트에서 떨어지니 어머니께 죄송하기도 하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자CC(구 명성C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속 도전해 1985년에 프로 자격증을 땀죠."

1980년대 국내는 여자 대회가 많아야 2~3개 정도였던 때라 일본 JLPGA투어로 넘어가 활동하는 프로들이 많았다. 이 대표 역시 1987년 JLPGA투어에 입성해 1989년 비공식 대회였던 '기븐 레이디스'에서 첫 우승컵을 안았다. 이후 JLPGA투어에서 8승을 거두며 한국 선수를 대표하는 한 명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투어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수뿐 아니라 외국 선수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통역도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JLPGA 협회에서 외국인 선수분과 위원장을 맡기도 했죠. 외국인 선수들이 불편하거나 차별받는 부분이 있으면 협회에 얘기하고, 또 협회의 의견을 선수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도 시키고요."

이 대표는 자연스럽게 JLPGA투어 한국 선수들 사이에서 구심점 역할을 했다. 그렇게 몸은 비록 일본투어에서 뛰어도 언제나 한국 여자골프에 대한 애정이 컸다. 한국 여자골프가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 협회를 향해 애정 어린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애정과 소신 있는 발언 때문인지 KLPGA에서 일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고, JLPGA투어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이사직을 맡았다 지금의 대표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이다.

스폰서와 만들어가는 한국여자골프의 역사

KLPGT는 KLPGA 정규투어부터 드림투어, 점프투어, 챔피언스투어까지 모두 관장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이 대표의 일주일은 쉴 새 없이 돌아간다.

"아무리 힘들어도 매주 대회장에 나가 문제는 없는지 체크해야 해요. 대회장에

있으면, 스폰서 관계자분들이나 기자분들이 '매일 나오시네요, 오늘도 나오셨네요, 어제는 어디 다른 곳에 가셨었나봐요' 하면서 인사를 해요. 모를 것 같지만 다 압니다.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잠깐 얼굴만 비추는 것도 안 돼요.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을 해야 하죠."

이 대표는 대회를 하나라도 더 유지하고, 규모를 조금이라도 더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후배 선수들이 많은 대회에 참가하고 KLPGT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면, 스폰서를 찾아다니며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고 한다.

"잘나갈 때일수록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더 대비해야 하죠. 시대에 뒤떨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시대는 빠르게 변하는데 협회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아이디어도 많아야 해요. 선수가 경기하다 볼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갖고 있던 기술을 꺼내 쓰잖아요. 기술이 많고 내공이 깊은 선수가 잘되듯 협회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주최하는 대회의 스폰서라도 협회가 이렇게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드려야 합니다. 때론 영상까지 만들어 보여드리죠. 그냥 말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매년 똑같은 매뉴얼로 하면 스폰서십이 이어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대회 수를 늘리고 높은 상금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투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스폰서에 대한 고마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주면 좋겠습니다. 협회에서 열 마디 하는 것보다 선수들의 한 마디가 더 영향력이 큼니다."

또한 이 대표가 대회의 스폰서를 유지하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본인뿐 아니라 협회 직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다. 바로 '긴장감'이다. 긴장감의 끈을 놓는 순간 바로 실수가 나오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긴장을 하면 눈빛이 다르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죠. 협회에는 제 것이 없습니다. 잠깐 자리를 맡아서 앉아 있는 것뿐이죠. 앉아 있는 동안은 긴장감을 풀지 말아야죠. 그리고 언젠가 떠나더라도 KLPGT가 더 잘 돌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싶습니다."

스폰서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임기를 다할 때까지 진정성있게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이 대표. 그의 진심에 KLPGT와 스폰서들이 만들어 갈 한국여자골프의 밝은 미래가 보인다. ◆



keep up. Just as a skilled golfer relies on a variety of shots to handle tough situations, the association needs a wealth of ideas to thrive. Every year, I show sponsors what the association has been working on, sometimes even producing videos to demonstrate our progress. A simple thank-you and the same old routine won't sustain sponsorships we have to keep improving."

Lee also stress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from the players in maintaining sponsorships and growing prize pools. "It makes a huge difference when players express their gratitude to sponsors. One word from a player can carry more weight than anything the association says."

Le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taying sharp, not just for herself but for the entire association. "The moment you let your guard down, mistakes happen. In this role, I'm just a temporary custodian. While I'm here, I want to leave behind a structure that ensures the KLPGT runs smoothly even after I'm gone."

With unwavering dedication, Lee Young Me shows no signs of slowing down, determined to guide KLPGT toward an even brighter future. Her words reflect a deep commitment to progress, ensuring the tour continues to thrive in the years to come. ◆

THE HISTORICAL

2011-2019

TIMELINE

2018년 KLPGA 4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많은 성장을 이룬 시기였다. 뛰어난 기량을 갖춘 한국 선수들이 일본과 미국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KLPGA가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매거진과 SNS 등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갔다.

2012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유소연은 LPGA투어 신인상을 수상했고 전미정은 JLPGA투어 상금왕, 박인비는 LPGA투어 상금왕에 올랐다. 국내 투어에 복귀한 박세리는 오랜 기다림 끝에 KLPGA투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KDB대우증권 클래식 2012'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10년 만에 우승의 쾌거를 이루었다. 이로써 박세리는 KLPGA투어 통산 우승 8승을 기록할 수 있었다.



2014

KLPGA의 규모가 확장된 한 해였다. 155억 원이 걸린 역대 최대 규모의 투어를 개최했다. 이전 해인 2013년 총상금 규모 131억 원에서 155억 원으로 24억 원가량 증가했다. 정규투어는 22개 대회에서 27개 대회로, 드림투어는 15개 대회에서 20개 대회로 늘어났다. 해를 거듭할수록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의 중흥기는 더해져만 갔다. 김효주는 KLPGA 역대 최초로 단일 시즌 상금액 12억 원을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2015

골프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쓴 '골프 여제' 박인비의 해였다. 2015년 역대 LPGA 일곱 번째이자 아시아인 최초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박인비는 2008년, 2013년에 US여자오픈에서 우승했고, 2013년 크래프트나비스코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올랐으며 2013~15년에는 웨그먼스LPGA챔피언십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으며 메이저대회에서 6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5개 메이저대회 가운데 4개 대회에서 우승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이루게 된 것이다. 2015년 1월에는 안선주와 함께 KLPGA투어 영구시드권을 획득했다.



2016

KLPGA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팬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KLPGA의 노력도 계속되었다. KLPGA 공식 블로그와 포스트, 페이스북 등 각종 SNS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며 팬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팬 매거진 <KLPGA premium>을 창간했다. 해외에서도 한국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KLPGA 경기 중계는 미주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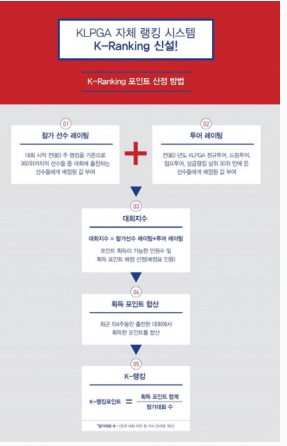


2018

KLPGA의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였다. KLPGA에서는 40주년을 맞아 기념 책자를 발간하고 창립 40주년 기념 사진전 개최, 컨테이너 버스 운영 등의 행사를 통해 40주년을 축하했다. 5월 26일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열린 행사에서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KLPGA'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비전 2028'을 선포했다. 2021년에는 '아시아 골프 허브'로, 2025년에는 '세계 2대 투어'로, 10년 후인 2028년에는 '글로벌 넘버원 투어'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2019

KLPGA투어의 자체 랭킹 시스템인 K-랭킹을 오픈했다. K-랭킹은 각 투어의 새로운 흥미 요소와 관련 포인트를 제공하며 선수 기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우수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 구축한 독자적인 랭킹 시스템이다. KLPGA 상금 랭킹과 대상 포인트가 해당 시즌 성적으로만 순위를 부여한다면 K-랭킹은 지난 시즌의 연속성을 가지고 참가 대회 수가 포인트에 반영되어 꾸준한 대회 참가와 누적 성적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랭킹을 보여준다. ◆



KLPGA 우승을 향한 도전의 무대

BEST GOLF COURSES

우승을 향한 선수들의 열정과 구슬땀이 서린 곳, 바로 경기가 열리는 골프장이다. 골프장의 코스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수들의 플레이를 살펴보면 골프를 보는 즐거움은 한층 더 커진다.



‘상상인·환경 와우넷 오픈 2024’ 개최

사우스스프링스CC

사우스스프링스CC는 세계적인 골프 코스 설계자인 짐 파지오가 설계한 명문 구장이다. 미국의 100대 골프 코스 설계자로 꼽히는 짐 파지오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설계를 맡아 화제가 되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파지오의 철학을 반영한 골프 코스 설계가 돋보인다. 이천 지역의 특징인 완만한 자연 지형을 활용해 자연형 습지와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짜임새 있는 코스 디자인과 다양한 해저드가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선수들에게는 전략적인 코스 공략을 해야 하는 섬세한 플레이가 요구된다.

골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파지오를 가리켜 ‘심술궂다’고 표현할 정도로 어려운 코스 설계로 악명이 높다. 난도가 중상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 타수가 잘 나오기가 쉽지 않다. 공식적으로 총 108개의 벙커가 있는데 일명 ‘108번뇌’를 느끼게 하는 다양한 벙커와 도전적인 홀들은 선수들에게 도전정신을 불어넣어 준다. 시원한 티 샷보다는 정확한 샷을 구사하며 전략적으로 벙커를 피해 좋은 자리에 갖다놓을 수 있는 현명함이 요구된다. 그린 언듈레이션도 상당히 심해 정확한 지점에 공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퍼트에서 고생을 할 수 있다. 그린 스피드도 2.9m로 빠른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하나 되는 아름다운 코스 정경은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색색의 단풍이 구름의 높낮이에 따라 층을 이루며 늘어서 있고, 전통 한옥 양식으로 건축된 클럽하우스 옆 한옥 연회장 ‘파지오 하우스’도 유명하다. 전체적인 코스는 레이크 코스(9홀)와 마운틴 코스(9홀)로 나뉜다. 레이크 코스에서 8번 홀은 특히 사우스스프링스CC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곳이다. 인공폭포의 웅장함과 함께 계절감을 느끼게 하는 나무들과 그린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연을 한눈에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8번 홀의 아일랜드 그린 옆 경사면에 놓인 서른 개 이상의 석상 또한 이색적인 모습을 연출한다. 코스를 따라 배치된 7개의 호수는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마운틴 코스는 천연 지형에 자연을 그대로 포용한 듯 산과 나무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그러나 전장이 길고 오르막 상향 그린이 많아 레이크 코스보다 어렵다는 평이 많다.



‘제24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개최

블루헤런CC

블루헤런CC는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명문 골프클럽이다. 지난 1992년 한솔 제지에서 ‘클럽 700’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이후 2002년 하이트진로에서 인수해 레노베이션을 거쳐 지금의 블루헤런CC가 탄생했다. 골프장이 위치한 여주의 상징이 백로이기 때문에 골프장 이름 역시 ‘백로(heron)’에서 따왔다. 백로 가운데서도 푸른 벼슬이 있는 것을 우두머리인 왕백로라고 하는데 골프장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코스는 40년 넘게 골프장 설계를 도맡아온 유명 코스 설계자 데이비드 레인 빌이 맡았다. 그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린 코스 설계로 유명하다. 서 코스는 한국적인 특성을 살려 전략적인 공략이 필요하다면 동 코스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필요로 한다. 코스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꽃들이 계절감을 가득 느끼게 해주며 서 코스 9번 홀은 낙락장송 소나무 숲길이 길게 이어져 있고 6번 홀은 시그니처 홀로 꼽힌다. 메타세쿼이아가 양옆으로 길게 늘어서 있는데 티잉그라운드에서 보거나 세컨샷 지점에서 봐도 아름다운 풍경을 안겨준다. 18홀 코스는 어렵기로 유명하다. 선수들은 전장이 길어지고 하늘을 향해 쭉 뻗은 금강송의 나뭇가지를 피해 전략적인 코스 공략이 필요하다. 다른 골프장에 비해 4~6타 정도 스코어가 덜 나오는 난코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코스 레이아웃 자체도 까다로운데 페어웨이드도 좁고 러프도 깊어 선수들이 경기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제24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역시 어려운 코스 세팅으로 난도가 높아 최종라운드 결과 107명의 선수 가운데 김수지만이 유일하게 언더파를 기록했을 정도다. 블루헤런CC의 코스는 어렵지만 클럽하우스에 전시된 예술 작품은 놓칠 수 없다. 클럽하우스 앞 정원에 있는 새 모양의 조각상은 ‘남미의 피카소’로 불리는 콜롬비아 출신 조각가 페르난도 보테로의 ‘버디버드’라는 작품으로 인증샷을 찍을 만하다.



‘SK실더스·SK텔레콤 챔피언십 2024’ 개최
라비에벨CC

라비에벨은 프랑스어로 ‘인생은 아름답다’는 의미다. 코오롱그룹이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에 조성한 골프장이다. 탁월한 자연경관과 철저하게 최상위 수준으로 관리되는 그린과 페어웨이로 명성이 높은 곳이다. 규모 또한 웅장한데 멀리서 보면 전통 한옥이 늘어선 모습이 멋스러움을 더한다. 한옥으로 지어진 클럽하우스는 기와만 한옥 분위기를 낸 것이 아니라 대들보와 용마루, 처마까지 제대로 갖춘 한옥의 모습 그대로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클럽하우스를 구경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코스 탐방에 나설 차례다. 라비에벨CC의 코스 난도는 높은 편이다. 곳곳에 위험 요소가 많아 섬세한 플레이가 요구되며 아름다운 경관도 플레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올드 코스는 고풍스러운 한옥 클럽하우스와 전통적인 조경이 어우러져 더욱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라비에벨CC의 올드 코스는 총 18홀로 구성되어 있다. 각 홀마다 특별한 도전 요소가 있어 선수들에게 긴장감을 안겨준다. 5번 홀은 페어웨이 양 끝에 도전적인 해저드가 있어 중앙에 볼이 위치하도록 정확한 샷을 요구하고, 그린 스피드 역시 매우 빨라 쉽지 않은 홀이다. 라비에벨CC를 대표하는 홀인 파5, 15번 홀은 페어웨이 왼쪽으로 거대하게 펼쳐진 다랑논이 장관을 이루는 곳이다. 워터해저드와 비치 bunker가 나란히 어우러진 파4, 18번 홀도 아름답기로 유명하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내리막 경사의 2단 그린의 마지막에 시련을 안겨준다.

둔스 코스는 페어웨이와 러프만 있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스코틀랜드풍의 골프 코스다. 코스 규모는 파72, 전장이 735야드로 상당히 길고 넓다. 코스는 정통 스코틀랜드 필드의 특징을 따랐지만 클럽하우스는 모던함을 느끼게 해준다. 얼핏 보면 산악 지형이 아니라 쉬워 보이지만 티오프를 하는 순간 도전 욕구를 느끼며 홀마다 재미와 새로움을 전해주는 요소가 가득하다. ◆



골프장 주변 가이드

경기가 끝나고 난 뒤 지친 몸과 배를 채워줄 맛집과 근처 볼거리까지 놓칠 수 없다.



주소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2709번길 128
전화번호 031-644-2682

설봉공원

설봉공원 내에 있는 설봉호는 이천시의 관광 명소로 꼽히는 곳이다. 주말이 되면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많은 곳으로 확 트인 설봉호수 둘레길을 돌며 곳곳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인증샷을 찍을 수도 있다. 호수에 설치된 인공 분수의 시원한 물줄기는 이곳만의 자랑이다. 밤이 되면 조명이 켜지는데 야간 풍경도 낭만적이다. 산 곳곳에는 도자기 관련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이천의 유명 도예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도자기 예술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다. 저수지를 따라 만들어진 순환도로는 산책 코스로 이용된다. 계절을 느끼게 하는 울긋불긋 물든 산책길을 걸으며 힐링을 하기에 손색없다. 공원 내에는 산책로 외에도 자전거도로와 놀이터, 운동 시설 등이 마련되어 다양한 즐길거리를 갖췄다.

사우스스프링스CC 주변

쌀 베이커리카페 흥만소

쌀의 고장 이천답게 쌀을 테마로 하는 카페다. 실제 논도 꾸며져 있고 경운기와 넓은 야외 공간도 갖추고 있어 볼거리가 풍성하다. 이천 쌀을 사용해 만든 쌀크림빵은 밀가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밥공기 5분의 1에 해당되는 쌀알이 빵 안에 들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쌀크림빵은 안에 들어가는 크림 맛에 따라 쌀, 밤, 팔, 옥수수, 흑임자, 인절미, 초코, 말차 등 여덟 가지 맛으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쌀크림빵 외에도 독특한 메뉴가 많다. 이천의 임금님쌀로 만든 찐득한 베이글과 추억의 뒷박을 형상화한 뒷박 모양의 쌀케이크, 쌀식혜, 쌀크림라떼까지 쌀로 만든 다양한 메뉴가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주소 경기 이천시 향교로 3
전화번호 0507-1316-8077



익산CC 주변

미륵사지

미륵사지는 익산시 금마면 해발고도 430m 미륵산 아래 넓은 평지에 펼쳐져 있는데 동양 최대의 절터로 평가받는다. 백제 사찰로는 독특하게 <삼국유사>에 창건 설화가 전해진다. 무왕 부부가 사자사라는 절에 가던 중 용화산 밑의 연못에서 미륵삼존이 나타났는데, 왕비의 부탁에 따라 이 연못을 메우고 세 곳에 탑과 금당, 화랑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백제시대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미륵사지석탑, 미륵사지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 왕궁5층석탑 사리장엄구를 한 장소에서 만날 수 있어 더욱 귀한 기회다. 역사적인 석탑 구경도 의미가 있지만 가을날 산책 겸 둘러보기에도 좋다. 미륵사지 바로 옆에는 국립박물관으로는 전북에서 두 번째인 국립익산박물관이 위치해 있다. 미륵사지의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건물의 높이를 낮춰 미륵사지 유적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어졌다. 익산박물관에서는 미륵사지 석탑에서 나온 사리장엄구 중 사리내화가 1호 전시물로 전시되어 있다.

주소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2-7
전화번호 063-830-0900



영빈화관

익산에는 노포가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영빈화관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다. 1990년 11월에 개업했으니 올해로 30년 넘게 운영되는 이곳은 '백년가게'로 지정되기도 했다. 인기 비결은 20여 가지 신선한 화와 갖가지 해산물, 반찬 등이 나오는 '회정식'이다. 한 상 가득 차려진 음식을 보면 놀랄 정도다. 부침개와 생선구이, 육전, 번데기, 초밥과 회, 매운탕, 묵시발, 찐 옥수수 등 얼핏 봐도 10가지가 넘는 음식이 차려진다. 코스처럼 나오는 음식의 가격 역시 서울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 영빈화관이 자리한 골목은 한때 화관골목이라 불리며 여러 화관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던 곳이었다고 한다. 이제 영빈화관만이 옛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식과 일식 등 다양한 음식이 고루 나오는 화관문화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추천한다.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3길 38
전화번호 063-855-0836



블루헤런CC 주변

신록사

천년 고찰 신록사는 경관이 아름다운 절로 많은 유물과 유적을 간직하고 있다. 신라시대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설이 있고 고려 우왕 2년에 나옹선사가 입적하면서 유명한 절이 되었다. 여주를 대표하는 신록사는 국내 사찰로는 보기 드물게 강변에 위치해 남한강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신록사 주변에는 인공조명이 적어 고즈넉한 정자와 남한강 위에 보름달이 뚜렷하게 보여 달맞이 명소로도 유명하다. 남한강 절벽 위 누각인 강월헌에서는 이름처럼 보름달이 떠오르면 강물의 고즈넉한 풍경이 신비롭게 펼쳐진다. 매년 '슈퍼문'이 떴을 때 강월헌은 가장 달이 잘 보이는 명소로 언급된다. 가을인 만큼 수령 660년이 된 은행나무도 꼭 봐야 한다. 신록사 은행나무는 660년 전 고려 말 나옹선사가 심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관세음보살이 나타난 듯한 모습이라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주소 경기 여주시 신록사길 73

전화번호 031-885-2505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 주변

더베이101

밤이 되면 화려한 마천루를 볼 수 있는 부산의 유명한 관광 명소다. 빼어난 야경과 부산을 상징하는 광안대교, 해운대해수욕장에 위치해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 해운대 시티 뷰를 바라보며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카페, 소품 숍 등이 모여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식사를 하면서 바라보는 우뚝 솟은 마린시티의 야경은 그 자체로 감동을 준다. 아름다운 해운대의 야경을 담을 수 있는 요트 투어도 가능하다. 더베이101에서 요트를 탑승하면 마린시티를 지나 APEC나루공원, 광안대교를 돌아보는 코스를 즐길 수 있다. 이왕이면 저녁 시간에 탑승하는 것을 추천한다. 노을이 지는 시간에는 화려한 도심과 바다의 낭만을 모두 만끽할 수 있다.

주소 부산 해운대구 동백로 52

전화번호 051-726-8888



천서리막국수 본점

메밀 면에 속이 시원해지는 동치미 국물을 담고 매콤한 양념장과 담백한 고기 고명을 올린 중독성 강한 막국수집이다.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막국수 맛집으로 등장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천서리에는 천서리막국수 외에도 막국수 식당이 많은데 천서리막국수는 고향이 북한인 선대 사장이 북한에서 많이 자라던 메밀을 활용한 막국수 식당을 내면서 입소문이 났고, 인근에 막국수 식당이 많아졌다고 한다. 취향에 따라 물막국수와 비빔막국수 두 가지 맛을 선택할 수 있다. 먹을 때마다 냉면과 달리 툭툭 끊어지는 구수하면서도 씹새로운 메밀의 맛이 매력적이다. 막국수 하나로 양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수육이나 만두도 주문 가능하다. 큼직한 사이즈의 만두는 속이 푸짐하게 들어가고 수육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입맛을 사로잡는다.

주소 경기 여주시 대신면 여양로 1974

전화번호 0507-1374-9803

안목

돼지국밥 일번지 부산에서 확실한 맛의 차별화를 꾀한 돼지국밥 식당이다. 돼지국밥 고유한 풍미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한국의 오묘한 다른 국물 음식을 떠올리게 한다. 돼지국밥은 부산의 대표 음식이지만 식당 입구에서부터 퍼지는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에 거부감을 느꼈던 이들도 이곳에서는 부담 없이 돼지국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가게 내부와 외부도 일반적인 노포 분위기와 달리 현대적이다. 국물 맛도 기름지지 않고 깔끔한 편이다. 대대기나 새우젓을 넣지 않고 '안목'만의 정갈한 맛을 그대로 즐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맛집 가이드 미쉐린에서 빙구르망으로 선정될 정도로 맛을 인정받았다. 순수 돼지뼈를 24시간 고아 만든 대표 메뉴 돼지국밥 외에도 삼겹수육과 맛보기수육, 돼지라면 등의 메뉴도 입맛을 돋운다. ◆

주소 부산 수영구 광남로22번길 3

전화번호 0507-1461-0523



골프장에서 즐기는 가을의 맛

천고마비의 계절, 골프장에서 가을 음식으로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보자.



엘리시안 제주, 트러플오일
전복 게우 크림파스타

골프장에 방문해 익숙한 한식 대신 제대로 된 양식으로 기분 전환을 해 보면 어떨까. 엘리시안 제주에서는 미식가들의 음식으로 알려진 트러플 오일을 활용한 파스타를 선보인다. 특히 이곳의 파스타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큼직한 전복이 통째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팬에 잘 구운 전복은 야들 야들한 식감이 매력적이면서도 부드럽고 고소한 크림소스의 맛과 환상적인 궁합을 이룬다. 더욱이 전복은 가을철 기운을 북돋우는 보양 음식의 대명사로도 잘 알려져 있어 건강을 챙기기에도 좋다.



서원밸리CC, 한방 소꼬리, 전복찜과
서원된장찌개

라운딩 전에 든든하게 속을 채우고 싶다면 영양 만점 소꼬리와 전복이 들어간 소꼬리, 전복찜이 제격이다. 짭조름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간장 양념 소스에 부드럽게 잘 익힌 소꼬리는 밥 한 공기를 톡톡 비워내게 한다. 여기에 전복과 달걀까지 고단백 식품이 가득 들어 있다. 소꼬리를 먹다가 좀 느끼해진다면 된장찌개로 마무리하면 된다. 시원하면서도 깔끔한 국물 맛이 일품이다. 된장찌개에는 골프장의 이름이 불을 만큼 자부심이 강하다. 서원밸리CC에서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여 마치 할머니의 음식처럼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블루헤런CC, 효종갱

효종갱이란 음식은 조선시대 해장 음식으로 배춧속, 콩나물, 표고버섯, 전복, 해삼 등을 넣어 끓여낸 음식이다. 블루헤런CC 대식당에서는 닭고기와 소갈비를 삶아 우려낸 국물에 여러 가지 한약재와 소갈비, 전복 등 귀한 식재료에 시원한 국물을 내는 콩나물을 넣고 푹 끓여 맑고 진한 국물의 효종갱을 완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청양고추를 이용해 약간의 칼칼함을 더해 개운한 국물 맛을 느낄 수 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따뜻한 국물로 몸을 데우고 밥과 함께 든든하게 먹고 싶다면 효종갱만 한 메뉴가 없을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메뉴라 더욱 매력적이다. ◆

위 대 한 승 리 를 향 한 위 대 한 여 정



WEMIX CHAMPIONSHIP 2024

2024.11.16 - 11.17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



주최/주관

WEMADE



주관 방송

SBS Golf

대회 공인

KLPGA

대회 티켓 구매는
위퍼블릭에서
확인해주세요!



HYDRATING SKINCARE FOR AUTUMN

끝나지 않을 것만 같
던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
고 가을이 찾아왔다. 뜨거운 자
외선으로부터 지친 피부가 이제 좀
숨을 쉬나 싶었는데 또 다른 복병이 찾
아온다. 바로 건조한 피부 고민이다.

가을에는 한낮에 강렬한 햇빛이 내리쬘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바람이 분다. 이렇게 건조한 환
경으로 인해 피부가 푸석해진 상태에서 큰 일교차에 적
응하지 못하면 피지선이 약해지면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유·수분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하루 종일 필드에서
경기를 해야 하는 선수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건조
한 상태에서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서 잡티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세수하고 난 뒤에 피
부가 심하게 땅기고 가려움증까지 동반된다면 피부 건
조증을 의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가을철 피부 보습을 유
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습이다. 보습 크림을 발라 피부에
충분히 흡수시킨다. 시중에 판매되는 보습제 성분은 혼
히 바셀린이나 미네랄 오일, 시어버터 등이 함유되어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성분들은 마치 하나의 기름
진 막처럼 피부를 보호해 피부 속 수분이 손실되는 것
을 막는다. 다음으로 함습제는 주변의 수분을 끌어와 피
부 수분감을 지켜주는 성분이다. 유연제 성분은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의 보습제가

가을은 건조한 날씨와 심한 일교차로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 때다. 본격적인 골프 시즌인 가을에는
피부 건조를 막아줄 수분 케어가 시급하다.



CLINIC INFORMATION

KLPGA 회원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연피부과의원

혜택 KLPGA 회원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할인 제공

- 피부 레이저, 미백, 탄력,

항노화치료 20% 할인

대표문의 02-415-3274

이용방법 예약 시 KLPGA 회원임을 밝힘

이 유연제에 해당한다. 보습제와 수분 화장품을 별개의
제품으로 오해하기 쉽다. 보습제 대부분이 수분 화장품
성분 가운데 글리세린, 히알루론산처럼 수분을 공급하
고 실리콘과 오일 성분 등이 수분 손실 방지를 도와주
는 이중 잠금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건조한 피부를 위
해 바르는 보습 화장품의 경우 수분 크림, 수분 밤, 수
분 로션 등 제형에 따라 이름만 다를 뿐, 같은 보습제라
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보습 크림은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수분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세라마이
드, 히알루론산 등의 성분이 감소하기 때문에 세안 후
에 충분한 양의 보습제를 발라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로션 형태보다는 크림 제형이 보습 유지력에 더 효과적
이다. 아침에 보습 제품을 발랐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찬 외부 공기에 장시간 노출되는 선수들의 경우 보습제
를 휴대하며 수시로 발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
보다 앞서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필수다. ◆

Add Wings to the Korean Stage

Pattaratt Rattanawan

Winning with Confidence and Focus

Victory is sweet for any athlete, but for Thailand’s Pattaratt Rattanawan, her latest win will be especially unforgettable. Pattaratt emerged victorious at the 2024 KLPGA International Qualifying Tournament (IQT), held at Phoenix Gold Golf & Country Club in Pattaya, Thailand. With five birdies on the final day, she clinched the title with a 15-under-par total of 273 strokes. Having participated in the IQT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Pattaratt admitted that she had not expected to win. “Many seasoned Thai pros encouraged me to try out for the IQT”,she explained, “I thought it would be a great opportunity to challenge myself. Although I didn’t expect much initially, as I prepared and practiced, I found myself wanting to achieve good results. Fortunately, my hard work paid off.” “I focused on every shot, and that focus added up to a great result”,she shared.



한국 무대 우승에 날개를 달다 빠따랏 랏따논

골프 선수가 국내 경기를 넘어 해외에서 도전하며 새로운 기록을 쌓아 올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태국의 빠따랏 랏따논은 프로 데뷔 2년 만에 ‘KLPGA 2024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자신감을 바탕으로 집중력 있는 경기 끝에 거머쥔 우승

우승은 누구에게나 기쁨이 되지만 빠따랏 랏따논은 특히 이번 시즌을 잊지 못하게 될 것 같다. 태국 출신의 빠따랏 랏따논은 태국 파타야에 위치한 피닉스골드골프 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2024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이하 IQT)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경기 마지막 날에만 5개의 버디를 기록하며 최종합계 15언더파 273타(71-68-17-67)로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었다. 올해 처음으로 IQT에 참여했던 만큼 우승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태국에서 활동했을 때 주변의 태국 프로 선배들로부터 IQT에 도전해보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다. 곰곰이 고민해보니 개인적으로도 좋은 도전의 기회가 될 것 같았다. 참가 신청을 한 후에 처음이지만 선수로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연습을 많이 하며 준비했고 다행히 연습한 것들이 빛을 발할 수 있었다. “매 샷마다 집중해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것들이 쌓여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라운드 1번 홀은 가장 기억에 남는 홀이다. 첫 홀에서 버디를 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음 홀들을 경기하며 자신 있게 플레이할 수 있었다. 빠따랏은 2023년부터 태국LPGA에서 활동하고 있다. 2024시즌 태국LPGA ‘NSDF 파타야 레이디스 챔피언십 2024’에서 공동 4위를 차지하고 지난 8월 2일 열린 ‘SAT 프라친 부리 레이디스 챔피언십 2024’에서 첫 우승을 차지하며 루키

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우승을 통해 태국인으로서 골프 강국인 한국 골프에 도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해요. 제가 한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많은 태국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5시즌을 위한 또 한 번의 도전

빠따랏은 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골프를 시작했다. 부모님이 가구사업을 하는데 하루는 골프장에 가구를 납품할 일이 생겼다. 부모님을 따라 그곳에 따라갔던 빠따랏은 골프에 매력을 느꼈고 부모님을 졸라 골프를 시작하게 되었다. 빠따랏의 어머니는 그길로 그 골프장의 프로님께 빠따랏의 골프 레슨을 부탁했고 그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골프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다. “제 장점은 경기를 할 때 집중력이 좋고 침착하며 결단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해요. 드라이버 샷이 곧게 나가는 편이고 7번 아이언 샷의 정확도도 좋은 편인데요. 다음 시즌을 위해서는 체력을 더 키우고 퍼트 연습에 매진할 생각이예요.” 이번 시즌 처음으로 IQT에 참가해 빠따랏은 우승과 함께 내년 시즌 정규투어 시드권까지 확보하게 되었다. 태국에서 일정을 정리하고 나면 당연히 KLPGA투어에 도전하고 싶은 바람이다. 내년 시즌을 위해 이제 열심히 준비하는 일만 남았다. 차근차근 연습을 하며 준비해 2025시즌에는 매 대회 컷 통과에 성공해 톱텐 플레이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 예정이다. ◆

The most memorable moment for Pattaratt came at the very first hole of the final round, where she made a birdie. “That first birdie gave me the confidence I needed. From there, I played boldly and stayed composed throughout.” Pattaratt has been making waves since joining the Thai LPGA Tour in 2023. Earlier in the 2024 season, she secured a joint 4th place finish at the NSDF Pattaya Ladies Championship and claimed her first professional title at the SAT Prachinburi Ladies Championship in August. “This win means a lot to me”,she said. “It gives me the chance to compete on the KLPGA Tour, which is a dream come true. I hope my performance here can inspire more Thai golfers to pursue global recognition.”

A New Challenge Awaits in the 2025 Season

Pattaratt’s love for golf began when she was just four years old. Her parents, who run a furniture business, once had to make a delivery to a golf course. Accompanying them that day, Pattaratt became captivated by the game and begged her parents to let her start playing. Her mother arranged lessons with a professional golfer at that same course, and from then on, Pattaratt’s journey in golf began. “My strengths lie in my focus, calmness, and decisiveness during matches”,she explained. “I also hit my driver straight and have solid accuracy with my 7-iron. However, for next season, I plan to work on building endurance and sharpening my putting skills.” With her IQT victory, Pattaratt not only took home the title but also secured a coveted spot on the KLPGA Tour for the 2025 season. “After wrapping up my schedule in Thailand, my main goal is to compete on the KLPGA Tour”,she revealed. “I’ll dedicate myself to thorough preparation, and my aim is to make the cut at every event next season. Ultimately, I want to finish as a top-ten player on the tour.” With her eyes set on new challenges and a promising future, Pattaratt Rattanawan is ready to make her mark on the KLPGA Tour and inspire a new wave of Thai golfers to take on the world. ◆

최혜정의 노하우

오래도록 건강하게 투어 생활 하는 법



지난 4월 'KLPGA 챔피언스투어 클래식 2024 1차전' 우승에 이어 5월에 열린 'KLPGA 챔피언스투어 클래식 2차전'에서도 우승하며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오랜 시간 투어 생활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골프라는 한 우물만 파지 않고 여러 가지 일에 도전해보고 다른 활동을 즐기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골프가 다른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고 잘할 수 있는 천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많은 대회에 참가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무엇인가요? 'KLPGA 챔피언스투어 클래식 2024 1차전' 최종일에 홍진주 선수와 연장전을 갔던 일이 기억에 남아요. 최종라운드 함께 12언더파 132타(64-68)로 최종라운드를 마치며 1번 홀에서 연장전을 벌였는데요. 4m 버디 퍼트가 성공하면서 홍진주 선수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2015년 은퇴했다가 다시 복귀한 뒤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더욱 뜻깊은 우승이 있었어요.

2024시즌 챔피언스투어에 도전한 뒤 8개 대회 가운데 4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을 차지하며 상금왕까지 되셨는데요. 챔피언스투어 첫 시즌 만에 성과가 대단합니다. '골프를 즐기자'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고 상금왕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물론 상금왕이 되면 좋겠지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에 부담감을 덜려고 노력했어요. 2위를 하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야겠다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너무 기쁘네요.



최혜정에게 2024시즌은 최고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챔피언스투어에서 한 시즌 4승을 거둔 것도 모자라 상금왕도 차지하고 역대 챔피언스투어 최스타 우승 기록까지 세운 것이다. 전성기 못지않은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최혜정. 그녀가 후배들에게 그동안의 노력이 무엇인지 아낌없이 알려준다고 한다.

2015년에 은퇴한 이후 오랜만에 챔피언스투어로 복귀했는데요. 그동안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2년 전부터 투어 생활을 다시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 몸과 마음가짐을 준비했는데요. 은퇴를 한 이후에도 골프를 쉬지는 않았어요. 연습량을 늘리기보다는 평소 생활 패턴을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KLPGA 챔피언스투어 클래식 2024 4차전'까지 우승하며 시즌 4승째를 달성했는데요. 최종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7개로 최종합계 17언더파 127타로 역대 챔피언스투어 최스타 우승 기록도 경신했어요. 이렇게 최고의 컨디션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경기를 치르며 시험 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코스에 완벽하게 적응한 덕분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투어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나만의 팁이 있다면요? '333법칙'이라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하자'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려고 해요. 과정보다 중요하지만 과정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몸과 마음의 건강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오랜 투어 생활로 인해 지치고 힘들어 하는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조언을 해준다면요? 단순히 '그냥 해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필드 밖에 있는 세상은 더 험난하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투어 안에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야 훗날 사회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뭐라도 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어요.

오랜 시간 선수 생활을 하며 지치거나 힘들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멘탈 관리법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 스스로를 더 많이 챙겨주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이제 막 투어를 시작하는 루키 선수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전내고 싶으세요?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배운다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한다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예요. 부담을 덜 가지고 경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적은 성적일 뿐 결과에 너무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열심히 자기 인생을 즐기며 골프로 인생을 배우고 사람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를 하며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특별히 어떤 한 부분을 의식하지는 않지만 내 골프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번 시즌 목표를 거의 다 이룬 것 같은데요. 새로운 목표가 있으신가요? 챔피언스투어 상금왕이 되면서 다음 시즌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정규투어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요. 정규투어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내며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어요. 2007시즌 우승을 차지했던 '제8회 하이트컵 여자프로골프챔피언십'과 2011시즌 우승했던 '제33회 메트라이프 · 한국경제 KLPGA 챔피언십'에는 역대 우승자로 다시 참가하고 싶네요. 선수로서 최종적인 목표는 오래도록 경기를 하며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KLPGA 프로들을 위한 은퇴 후 코칭 골프 스튜디오

우수한 실력으로 경기를 했던 선수라면 은퇴 후 자신만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싶은 바람이 있을 것이다. 골프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퍼팅 코치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이승현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선수 시절부터 부지런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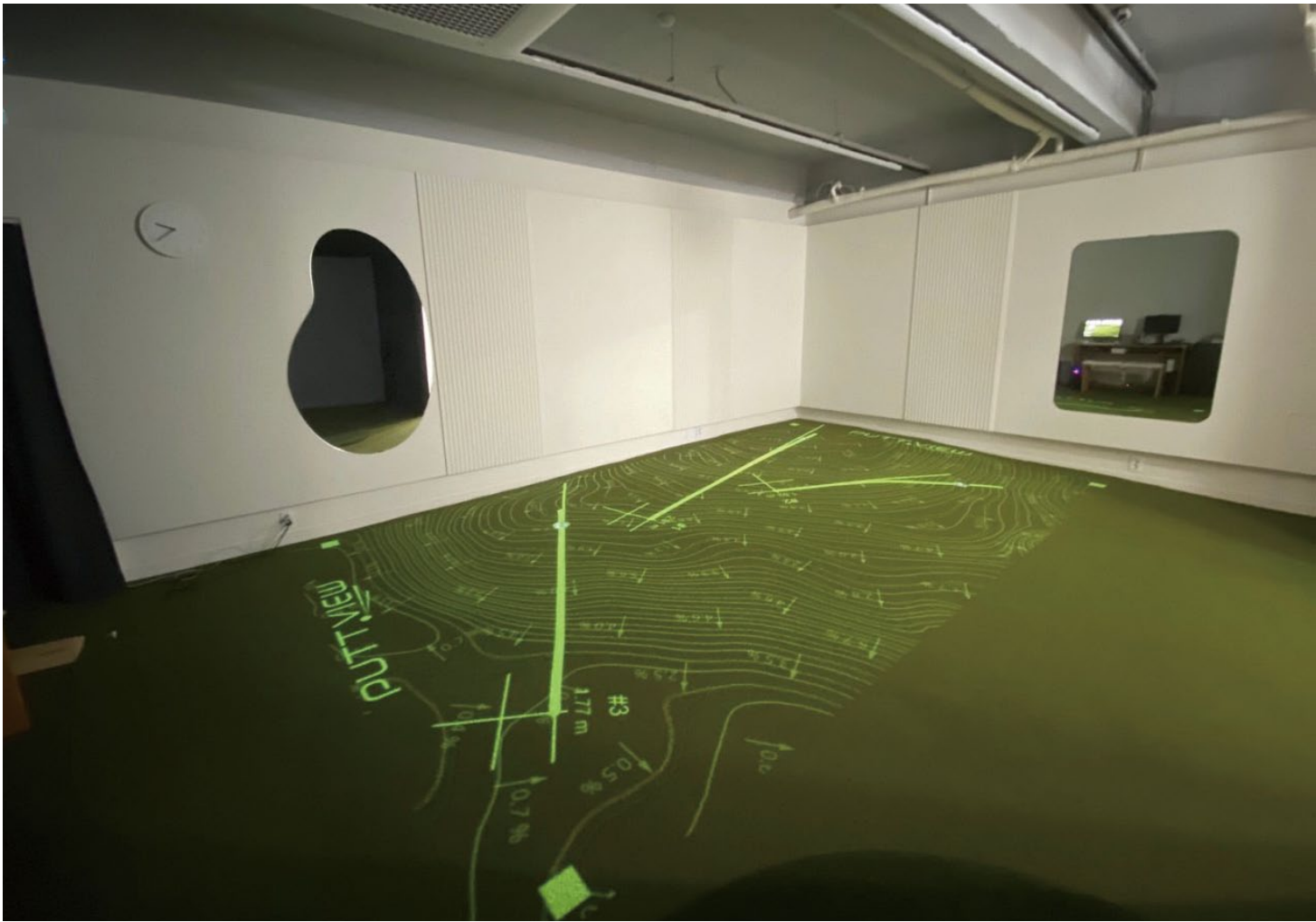
이승현은 은퇴 전까지 ‘퍼팅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퍼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 2010년 KLPGA에 데뷔해 12년간 정규투어에서 메이저대회 2승을 포함해 통산 7승을 기록했다. 데뷔 시즌에 평균 퍼팅 순위 4위에 오른 뒤에는 2018년까지 한 번도 5위 밖을 벗어난 적이 없어 ‘퍼팅의 달인’으로 알려졌다. 2023년 5월 KLPGA투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공식 은퇴 이후 양재동에 ‘이승현 골프 스튜디오’를 열고 지금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국내에서 퍼트를 가장 잘하기로 소문난 선수였던 만큼 주변 선수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퍼트를 잘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코칭 요청을 은퇴 전부터 많이 받았다. 데뷔 이후 2018년까지 평균 퍼트 수 5위 이내에 들었던 만큼 퍼트 부분에는 자신이 있었다. 현역 시절 하루 1시간 이상 퍼트 연습을 빼놓지 않았고, 선수 입장을 잘 이해하다 보니 유

익한 조언을 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2017년 KLPGA투어에 데뷔해 우승이 없었던 배소현은 이승현 코치를 만나고 ‘E1 채리티 오픈’에서 우승한 이후 승승장구하고 있어 대표적 사례로 꼽는다. “저는 독학으로 퍼트를 배웠는데요, 선수 시절 퍼트를 연습하며 어려웠던 점은 누군가 어떻게 해야 퍼트를 교정할 수 있는지 잘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럴 때 이런 건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식의 가이드라인이 없었죠. 제가 레슨을 하다 보니 수많은 선수를 만나 피드백을 주고 성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지도해야 할지 깨닫고 있어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우승을 위해 부족한 부분으로 ‘퍼트’를 꼽는다. 아무리 비거리를 늘리고 아이언 샷의 정확도가 높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퍼트를 잘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점수를 내기 어렵게 된다. 이승현은 KLPGA 선수들의 경우 퍼트를 못하는 선수는 없다고 본다. 프로에 있는 선수들인 만큼 어느 정도 이상의 실력은 모두 갖추고 있다. 다만 퍼트에 대해 전문적으로 방법을 알려주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드라이버나 아이언은 샷에 대해 세분화해서 알려주는 골프 스튜디오가 많은 반면 퍼터만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곳은 찾기가 힘들었다. 데이터를 보면 퍼터가 부족한 것을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선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것이다.

나만의 전문성을 가진 골프 스튜디오로 차별화하기

“제가 일반적인 골프 스튜디오가 아닌 퍼팅 전문 스튜디오를 오픈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예요. 이미 다른 골프 스튜디오에서 드라이버나 아이언 등은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나만 코치해주는 스튜디오를 오픈하는 게 좀 더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경기 경험이 많다 보니 선수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편이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연습할 때는 퍼팅이 잘되었는데 시험만 나가면 퍼팅이 잘 안 된다고 호소하는 선수들도 있다. 연습할 때 데이터상으로 퍼팅에 문제가 없으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연습 때 실력처럼 경기에서도 퍼팅을 잘하려면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시험 때는 긴장이 되니 손이 떨리며 주저하게 되고 또 그래서 공을 잘 못 치고 그러잖아요. 그립이라든가 어드레스, 힘을 쓰는 방법 등 시험 전 긴장감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런 부분을 캐치해주고 있어요.”

은퇴 후 골프 스튜디오 운영을 생각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골프 스튜디오에서 티칭을 하려면 철저히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 경기에서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한다. 보다 쉽게 그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선수 시절 영상으로 퍼팅하는 모습을 직접 찍어보고 확인하며 자세를 교정했다. 스스로에 대한 연구가 있었기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 선수 시절 퍼팅에 대해 투자도 많이 하고 영상을 찍으며 연구를 했기에 전문성을 가진 스튜디오를 오픈할 수 있었다. 골프 스튜디오 오픈을 고려한다면 자신만의 전문성을 가진 분야로 도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자기만의 개성을 가진 스튜디오여야만 운영이 쉽고 전문성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루 종일 선수들에게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 체력도 길러야 한다. 선수들과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일반적인 골프 스튜디오는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다. 넓은 공간을 운영하려면 티칭 프로도 여러 명을 고용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고, 경영에도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상대해야 하니 시간이 모자라 직접 모든 레슨을 소화할 수 없게 된다. 이승현은 규모를 작게 하더라도 다른 티칭 프로를 두지 않고 선수들을 모두 직접 가르치고 싶었다. 일반인보다 선수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고, 선수들에게는 꼭 필요한 퍼팅 기술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본적인 것부터 퍼터를 가르치기보다 전문성을 가진 선수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고 싶었다. 앞으로 최대한 더 많은 선수들을 좀 더 좋은 공간에서 티칭하고 싶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다. ◆



세상에 없던 편안함, 감탄브라

여성 선수들에게 운동 시 편안한 속옷은 경기를 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리티(GRITEE, Inc.)의 심리스 언더웨어 브랜드 감탄브라는 KLPGA와 '공식 언더웨어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선수들을 위해 남다른 편안함을 전해줄 예정이다.



편안한 착용감에 감탄하게 되는 '감탄브라'

여성들이라면 거의 24시간 한 몸처럼 착용하게 되는 브라. 아침에 눈을 떠서 외출 준비를 할 때부터 KLPGA 선수들이라면 연습 라운딩이나 골프 경기에 이르기까지 야외 활동에서도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그리티의 감탄브라는 이렇게 여성들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해 탄생한 브랜드다. 장시간 착용하거나 움직임이 많아도 불편함이 없는 심리스 브라로 편안한 신축성과 쾌적한 착용감을 선사해 인기 언더웨어로 자리 잡고 있다.

세상에 없던 편안한 브라는 여성들이 먼저 알아보고 반겼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편한 속옷', '소재가 좋은 속옷'에 대한 관심과 니즈가 높아지면서 론칭 3년 만에 누적 판매량 2500만 장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모은 것이다. '입으면 감탄이 나온다'는 제품 이름처럼 입은 듯 안 입은 듯 편안한 착용감이 강점이다. 여성들의 나이나 체형, 생활 방식의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브라 착용이 편해지면서 가슴을 조여오는 압박 없이 건강하고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해졌고 나아가 자신감 있는 일상생활도 할 수 있어 더욱 만족도가 높다. 이번 겨울에는 포근한 촉감의 텐셀모달 등 천연 소재를 사용하거나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2022년 국내 '언더웨어' 최초로 엄격하고 까다로운 독일 더마테스트(Dermatest)사(社)의 인증을 받았고, 피부 안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피부 안전성을 보장하는 이너웨어로 인정받고 있다.

등과 어깨가 굽은 현대인을 위한 처방 '감탄 자세브라' 라인

감탄브라의 대표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감탄 자세브라'는 출시된 지 1주년이 되었다. 자세브라라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세 교정을 위한 특별한 기법을 적용한 제품이다. 등쪽에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X자 형태의 히든레이어 퓨징 기법을 적용해 착용하기만 해도 굽은 등과 어깨를 교정해주는 특별한 언더웨어다. 공부를 하거나, 컴퓨터나 휴대폰을 하면서 자꾸만 앞으로 굽어지는 등과 어깨가 고민인 현대인을 위해 X자형으로 등과 어깨를 부드럽게 당겨줘 펴지도록 돕는다. 함께 세트로 구성된 자세팬티는 힙 라인에 볼륨을 넣어 장시간 착용해도 끼임 없이 편안함을 선사한다.



건조한 계절 피부까지 생각한 언더웨어 ‘감탄 프리미엄 크림’ 라인

이번 F/W 시즌에 맞춰 새롭게 ‘감탄 프리미엄 크림’ 라인을 선보였다. ‘감탄 프리미엄 크림’은 우리 피부의 70%를 구성하며 새로운 피부 조직을 형성하고 피부 탄력과 수분 유지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진 콜라겐을 사용해 만든 제품이다.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인 만큼 피부가 직접 닿는 안감 부분에 콜라겐 섬유 함유량을 높여 보습력을 향상시켰다. 테스트를 통해 인증받은 흡한속건 및 통기성, 항균·소취 기능으로 하루 종일 가볍고 쾌적하게 착용 가능하다. 컬러 역시 계절감을 반영했다. 오프 화이트·블랙의 베이직한 컬러는 물론 가을 감성에 맞는 파우더 핑크·브릭·코코아 컬러도 함께 선보여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다. ‘감탄 프리미엄 크림’ 라인은 스트랩형, 런닝형, 후크형 브라로 개인 취향에 맞춰 선택하기에 좋다. 큰컵 전용 브라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춰 개인별 맞춤형 브라로 선택 가능하다. ◆



HOT ISSUE

KLPGA 공식 언더웨어 파트너 조인식

gamtan | KLPGA

2024년 9월 2일



그리티 감탄브라, KLPGA 공식

언더웨어 파트너 체결

KLPGA투어는 지난 9월 2일 (주)그리티의 언더웨어 브랜드 ‘감탄브라’와 공식 언더웨어 파트너 협약 체결 조인식을 가졌다. 그리티는 라이프스타일웨어 전문기업으로 애슬레저와 이너웨어를 포함해 패션, 온라인 플랫폼까지 생활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며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로 그리티는 KLPGA의 공식 언더웨어 파트너가 되었다. 또한 KLPGA투어 중계방송, KLPGA 공식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노출 등 각종 미디어와 온라인상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하고 KLPGA투어 대회장의 집합 광고 보드와 순위 보드를 통한 로고 노출 등이 가능해졌다. 향후 KLPGA 선수들과 제품 개발 단계부터 함께하며 핏과 착용감이 우수한 골프 전용 제품을 개발하는 등 KLPGA의 공식 언더웨어 파트너로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갈 계획이다. 그리티의 조혜선 부사장은 “누적 판매 2500만 장으로 대한민국 여성들이 선택한 감탄브라가 KLPGA의 공식 언더웨어 파트너로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앞으로 브랜드 신뢰성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일상에서는 물론 다양한 운동 시에도 편안한 스포츠 전용 속옷에 특화된 제품으로 도약해나갈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제14회 SBS골프·김안과병원배
한국시각장애인 골프대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 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시각장애인 골프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장애인스포츠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한시각장애인골프협회가 주관하는 특별한 대회가 개최되었다. 시각장애인골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제14회 SBS골프·김안과병원배 한국시각장애인 골프대회'가 지난 8월 27일과 28일 이틀간 라데나 GC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국내외의 시각장애인 골프 선수 39명(전맹부 19명, 약시부 20명)과 서포터들을 비롯해 김용란 김안과병원 대표원장과 김성주 원장, 박신영 대한시각장애인골프협회 부회장, 지태화 KPGA 수석 부회장, 김미희 KLPGA 부회장 등 약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시각장애인골프협회(BGA)와 함께 국내 선수들만이 아니라 일본, 호주 등 국외 시각장애인 선수들까지 초청해 국제대회로 개최되었다. 27일 프로암 대회, 28일 본대회로 진행되었으며 프로암 대회는 시각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이 1팀으로 경기하는 포식 방식을 택했다. 18일 스트로크 플레이로 치러진 본대회는 시각장애인 골프 선수와 비장애인 서포터가 함께 조를 이뤄 전맹 부문과 약시 부문으로 진행되었다. 전맹 부문 우승은 김진원 선수, 준우승은 유정일 선수가 차지했다. 약시 부문 우승과 준우승은 각각 김기성, 조인찬 선수가 차지했다. 112타를 기록해 전맹 부문에서 우승한 김진원 선수는 "예전에는 시각장애인이 골프를 하는 것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이었는데 김안과병원에서 시각장애인 골프대회를 주최하며 홍보가 많이 되었다"며 "시각장애인골프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고 골프연습장도 수월하게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런 골프대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시각장애인이 골프에 접근하기 쉬워지고 후

배 선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용란 대표원장은 "김안과병원이 시각장애인 골프 대회를 주관한 지 벌써 14회째가 되었는데 주체인 김안과병원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대회가 이어질 수 있었다"며 "시각장애인 골프대회를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분들, 시각장애인 선수의 눈이 되어주시는 서포터분들, 대회에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국내외 선수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안과병원은 지난 2009년부터 '김안과병원배 한국시각장애인 골프대회'를 매년 주최해 시각장애인 골프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실력을 공정하게 겨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스포츠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KLPGA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김안과병원이 후원하는 한국시각장애인 골프대회를 후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2000만 원을 후원했고 김미희 부회장이 직접 시상식에 참여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

세계무대 이끌 골프 꿈나무를 위한 경합의 장
KLPGA-삼천리 투게더 꿈나무대회 2024



지난 9월 우리나라의 골프 미래를 이끌어 나갈 꿈나무들이 부여에 모였다. 삼천리그룹과 KLPGA가 공동으로 주최한 'KLPGA-삼천리 투게더 꿈나무대회 2024'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번 대회에서 골프 유망주들은 열정 가득한 모습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쳐 미래를 기대하게 했다.



열정 가득했던 꿈나무들의 경쟁

삼천리와 KLPGA가 여자 아마추어 골퍼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주최하는 'KLPGA-삼천리 투게더 꿈나무대회'가 올해로 8회째를 맞이했다. 지난 2015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매 대회 높은 가능성을 가진 유망주를 발굴해 국내 여자골프의 화수분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중등부 80명, 고등부 176명 등 총 256명에 이르는 전국 미래 골프 인재들이 모여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시간이 되었다.

다부진 각으로 임한 선수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중등부에서는 이시은 선수가 11언더파 205타로 동타를 이루던 중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기록해 극적인 우승을 거두었다. 고등부의 경우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던 유아현 선수가 14언더파 202타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 상위 입상자들에게는 특별한 혜택과 장학금, 그리고 부상이 수여됐다. 특히 고등부 우승자들에게는 KLPGA 준회원 실기 테스트 면제라는 파격 특전이 주어졌고, 중·고등부 통합 성적 우수자들에게는 KLPGA 정규투어 또는 드림투어에 추천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 이 외에도 대회 기간 소요되는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 전

액이 지원되고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며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벤트로 삼천리 스포츠단 지유진 부단장과 홍란 프로가 함께하는 학부모와의 티타임이 진행되었다. 학부모들의 사전 질의서를 받아 공통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선수의 사춘기와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꾸준히 훈련할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하는 방법 등 유소년 선수가 프로골퍼로 성장하는 과정에 필요한 조언을 현실적으로 건네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KLPGA-삼천리 투게더 꿈나무대회'는 차세대 골프 스타의 등용문이기도 하다. 현재 KLPGA투어를 이끌고 있는 송가은(2015·2016년), 김재희(2016년), 조아연(2017년), 김민별(2018·2019년), 홍정민(2019년) 등 다수의 선수들을 정규투어 우승자로 배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삼천리는 'KLPGA-삼천리 투게더 꿈나무대회'를 비롯해 꿈나무 선수를 발굴 및 육성하는 삼천리 아카데미 등을 통해 국내 골프 저변 확대와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랑받는 기업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구분	순위	이름	학교	성적
고등부	1위	유아현	서강고 2	14언더파 202타
	2위	하다인	인천여고 부설방통고 3	10언더파 206타
	3위	양윤서	인천여고 부설방통고 1	10언더파 206타
중등부	1위	이시은	노형중 3	11언더파 205타
	2위	유지은	월산중 2	11언더파 205타
	3위	단젤라샤넬	대전 외국인학교 3	9언더파 207타

켈피크루 2기가 소개하는 KLPGA

KLPGA 선수들만큼이나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바쁘게 보냈던 켈피크루 2기들. 지난 경기들을 돌아보며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을 되새겨보았다.

KLPGA CREW

켈피크루 2기 주현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레이싱, 홈쇼핑, 골프 모델로 활동하는 주현하입니다. 골프를 시작하면서 KLPGA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골프를 가장 잘 치는 여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 KLPGA잖아요.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팬이 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라데나에서 열렸던 ‘2024 두산 매치플레이’였어요. 일반적인 대회와 달리 매치플레이로 진행되는 경기라 더욱 재미있고요. 지난해부터 팬이 되었던 이예원 선수의 플레이를 보기 위해 일찍부터 춘천으로 향했는데 경기 시작 전 이정민 선수의 기권으로 이예원 선수가 부전승으로 16강

진출이 확정되었어요. 그날 박현경 선수와 이예원 선수가 부전승으로 휴식을 갖게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박현경 선수가 우승을, 이예원 선수가 준우승을 한 것이 기억에 남아요. 비록 평소 팬이었던 이예원 선수의 경기를 춘천까지 가서 볼 수는 없었지만 준우승까지 해낸 이예원 선수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앞으로의 활동 각오는? 이제 2024시즌 대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도 KLPGA 선수들처럼 열심히 골프를 치며 겨울에는 동계훈련도 하고 내년 시즌을 준비할 예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골프로는 가장 멋진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도 항상 함께할 거예요.

켈피크루 2기 김재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골프를 좋아하지만 미워하기도 하는 두 가지 감정을 가진 켈피크루 2기 김재화라고 합니다. 골프와 수년간 밀당을 하면서 좌절도 많이 겪었지만 그 와중에 골프의 매력에 더 깊이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켈피크루 활동을 하면서 올해도 정말 많은 경기를 직관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올해 7월에 베어즈베스트 청라에서 열렸던 롯데오픈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특색 있는 마지막 18홀 시그니처 홀에서 신나는 노래와 함께 선수들을 소개하고 퍼팅 후 선수들이 사인을 해주거나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골프가 매너와 규칙을 지키면서 신나고 재미있는 경기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골프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겼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활동 각오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TV로 골프 경기를 보시는 게 참 싫었어요. 세상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왜 보실까 생각했거든요. 제가 켈피크루로 활동하면서 보니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싶어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골프를 접할 수 있는 매개가 되고 싶어요. 골프가 지루하고 정적인 운동이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경기장에서 느낄 수 있는 활기찬 모습을 전하고 싶어요.

켈피크루 2기 박성철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인스타그램(@ionking_sc)을 통해 골프와 여행 관련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는 켈피크루 2기 박성철입니다. 코로나19 시절 골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올해로 5년째 골프를 즐기고 있고 평일에는 스크린, 주말에는 라운드, 해외여행도 골프 위주로 다니는 골프에 진심인 직장인입니다. KLPGA 팬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직접 골프를 치는 것만 좋아했는데요. 지난해 ‘SK텔레콤 · SK쉴더스 챔피언십’ 갤러리로 방문한 이후에 KLPGA 찐팬이 되었어요. 축구나 야구와 같이 관중석에 앉아 보는 종목과 달리 프로님들과 도보로 코스를 이동하며 국내 최고의 골프장에서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에 정말 큰 매력을 느꼈어요. 다양한 갤러리 이벤트, 기념품 등도 받고 소소하지만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어요. 무엇보다 화이트티에서 플레이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며 라운드를 나가면 매번 발생하는 선택의 순간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티 샷 선택 방법(드라이버, 우드), 그린 주변 어프로치, 트러블 라이샷 등 골프를 보는

눈과 플레이에 대한 전략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배소현 선수가 우승한 ‘더 캐리티 오픈’입니다. 프로 입문 13년, 154번째 만에 정말 값진 첫 우승을 한 배소현 선수! 우승을 한 후 담담한 목소리로 팬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스스로를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다 보니 우승할 수 있었다”는 우승 인터뷰가 정말 멋졌습니다. 최고의 플레이와 대기만성형 선수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함께 볼 수 있었던 최고의 경기였어요. 배소현 선수 시즌 3승 너무 축하드려요! 통산 10승도 파이팅! 앞으로의 활동 각오는? 켈피크루 2기 발대식 이후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아쉽게도 2024시즌이 끝나가네요.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켈피크루로 활동하며 만들고 있는 ‘갤러리 200% 즐기는 방법’ 콘텐츠를 인스타그램에서 소개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직 갤러리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갤러리 골프 여행’을 추천하고 싶어요. 대회에서 갤러리로 참여하며 선수들의 멋진 스윙도 가까이서 보고, 골프장 근처 맛집과 관광지를 방문해보니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켈피크루 2기 안소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구력이 2년도 채 되지 않은 찐 골린이 안소빈입니다. 아직 라운딩 경험이 많지 않아 라운드를 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많고 옳은 상황(?)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담은 재미있는 영상이나 가끔 있는 오잘공과 레슨 기록도 영상으로 남기고 있어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올해 5월 수원CC에서 열렸던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처음으로 KLPGA 경기를 직접 보러 갔었기 때문에 더욱 기억에 남고요. 켈피크루 같은 조원들과 함께

한 첫 경기라 또 의미가 깊었어요. 평소 응원하던 이예원 선수가 우승까지 차지해 너무 기뻐했던 경기였어요. 앞으로의 활동 각오는? 올해는 켈피크루 활동 덕분에 가까이에서 선수들의 멋진 스윙과 경기를 직접 보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시즌 경기들도 열심히 지켜보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켈피크루 활동을 계기로 KLPGA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요. 저와 같은 골린이도 KLPGA 선수들의 멋진 스윙과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



1 YOON INA

윤이나

랭킹 포인트 **12.0758**

합계 포인트 **422.65**

출전 대회 수 **24**



6

PARK HYUN KYUNG

박현경

랭킹 포인트

8.7817

합계 포인트

500.56

출전 대회 수

57



2

PARK JI YOUNG

박지영

랭킹 포인트

10.2514

합계 포인트

533.07

출전 대회 수

52



7

YOO HYUN JO

유현조

랭킹 포인트

6.9775

합계 포인트

244.21

출전 대회 수

32



3

LEE YE WON

이예원

랭킹 포인트

10.2461

합계 포인트

573.78

출전 대회 수

56



8

BANG SHIN SIL

방신실

랭킹 포인트

6.7582

합계 포인트

378.46

출전 대회 수

56



4

KIM SU JI

김수지

랭킹 포인트

9.6136

합계 포인트

499.91

출전 대회 수

52



9

PARK MIN JI

박민지

랭킹 포인트

6.7144

합계 포인트

295.44

출전 대회 수

44



5

HWANG YOU MIN

황유민

랭킹 포인트

9.2425

합계 포인트

462.12

출전 대회 수

50



10

IM JIN HEE

임진희

랭킹 포인트

6.4502

합계 포인트

225.76

출전 대회 수

35

43주 차

2024 K-RANKING

2024시즌 투어 주요 순위

※ '덕신EPC · 서울경제레이디스 클래식' 종료 기준

상금 순위

1		윤이나	1,199,944,286
2		박현경	1,111,956,085
3		박지영	1,090,242,111
4		황유민	1,051,042,290
5		이예원	919,411,705

평균 타수

1		윤이나	70.0000
2		박지영	70.1781
3		박현경	70.3210
4		김수지	70.3553
5		이제영	70.6098

WEMADE 대상 포인트

1		윤이나	535
2		박현경	487
3		박지영	471
4		이예원	434
5		김수지	382

신인상 포인트

1		유현조	2,151
2		이동은	1,389
3		홍현지	1,238
4		강가울	742
5		윤민아	731

챔피언스투어 상금 순위

1		최혜정	75,836,000
2		홍진주	70,983,333
3		임은아	35,359,000
4		우선화	23,880,334
5		김혜정2	18,616,500

드림투어 상금 순위

1		송은아	51,017,597
2		김효문	47,523,945
3		황연서	46,547,995
4		이지현3	42,505,446
5		권서연	32,494,547

KLPGA TOUR SCHEDULE

*정규투어

03 MARCH	7~10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	15~17 블루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
	일정 : 3월 7일 ~ 10일 장소 : 타나메라 총상금 : 1,100,000SGD 우승자 : 김재희	일정 : 3월 15일 ~ 17일 장소 : 블루캐니언 총상금 : 65만 달러 우승자 : 이예원

04 APRIL	4~7 두산건설 We've 챔피언십	11~14 메디힐 · 한국일보 챔피언십	19~21 넥센 · 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4	25~28 ★크리에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
	일정 : 4월 4일 ~ 7일 장소 :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총상금 : 12억 원 우승자 : 황유민	일정 : 4월 11일 ~ 14일 장소 : 클럽72 총상금 : 10억 원 우승자 : 박지영	일정 : 4월 19일 ~ 21일 장소 : 가야 총상금 : 9억 원 우승자 : 최은우	일정 : 4월 25일 ~ 28일 장소 :레이크우드 총상금 : 13억 원 우승자 : 이정민

05 MAY	3~5 제10회 교촌 1991 레이디스 오픈	10~12 2024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15~19 2024 두산 매치플레이	24~26 제12회 E1 채리티 오픈	31~6/2 Sh수협은행 · MBN 여자오픈
	일정 : 5월 3일 ~ 5일 장소 : 골프존카운티 선산 총상금 : 8억 원 우승자 : 박지영	일정 : 5월 10일 ~ 12일 장소 : 수원 총상금 : 8억 원 우승자 : 이예원	일정 : 5월 15일 ~ 19일 장소 : 라데나 총상금 : 9억 원 우승자 : 박현경	일정 : 5월 24일 ~ 26일 장소 : 미정 총상금 : 9억 원 우승자 : 배소현	일정 : 5월 31일 ~ 6월 2일 장소 : 더스타휴 총상금 : 10억 원 우승자 : 이예원

06 JUNE	7~9 2024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13~16 ★DB그룹 제38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20~23 BC카드 · 한경 레이디스컵 2024	28~30 맥콜 · 모나 용평 오픈 with SBS Golf
	일정 : 6월 7일 ~ 9일 장소 : 설해원 총상금 : 12억 원 우승자 : 박민지	일정 : 6월 13일 ~ 16일 장소 : 미정 총상금 : 12억 원 우승자 : 노승희	일정 : 6월 20일 ~ 23일 장소 : 포천힐스 총상금 : 14억 원 우승자 : 박현경	일정 : 6월 28일 ~ 30일 장소 : 버치힐 총상금 : 8억 원 우승자 : 박현경

07 JULY	4~7 롯데오픈	11~14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24
	일정 : 7월 4일 ~ 7일 장소 : 베어즈베스트 청라 총상금 : 12억 원 우승자 : 이가영	일정 : 7월 11일 ~ 14일 장소 : 하이원 총상금 : 10억 원 우승자 : 고지우

08 AUGUST	1~4 제11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즈	16~18 더헤븐 마스터즈	22~25 ★한화 클래식 2024	30~9/1 제13회 KG 레이디스 오픈
	일정 : 8월 1일 ~ 4일 장소 : 블랙스톤 제주 총상금 : 10억 원 우승자 : 윤이나	일정 : 8월 16일 ~ 18일 장소 : 더헤븐CC 총상금 : 10억 원 우승자 : 배소현	일정 : 8월 22일 ~ 25일 장소 : 제이드팰리스 총상금 : 17억 원 우승자 : 박지영	일정 : 8월 30일 ~ 9월 1일 장소 : 씨네포인트 총상금 : 8억 원 우승자 : 배소현

09 SEPTEMBER	5~8 ★KB금융 스타챔피언십	13~15 OK금융그룹 웃맨 오픈	20~22 대보 하우스디 오픈	26~29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일정 : 9월 5일 ~ 8일 장소 : 블랙스톤 이천 총상금 : 12억 원 우승자 : 유현조	일정 : 9월 13일 ~ 15일 장소 : 클럽72 총상금 : 8억 원 우승자 : 노승희	일정 : 9월 20일 ~ 22일 장소 : 서원밸리 총상금 : 10억 원 우승자 : 문정민	일정 : 9월 26일 ~ 29일 장소 : 베어즈베스트 청라 총상금 : 15억 원 우승자 : 마다솜

10 OCTOBER	3~6 ★제24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10~13 2024 동부건설 · 한국 토지신탁 챔피언십	17~20 상상인 · 한경 와우넷 오픈 2024	24~27 덕신EPC ·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31~11/3 S-OIL 챔피언십 2024
	일정 : 10월 3일 ~ 6일 장소 : 블루헤런 총상금 : 15억 원 우승자 : 김수지	일정 : 10월 10일 ~ 13일 장소 : 익산CC 총상금 : 10억 원 우승자 : 김민별	일정 : 10월 17일 ~ 20일 장소 : 사우스스프링스 총상금 : 12억 원 우승자 : 박보경	일정 : 10월 24일 ~ 27일 장소 : 88 총상금 : 8억 원 우승자 : 지현솔	일정 : 10월 31일 ~ 11월 3일 장소 : 엘리시안 제주 총상금 : 9억 원

11 NOVEMBER	8~10 SK텔레콤 · SK실더스 챔피언십 2024
	일정 : 11월 8일 ~ 10일 장소 : 라비에벨 총상금 : 10억 원



KLPGA TOUR SCHEDULE

*드림투어/점프투어/챔피언스투어

D

DREAM TOUR

J

JUMP TOUR

C

CHAMPIONS TOUR

04 APRIL	05 MAY	06 JUNE	07 JULY	08 AUGUST	09 SEPTEMBER	10 OCTOBER
8~9 J 우승자 : 큰 아야나 KLPGA 2024 백제CC · 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1차전 장소 : 백제 / 총상금 : 3천만 원 8~10 D 우승자 : 정주리 KLPGA 2024 노랑통닭 큐캐피탈파트너스 드림챌린지 1차전 장소 :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 총상금 : 1억 원 15~16 J 우승자 : 이세인 KLPGA 2024 백제CC · 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2차전 장소 : 백제 / 총상금 : 3천만 원 18~19 D 우승자 : 김효문 KLPGA 2024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2차전 장소 : 무안 / 총상금 : 7천만 원 22~23 J 우승자 : 백송 KLPGA 2024 백제CC · 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3차전 장소 : 백제 / 총상금 : 3천만 원 22~23 D 우승자 : 김지현 KLPGA 세기P&C · 군산CC 드림투어 2024 3차전 장소 : 군산 / 총상금 : 7천만 원 25~26 C 우승자 : 최혜정 KLPGA 챔피언스 클래식 2024 1차전 장소 : 군산 / 총상금 : 7천만 원 29~30 J 우승자 : 이승민B KLPGA 2024 백제CC · 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4차전 장소 : 백제 / 총상금 : 3천만 원	8~9 D 우승자 : 황연서 KLPGA 2024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4차전 장소 : 무안 / 총상금 : 7천만 원 16~17 C 우승자 : 최혜정 KLPGA 챔피언스 클래식 2024 2차전 장소 : 군산 / 총상금 : 7천만 원 20~21 J 우승자 : 송은아 KLPGA 드림투어 with 삼일제약 5차전 장소 : 군산 / 총상금 : 7천만 원 20~21 J 우승자 : 김양현 KLPGA 2024 SBS골프 점프투어 with 이지스카이CC 5차전 장소 : 이지스카이 / 총상금 : 3천만 원 27~28 J 우승자 : 김민경D KLPGA 2024 SBS골프 점프투어 with 이지스카이CC 6차전 장소 : 이지스카이 / 총상금 : 3천만 원 29~30 C 우승자 : 홍진주 KLPGA 2024 SBS골프 챔피언스 투어 with 이지스카이CC 1차전 장소 : 이지스카이 / 총상금 : 7천만 원	3~4 J 우승자 : 신지우 KLPGA 2024 SBS골프 점프투어 with 이지스카이CC 7차전 장소 : 이지스카이 / 총상금 : 3천만 원 3~5 D 우승자 : 전승희 KLPGA 세기P&C · 군산CC 드림투어 2024 6차전 장소 : 군산 / 총상금 : 1억 원 10~11 J 우승자 : 신지우 KLPGA 2024 SBS골프 점프투어 with 이지스카이CC 8차전 장소 : 이지스카이 / 총상금 : 3천만 원 17~18 C 우승자 : 홍진주 KLPGA 2024 SBS골프 챔피언스 투어 with 이지스카이CC 2차전 장소 : 이지스카이 / 총상금 : 7천만 원	9~11 D 우승자 : 마서영 KLPGA 2024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7차전 장소 : 무안 / 총상금 : 1억 원 15~16 J 우승자 : 이지민(A) KLPGA 2024 솔라고 점프투어 9차전 장소 : 솔라고 / 총상금 : 3천만 원 15~16 C 우승자 : 홍진주 KLPGA 2024 SBS골프 챔피언스 투어 with 이지스카이 CC 3차전 장소 : 이지스카이 / 총상금 : 1억 원 18~19 D 우승자 : 박예지 KLPGA 2024 드림투어 with 크라우팅 8차전 장소 : 백제 / 총상금 : 7천만 원 22~23 J 우승자 : 유다연(S) KLPGA 2024 솔라고 점프투어 10차전 장소 : 솔라고 / 총상금 : 3천만 원 25~26 D 우승자 : 한빛나 KLPGA 세기P&C · 군산CC 드림투어 2024 9차전 장소 : 군산 / 총상금 : 7천만 원 29~30 D 우승자 : 이지현3 KLPGA 2024 SBS골프 · 크리브나인 드림투어 with 이지스카이CC 10차전 장소 : 이지스카이 / 총상금 : 7천만 원 29~30 J 우승자 : 유채승(S) KLPGA 2024 솔라고 점프투어 11차전 장소 : 솔라고 / 총상금 : 3천만 원	5~6 J 우승자 : 오승(S) KLPGA 2024 솔라고 점프투어 12차전 장소 : 솔라고 / 총상금 : 3천만 원 6~8 D 우승자 : 이태훈 KLPGA 2024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11차전 장소 : 무안 / 총상금 : 1억 원 12~13 D 우승자 : 김효문 KLPGA 2024 더헤븐 마스터즈 드림투어 with SBS골프 12차전 장소 : 더헤븐CC / 총상금 : 1억 원 26~27 D 우승자 : 유다경(1) KLPGA 2024 모나크CC · 000 드림투어 13차전 장소 : 모나크 / 총상금 : 7천만 원 28~29 J 우승자 : 서지은(S) KLPGA 2024 그랜드 · 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13차전 장소 : 그랜드 / 총상금 : 3천만 원	2~3 C 우승자 : 최혜정 KLPGA 2024 SBS골프 챔피언스 투어 with 이지스카이 CC 4차전 장소 : 이지스카이 / 총상금 : 1억 원 9~10 D 우승자 : 송은아 KLPGA 2024 군산 드림투어 14차전 장소 : 미정 / 총상금 : 7천만 원 9~10 J 우승자 : 장소희(S) KLPGA 2024 그랜드 · 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14차전 장소 : 그랜드 / 총상금 : 3천만 원 11~12 J 우승자 : 서지은(S) KLPGA 2024 그랜드 · 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15차전 장소 : 그랜드 / 총상금 : 3천만 원 19~20 J 우승자 : 조혜지(S) KLPGA 2024 그랜드 · 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16차전 장소 : 그랜드 / 총상금 : 3천만 원 23~24 D 우승자 : 권서연 KLPGA 2024 서울제약 · 큐캐피탈파트너스 드림투어 15차전 장소 : 미정 / 총상금 : 7천만 원 24~25 C 우승자 : 김미순 KLPGA 챔피언스 클래식 2024 3차전 골드부 장소 : 군산 / 총상금 : 4천만 원 24~25 C 우승자 : 임은아 KLPGA 챔피언스 클래식 2024 3차전 그린부 장소 : 군산 / 총상금 : 1억1천만 원 30~10/1 D 우승자 : 윤수아 KLPGA 세기P&C · 군산CC 드림투어 2024 16차전 장소 : 군산 / 총상금 : 8천만 원	7~8 D 우승자 : 황민정 KLPGA 2024 와우매니지먼트그룹 드림투어 17차전(미정) 장소 : 미정 / 총상금 : 7천만 원 7~8 C 우승자 : 최혜정 KLPGA 2024 SBS골프 챔피언스 투어 with 이지스카이 CC 5차전 장소 : 이지스카이 / 총상금 : 1억 원 14~15 D 우승자 : 이지현3 KLPGA 2024 SBS골프 드림투어 with 이지스카이 CC 18차전 장소 : 이지스카이 / 총상금 : 7천만 원 21~22 D 우승자 : 강정현 KLPGA 2024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19차전 장소 : 무안 / 총상금 : 7천만 원 28~30 D KLPGA 파마리서치 리쥬란 드림투어 왕중왕전 2024 장소 : 휘닉스 / 총상금 : 2억 원

❑ 골프역량과정

구분	내용
주제	KLPGA Physical Training
내용	골프 손상 및 예방 / 트레이닝의 주기화 / 골프 트레이닝의 원리 및 구성 / 유연성/근력 및 파워/협응력/심폐지구력 트레이닝
일정	11/22(금), 23(토) 13시~15시 ※ 양일 모두 이수 시 KLPGA Physical Training 수료증 지급
강사	김광준(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 / KLPGA 교육분과위원)
장소	한국체육대학교
비용/인원	협회 지원 / 선착순 50명
신청	https://edu.klpga.co.kr/main.do 로그인 (협회 홈페이지 ID/PW 동일) 후 개별 신청

❑ 골프산업과정

구분	내용		
주제	선수 매니지먼트	골프 어패럴	모던 골프 산업의 변화
일정	11/19(화) 12시30분 ~ 17시 20분		
강사	구철(넥스트크리에이티브)	이상일(캘러웨이)	최영훈(폴스윙코리아)
장소	서울올림픽파크텔		
비용/인원	협회 지원 / 선착순 30명		
신청	https://edu.klpga.co.kr/main.do 로그인(협회 홈페이지 ID/PW 동일) 후 개별 신청		

❑ 인문소양과정

구분	내용		
주제	리더스포럼	수지향(수요일에 만나는 지혜의 향연)	KLPGA 인문소양특강(도핑의 이해)
내용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 오피니언 리더의 트렌드 특강으로 정부기관, 대기업 핵심인재 등 700여명 참가	역사, 예술, 철학 등 분야별 최고의 석학들을 통해 삶의 성장과 해안을 얻는 특강	김리나(삼육대 병원/한국도핑방지위원회)
일정	10/11(금), 11/14(금), 12/13 06:40 ~ 09:00 (조찬식사 제공)	10월 : 10/16(수), 10/30(수) 11월 : 11/13(수), 11/27(수) 12월 : 12/04(수), 12/18(수)	11/22(금) 15시~17시
장소	롯데호텔 월드(송파구 잠실동) 3F 크리스탈 볼룸	노보텔 엠베서더 2F 샴페인홀	한국체육대학교
비용/인원	협회 지원 / 선착순 30명		
신청	https://edu.klpga.co.kr/main.do 로그인(협회 홈페이지 ID/PW 동일) 후 개별 신청		

❑ 문화교양과정

구분	내용
장소	전국 34개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일정	가을학기(9월~11월) → 7월~8월 모집 겨울학기(12월~2월) → 10월~11월 모집
비용	학기당 1개 과정 수강료 지원(15만원 이하 정기강좌에 한함 / 재료비 및 교재비 본인 부담)
내용	라이프스타일, 건강/뷰티, 공예, 어학/인문, 음악/악기, 미술, 쿠킹, 육아, 교양 등
신청방법	https://culture.lotteshopping.com/index.do 통해서 수강 과정 선택 각 지점별 등록처 직접 방문 신청(회원증 지참 필수) ※ 당해 학기 과정 교육 취소 후 타 과정 재등록 불가

❑ 취업역량과정

구분	내용
주제	합격을 부르는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전략
일정	11/13(화) 12시~17시
강사	한국능률협회
장소	서울올림픽파크텔
비용/인원	협회 지원 / 선착순 50명
신청	https://edu.klpga.co.kr/main.do 로그인 (협회 홈페이지 ID/PW 동일) 후 개별 신청

❑ 경제재테크과정

구분	내용
주제	스마트 상속 증여 플랜
일정	12/11(수) 14시~17시
강사	한국능률협회
장소	서울올림픽파크텔
비용/인원	협회 지원 / 선착순 30명
신청	https://edu.klpga.co.kr/main.do 로그인 (협회 홈페이지 ID/PW 동일) 후 개별 신청

❑ 외국어교육 과정

가. 파고다어학원

구분	내용
장소	- 강남점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6-6, 7 파고다 어학원(T.02-2051-4000) - 종로점 :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56-6(T.02-2274-4000) - 신촌점 : 서울시 서대문구 청천동 20-41 아남인베스텔 3층(T.02-717-4000) - 부산점 : 부산시 진구 부전2동 232-2(T.051-802-4001)
지원내용 · 비용	총 90% 교육비 할인 (매달 1강좌 파고다어학원 70%* 할인 + 추가 협회지원 20% 할인 = 총 90% 할인 및 자부담 10%만 결제) ※ 수강료 50만원 이상 강좌의 경우 • 50만원 기준으로 70% 금액 할인(ex: 50만원에서 70% 할인받아 35만원 결제) • 50만원 이상일 경우, 차액 결제(ex: 수강료 70만원일 경우, 할인 받은 금액 + 20만원 차액 결제) ※ 기타 할인&쿠폰 중복 할인 불가
신청방법	각 지점별 등록처 직접 방문 신청(회원증 지참 필수) / 지점별 강좌 홈페이지 참고(www.pagoda21.com)
문의	파고다 어학원, 구상은 매니저(02-6907-2961)
기타	본인이 아닌 대리인 수강이 적발될 경우 : 지원 영구 중단 ※ 대리인 : 가족, 친인척, 친구 등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나. 파고다인강

구분	내용
장소	파고다인강(파고다스타) (www.pagodastar.com)
지원내용 · 비용	매달 온라인 파고다인강 1강좌 50% 할인 ※ 제외 수강 과목 : GRE, 점수보장반, 환급반, 중국어강사양성과정, 원데이클래스, 챌린지, 온라인라이트클래스 제외 ※ 교재 증정 및 응시료 환급 제외 ※ 기타 할인&쿠폰 중복 할인 불가
신청방법	이메일(pagodastar@pagoda21.com) 또는 팩스(02-533-8066)(KLPGA 회원증 사본, 신분증 사본, 할인신청서* 제출) *할인신청서 [KLPGA 홈페이지 → 정보센터 → 회원혜택(교육서비스) → 파고다어학원 참조]
문의	파고다 어학원, 구상은 매니저(02-6907-2961)
기타	본인이 아닌 대리인 수강이 적발될 경우 : 지원 영구 중단 ※ 대리인 : 가족, 친인척, 친구 등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다. 전화외국어 / 화상외국어 교육

구분	내용
일정	• 전화외국어 : 1회 10분 / 주 2~3회 • 화상외국어 : 1회 20분 / 주 2회
비용	협회 지원
과목	투어프로 골프영어, 레슨프로 골프영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기타외국어(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
인원	• 전화외국어 : 80명 • 화상외국어 : 10명
신청방법	매년 3, 6, 9, 12월에 신청자 모집 [KLPGA 홈페이지 → KLPGA 뉴스 공지 참조] https://www.npagodatalink.com/w/klpga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3월(4월~6월 교육), 6월(7월~9월 교육), 9월(10월~12월 교육), 12월(1월~3월 교육)
기타사항	본인이 아닌 대리인 수강이 적발될 경우 : 지원 영구 중단 ※ 대리인 : 가족, 친인척, 친구 등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 문의 : KLPGA 사무국 서상덕 차장(☎02-560-4416 / sangduk.suh@googlemail.com), 유현규 과장(☎02-560-4427 /andy@klpga.com)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신청 후 무단 불참 시 1년간 교육 지원 중단

KLPGA 전체 회원 대상 온라인 의무교육 시행 안내

❖ **교육명** KLPGA 전체 회원 대상 온라인 의무교육

❖ **교육대상** KLPGA 회원(정, 준, 티칭회원)

❖ **교육기간** 2024년 8월 ~ 12월

❖ **교육형태** 온라인 의무교육 (PC: KLPGA 아카데미 <https://edu.klpga.co.kr>, 모바일: KLPGT FIT)

❖ **교육내용**

No	교육 과목	시간	교육영상 지원기관
1	안전 교육 - 심폐소생술	31분	한국응급처치교육원
2	스포츠 윤리교육 - 승부조작/불법도박	24분	한국프로스포츠협회
3	스포츠 윤리교육 - 음주운전/폭력	18분	
4	도핑방지 교육	47분	한국도핑방지위원회
5	마약 예방교육	14분	한국마약처치운동본부
6	성폭력 예방교육	57분	스포츠윤리센터
합계		191분	

❖ **온라인 의무교육 이수 조건 및 미 이수 시 제재**

1. 온라인 의무교육 이수 조건 : 총 6개 과목 100% 수강 시 이수

2. 온라인 의무교육 미 이수 시 제재사항 :

가) KLPGA 주최 및 주관 대회 참가 불가

나) KLPGA 임원, 대의원, 분과위원 등 입후보 등록 불가 및 투표권 제한

다) KLPGA 공인 이벤트 프로암 참가 불가

라) KLPGA 교육 참가 불가 등

❖ **온라인 의무교육 미 이수 시 제재 적용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회비 미납으로 인한 제명자 KLPGA 회원 복원 불가 안내

회비 관련 규정

KLPGA 정관	제2장(회원) - 제8조(회원의 의무) 2항 본 회가 정한 일정의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회원) - 제10조(회원의 제명)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KLPGA 상벌분과 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 제15조(징계기준) 제5항(제명) 가. 회원 관련 2) 회원 중 2회(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회비를 미납한 경우 3) 협회에 납부 및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납부 및 지급 기간을 기산하여 1년간 내지 않았을 경우	
회비 미납으로 인한 제명자 KLPGA 회원 복원 처리	2023년 1월 1일부터 회원 복원 불가	근거 2021년 KLPGA 제5차 이사회(2021.09.03)

※ 문의사항 : KLPGA 사무국 박인섭(02-560-4423)

위메이드 대상 포인트 우수 선수

'KLPGA 위메이드 대상포인트'는 월간 우수 선수에게 매달 100만 원, 시즌 종료 후 KLPGA 대상 수상자에게

2000만 원의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8월 메이저대회인 '한화 클래식 2024'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박지영은 8월에만

대상 포인트 180점을 획득하며 위메이드 대상 포인트 8월 MVP를 차지했다. 9월 MVP는 9월 메이저대회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 올린 유현조가 차지했다. 9월 대상 포인트 123점을 획득하며 우수 선수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8
AUGUST

8월 우수 선수 박지영

KLPGA투어 위메이드 대상 포인트와 상금 랭킹 1위로 올라선 박지영이 8월 MVP로 선정되었다. 박지영은 '한화 클래식 2024'에서 우승하며 포인트 100점을 따는 등 지난달 4개 대회에서 위메이드 대상 포인트 180점을 얻어 최고의 8월을 보냈다.



9
SEPTEMBER

9월 우수 선수 유현조

유현조는 KLPGA 메이저대회인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우승에서 100포인트, '대보 하우스디 오픈'에서 23포인트를 획득해 누적 9월 대상 포인트 우수 선수로 선정되었다. 유현조는 '위믹스 챔피언십'에 출전한다면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플레이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KLPGA TOUR NEWS



KLPGA, 주식회사 티과 함께 '제12회 티 채리티 오픈' 자선기금 전달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친환경 에너지 기업 주식회사 티(이하 티)과 함께 '제12회 티 채리티 오픈'의 자선기금을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KLPGA와 티은 7월 18일(목) 굿네이버스와 함께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자선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KLPGA와 티은 '제12회 티 채리티 오픈'을 통해 자선기금 5000만 원(KLPGA 2500만 원, 티 기부금 2500만 원)을 마련했다. 이번 자선기금은 굿네이버스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규투어 최종전 운영 방식 대폭 변경... 최종전만의 묘미 더한다?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이하 KLPGT)가 제6차 이사회를 통해 2024시즌 정규투어 시즌 최종전인 'SK텔레콤 · SK쉴더스 챔피언십 2024'의 참가 인원 및 상금 요율, 포인트 부여 방식 등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우선, 참가 인원이 기존 약 77명에서 60명이 됐다. 참가 자격 또한 '영구시드권 선수, 메이저 및 일반대회 우승 선수, 추천 선수, 직전 대회 종로 기준 상금 순위 70위까지'에서 '영구시드권 선수, 추천 선수, 직전 대회(S-OIL 챔피언십) 종로 기준 상금 순위 순'이 됐다. 최종전의 참가 인원 및 자격이 변경되면서 상금 순위에 따른 차기 시즌 시드권 확보 여부는 최종전 직전 대회인 'S-OIL 챔피언십'에서 결정된다.



'메디힐 제14회 KLPGA 회장배 여자아마골프 선수권 대회' 국가상비군 정지호 우승!

'메디힐 제14회 KLPGA 회장배 여자아마골프선수권 대회' 본선 마지막 날, 청소년부에 정지호(18, 학성초6)와 유소년부에 김가원(12, 만성초6)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정지호는 "회장배 대회에서 우승해 정말 기쁘다. 후반 첫 홀에서 보기를 기록하면서 2위와 동타가 돼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말하며 "그래도 바로 다음 홀에서 버디로 만회를 했고, 14번과 15번 홀에서 연속으로 버디를 잡아내면서 '우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경기를 돌아봤. 유소년부 우승을 차지한 김가원 역시 "KLPGA 회장배 대회에서 우승해 정말 기분이 좋다"고 우승 소감을 밝힌 뒤, "롤모델이 올 시즌 지금까지 3승을 한 박현경 선수인데, 나도 언젠가는 KLPGA투어에서 박현경 선수처럼 멋진 활약을 하고 싶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KLPGA 2024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 태국의 빠따랏 락따난 우승!

8월 16일(금), 태국 파타야에 위치한 피닉스골드 골프 앤 컨트리클럽의 마운틴(OUT), 오션(IN) 코스에서 4라운드 72홀 스트로크플레이로 치러진 'KLPGA 2024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이하 IQT)에서 태국의 빠따랏 락따난(21, 태국)이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처음으로 IQT에 참가한 빠따랏은 우승과 함께 2025 정규투어 시드권을 확보하게 됐다. 빠따랏은 "IQT에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출전해 정말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KLPGA 김정태 회장, IOC 선수위원 도전한 박인비에 격려 전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 김정태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에 도전한 박인비(36, KB금융그룹)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IOC 선수위원에 출마한 박인비는 8월 8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팔레 데 콩그레에 마련된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선수위원 투표 결과에서 후보자 29명 중 18위를 기록해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했다. 김정태 회장은 "IOC 선수위원을 향한 멋진 도전을 보여준 박인비 선수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면서 "비록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박인비 선수의 도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KLPGA, 그리티 '갬탄브라'와 공식 언더웨어 파트너십 체결!

9월 2일(월),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대표이사 이영미)가 KLPGA 발당에서 ㈜그리티(대표이사 문영우)의 언더웨어 브랜드 '갬탄브라'와 공식 언더웨어 파트너 협약 체결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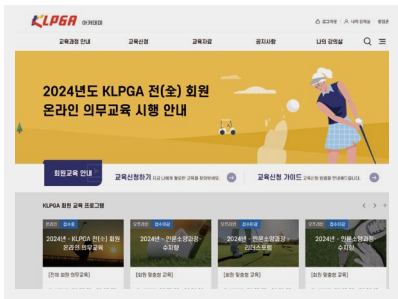
KLPGT, 성희롱 예방교육 및 정규투어 선수분과위원회 회의 진행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이하 KLPGT)가 지난 8월 29일(목), '제13회 KG 레이디스 오픈'이 열리는 씨닝포인트 컨트리클럽에서 '성희롱 예방교육'과 정규투어 선수분과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KLPGT는 스포츠윤리센터 오혜영 전문 강사를 초청해 대회 중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및 성희롱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선수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을 마련했다. 성희롱 예방교육 후에는 본격적인 정규투어 선수분과위원회 회의가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코스 운영, 대회 규정, 복장, 부정행위 대응 등과 관련해 선수분과위원회와 KLPGT가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시즌 KLPGA투어 상금왕 이예원, 성남 동광중에 재능기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8월 8일(목), 지난 시즌 상금왕인 이예원(21, KB금융그룹)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동광중학교에서 재능기부 프로그램 'KLPGA with YOU'를 진행했다. 이예원은 "유소년 레슨을 처음 해봐서 걱정도 했지만, 학생들이 실력도 좋고 잘 따라와줘서 뿌듯했다"라는 참가 소감을 전했다.



KLPGA, 전(全) 회원 대상 온라인 의무교육 시행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2024년 9월부터 KLPGA 아카데미 홈페이지(<https://edu.klpga.co.kr>)에서 전(全)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무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온라인 의무교육은, 안전 교육(심폐소생술), 스포츠 윤리 교육(승부 조작 및 불법 도박, 음주운전 및 폭력), 도핑 방지 교육, 마약 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등 총 6개 과목 19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KLPGA, 제노플랜코리아와 공식 유전자검사 서비스サプライ어 협약 체결!

9월 4일(수),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대표이사 이영미)가 제노플랜코리아(대표이사 강병규)와 KLPGA 발당에서 공식 유전자검사 서비스サプライ어 협약 체결 조인식을 가졌다.

2024시즌 더욱 빨라진 KLPGA투어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이하 KLPGT)는 '2024시즌 KLPGA투어'의 상반기 경기 속도가 지난 시즌 상반기 대비 약 19분 빨라졌다고 밝혔다. KLPGT는 올 시즌부터 플레이 속도위반에 관한 페널티 규정을 강화했다. 플레이 속도위반에 대한 페널티 규정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배드 타임을 부과한 결과, 2023시즌 5시간 17분이었던 상반기 평균 플레이 속도가 올 시즌 상반기에는 4시간 58분으로 약 19분(약 6%) 단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지영, 생애 최초 K-랭킹 1위 등극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T)는 박지영(28, 한국토지신탁)이 KLPGA투어만의 독자적인 랭킹 시스템인 K-랭킹에서 처음으로 1위에 등극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지영은 2024시즌 상금 순위, 위메이드 대상 포인트, K-랭킹까지 모두 1위에 오르게 됐다. 박지영은 "투어 10년 차에 통산 10승, 시즌 상금 10억 원 돌파를 이뤄 이번 해가 정말 특별하다. K-랭킹도 1위에 오르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다"면서 "꾸준한 활약을 통해 K-랭킹 1위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KLPGA TOUR NEWS

DREAM TOUR



**‘KLPGA 2024 드림투어 with 크라운 8차전’
국가대표 출신 박예지, 드림투어 첫 우승!**
‘KLPGA 2024 드림투어 with 크라운 8차전’(총상금 7000만 원, 우승 상금 1050만 원)에서 박예지(19, KB금융그룹)가 드림투어 첫 우승을 차지했다.
박예지는 “올 시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는데, 생각처럼 잘 안돼서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했다”면서 “이번 대회 때 원하는 플레이가 나오면서 우승까지 하게 돼 남은 시즌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KLPGA 세기P&C·군산CC 드림투어 2024 9차전’
한빛나, 드림투어 첫 우승!**
‘KLPGA 세기P&C·군산CC 드림투어 2024 9차전’(총상금 7000만 원, 우승상금 1050만 원)에서 한빛나(25, 아이브리지닷컴)가 드림투어 첫 우승을 일궈냈다. 한빛나는 “다른 드림투어 선수보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안되나 싶었지만, 끝까지 열심히 하니 우승이 따라온 것 같다. 선두와 타수 차가 컸기 때문에 큰 기대 없이 마지막 라운드에 임했는데, 오히려 마음을 비우니 더 잘됐고, 17번 홀을 버디로 마무리하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KLPGA 2024 SBS골프·크리브나인 드림투어 with 이지스카이CC 10차전’ 이지현3, 입회 8년 만에 첫 우승!
‘KLPGA 2024 SBS골프·크리브나인 드림투어 with 이지스카이CC 10차전’(총상금 7000만 원, 우승 상금 1050만 원)에서 이지현3(26, 비비안)가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지현3는 “오늘 경기에 집중하다 보니 마지막 홀이 끝나고 나서야 우승했다는 걸 알았다”면서 “드림투어에서 준우승만 4번 했었는데, 이렇게 첫 우승을 하니 기분이 묘하면서도 정말 기쁘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KLPGA 2024 무안CC·올포유 드림투어 11차전’
이재윤, 드림투어 통산 2승 달성!**
‘KLPGA 2024 무안CC·올포유 드림투어 11차전’(총상금 1억 원, 우승 상금 1500만 원)에서 이재윤(24, 삼천리)이 우승을 차지했다.
2019년 ‘KLPGA 2019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에서 생애 첫 우승을 한 이재윤은 “다시 우승하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동안 정말 힘들어서 골프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다”면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힘든 시기를 이겨낸 것 같아 스스로 대견하고 정말 행복하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KLPGA 2024 모나크CC·Oracle 드림투어 13차전’
I-TOUR 회원 유다겸, 드림투어 첫 우승!**
‘KLPGA 2024 모나크CC·Oracle 드림투어 13차전’(총상금 7000만 원, 우승 상금 1050만 원)에서 미국 국적의 인터내셔널투어 회원(이하 I-TOUR 회원) 유다겸(23, 퍼시픽링크코리아)이 우승을 차지했다. 유다겸은 “우승을 노리기보다는 톱3 안에만 들자는 생각으로 플레이했다”면서 “1라운드로부터 아이언 샷이 잘 따라줘서 버디 찬스가 많았다. 덕분에 타수를 많이 줄이고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KLPGA 2024 더헤본 마스터즈 드림투어 with SBS골프 12차전’ 김효문, 드림투어 통산 2승 달성!
‘KLPGA 2024 더헤본 마스터즈 드림투어 with SBS골프 12차전’(총상금 1억 원, 우승 상금 1500만 원)에서 김효문(26)이 우승을 차지하며 2024시즌 드림투어 첫 다승자로 등극했다.
지난 ‘KLPGA 2024 무안CC·올포유 드림투어 2차전’에서 입회 8년 만에 생애 첫 승을 거둔 김효문은 “올해 목표했던 드림투어 2승을 달성해 정말 기쁘다. 첫 우승 때는 마지막 세 홀에서 공을 어떻게 쳤는지 모를 정도로 떨렸는데, 오늘은 편하게 플레이했다”며 우승 소감을 전했다.



‘KLPGA 2024 군산 드림투어 14차전’ 송은아, 드림투어 시즌 2승 달성!
‘KLPGA 2024 군산 드림투어 14차전’(총상금 7000만 원, 우승 상금 1050만 원)에서 송은아(22)가 우승을 차지했다.
송은아는 “올 시즌에 한 번 더 우승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연습했다”면서 “특히, 이번 대회를 앞두고 부족했던 쇼트게임을 집중적으로 훈련한 것이 우승에 큰 원동력이 됐다. 모든 플레이가 조화롭게 이뤄져서 만족스러운 하루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KLPGA 2024 서울제약·큐캐피탈파트너스 드림챌린지 15차전’ 권서연, 연장 접전 끝에 드림투어 통산 3승 달성!
‘KLPGA 2024 서울제약·큐캐피탈파트너스 드림챌린지 15차전’(총상금 7000만 원, 우승 상금 1050만 원)에서 권서연(23, 우리금융그룹)이 우승을 차지했다.
권서연은 우승 후 “16번 홀에서 공동 선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우승에 대한 욕심 없이 한 샷 한 샷에 집중해 플레이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아직도 얼떨떨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KLPGA 군산CC·세기P&C 드림투어 2024 16차전’ 윤수아, 생애 첫 드림투어 우승!
‘KLPGA 군산CC·세기P&C 드림투어 2024 16차전’(총상금 8000만 원, 우승 상금 1200만 원)에서 윤수아(22, 파마리서치)가 생애 첫 드림투어 우승을 일궈냈다.
윤수아는 “사실 우승에 대한 갈망이 정말 컸다. 최근까지 ‘내가 우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아 힘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기다리던 생애 첫 우승으로 스스로를 이겨내고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아 기쁘고 행복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CHAMPIONS TOUR



‘KLPGA 2024 SBS골프 챔피언스 투어 with 이지스카이 CC 3차전’ 홍진주, 챔피언스투어 18홀 최스타 기록 경신하며 3개 대회 연속 우승 달성!
‘KLPGA 2024 SBS골프 챔피언스 투어 with 이지스카이 CC 3차전’(총상금 1억 원, 우승 상금 1500만 원)에서 홍진주(41)가 3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홍진주는 “목표였던 3승이 이렇게 빨리 나올지 정말 몰랐다”고 입을 열며 “오늘 샷은 만족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실수가 없었다. 버디 찬스를 퍼트로 잘 잡아 좋은 성적을 내며 우승까지 하게 돼 기쁘고 행복하다”는 우승 소감을 전했다.



‘KLPGA 2024 SBS골프 챔피언스 투어 with 이지스카이 CC 4차전’ 최혜정, 챔피언스투어 최스타 우승 타이 기록으로 시즌 3승 달성!
‘KLPGA 2024 SBS골프 챔피언스 투어 with 이지스카이 CC 4차전’(총상금 1억 원, 우승 상금 1500만 원)에서 최혜정(40)이 시즌 3승을 달성했다.
최혜정은 “기다림 끝에 보람이 있다. 꾸준히 노력한 덕분에 이지스카이 컨트리클럽에서도 우승해 기쁘다”면서 “이번 우승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KLPGA 챔피언스 클래식 2024 3차전’
그린부 임은아, 골드부 김미순 우승!**
‘KLPGA 챔피언스 클래식 2024 3차전’에서 그린부는 임은아(41)가, 골드부는 김미순(55)이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직후 임은아는 “우승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너무 기쁘고, 다른 선수들이 응원하고 축하해줘서 더 감동적이었다”며 “어제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는데, 오늘은 샷 감도 좋았고, 특히 9m 안쪽의 중거리 퍼트가 잘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경기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KLPGA TOUR NEWS



‘KLPGA 2024 솔라고 점프투어 9차전’ 아마추어 이지민, 첫 출전 대회에서 우승!
‘KLPGA 2024 솔라고 점프투어 9차전’(총상금 3000만 원, 우승 상금 450만 원)에서 아마추어 이지민(18)이 점프투어 첫 출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지민은 “아마추어 대회에서도 우승한 적이 없었는데, 점프투어에서 처음으로 우승하게 돼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라면서 “KLPGA 대회에 처음 출전해서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게 플레이했더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KLPGA 2024 솔라고 점프투어 10차전’ 유다인, 입회 7년 만에 생애 첫 우승!
‘KLPGA 2024 솔라고 점프투어 10차전’(총상금 3000만 원, 우승 상금 450만 원)에서 유다인(26)이 입회 7년 만에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준회원으로 입회한 지 7년 만에 우승을 거둔 유다인은 “드디어 우승했다. 기분이 너무 좋다”면서 “그래도 너무 들뜨지 않고 이번 차전 남은 대회에 집중해서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덤덤하게 소감을 전했다.



‘KLPGA 2024 그랜드·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13차전’ 국가상비군 출신 서지은, 점프투어 첫 출전 대회에서 우승!
‘KLPGA 2024 그랜드·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13차전’(총상금 3000만 원, 우승 상금 450만 원)에서 국가상비군 출신 실력파 기대주 서지은(18)이 점프투어 첫 출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서지은은 “첫 출전에서 우승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부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 같아 만족스럽다”며 “항상 스스로를 믿으라고 응원해준 엄마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우승할 수 있었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KLPGA 2024 솔라고 점프투어 11차전’ 유채승, 생애 첫 우승!
‘KLPGA 2024 솔라고 점프투어 11차전’(총상금 3000만 원, 우승 상금 450만 원)에서 유채승(20)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준회원으로 입회한 지 1년 만에 우승을 이룬 유채승은 “마지막 홀을 보기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우승은 어렵겠다고 생각했는데, 홀아웃할 때 선수들이 물병을 들고 있어서 그때 우승을 실감했다. 정말 짜릿한 순간이었다”면서 “올해 목표가 정규투어에 진출하는 건데, 이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서 기쁘다”고 벅찬 소감을 전했다.



‘KLPGA 2024 그랜드·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14차전’ 장소희, 입회 4년 만에 생애 첫 우승!
‘KLPGA 2024 그랜드·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14차전’(총상금 3000만 원, 우승 상금 450만 원)에서 장소희(23)가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장소희는 “전반에 타수를 줄이지 못해 우승이 쉽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후반에 4연속 버디를 잡고 17번 홀에서 롱 퍼트를 성공하면서 오늘은 나의 날이라 느꼈다.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집중해 좋은 결과를 얻어 만족스럽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KLPGA 2024 솔라고 점프투어 12차전’ 오승, 생애 첫 우승!
충남 태안에 위치한 솔라고 컨트리클럽(파72/6,313야드) 솔-아웃(OUT), 솔-인(IN)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4 솔라고 점프투어 12차전’(총상금 3000만 원, 우승 상금 450만 원)에서 오승(23)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오승은 “최종라운드에서 기회를 많이 살리지 못해 우승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스스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마무리했다고 다독이고 있었는데, 18번 홀에서 선수들이 물을 들고 있었다. 그때 우승했다는 걸 알았고,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KLPGA 2024 그랜드·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15차전’ 서지은, 시즌 2승 달성!
‘KLPGA 2024 그랜드·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15차전’(총상금 3000만 원, 우승 상금 450만 원)에서 서지은(18)이 우승하며 시즌 2승을 달성했다. 서지은은 “13차전에 이어 한 번 더 우승해서 정말 기분 좋다. 남은 차전에서도 안 다치고 좋은 성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켈피TV 핫 프로그램 가이드

선수들의 필드 위 모습이 아닌 꾸미지 않은 모습 그대로를 만날 수 있는 시간. 경기 후 생생한 후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켈피TV와 함께해보세요.



tv.naver.com/klpgatv
www.youtube.com/@klpgatour

2024 MEMBER'S SERVICE KLPGA 회원을 위한 혜택

KLPGA 회원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소개합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문의 KLPGA 사무국 차지혜 과장 (02-560-4426 chajh@klpga.com)

01 골프장

● **센추리21 CC**
기간 2016년 11월 ~
혜택 KLPGA 정회원 그린피 할인: 95,000원(주중)
※4인 1팀 기준, KLPGA 회원 1인 혜택 적용, 단, 센추리 21 CC 회원 동반 시 상기 할인 혜택은 제공되지 않음.
이용방법 예약실을 통한 예약 시 혜택 적용
대표문의 033-733-1000
홈페이지 www.century21cc.co.kr
주소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말길 193

● **힐드로서아 CC**
기간 2020년 4월 ~
혜택 주중 8시 이전 4인 1팀 내장 시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1인 그린피 면제(동반자 인터넷 회원가입 필수, 타 이벤트 할인 중복 적용 불가)
이용방법 힐드로서아 CC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예약, 방문 시 KLPGA 회원증 제시
대표문의 033-439-3333~4
홈페이지 https://www.hilldeloci.co.kr
주소 강원도 홍천군 남면 한서로 2840

● **리앤리 컨트리클럽**
기간 2013년 5월 ~
혜택 KLPGA 회원 1명 + 동반자 3명(4인 1팀 기준) 내장 시, 30,000원 할인(주중만 가능, 주말은 불가)
대표문의 031-580-9000
홈페이지 www.leenleccc.co.kr
주소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정계로 702-24

● **베어크리크 포천**
기간 2017년 5월 ~
혜택 ① 정회원 : 4인 1팀 내장 시, 최대 2명 그린피 50% 할인 ② 준회원 : 4인 1팀 내장 시, 최대 2명 그린피 20% 할인(단, 베어크리크GC 인터넷 유료회원 가입必) ※ 주말 / 공휴일은 할인 불가
이용방법 예약 시 KLPGA 회원임을 밝히고 회원증 또는 증명서류 제시
대표문의 1899-0115
홈페이지 www.bearcreek.co.kr
주소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달인동로 35

● **서원힐스**
기간 2015년 6월 ~ **혜택** ① 4인 1팀 내장 시, KLPGA회원 1인 그린피 50% 할인(KLPGA 회원 2명 이상이어도 KLPGA 회원 1명에게만 적용) ② 서원 프렌즈로 자동 가입 후 타석 및 숯게임장 할인 ~ KLPGA 회원 : 5% 할인 ③ 연습장 입점 아카데미 소속 선수 중 KLPGA 정회원 또는 준회원 입회(승격)한 자의 한하여 라운드, 연습장, 숯 게임장 무료. - KLPGA 정회원 : 2개월 - KLPGA 준회원 : 1개월 ※ 단, 그린피 할인 행사보다 제휴요금이 낮은 경우 할인행사 요금 적용
대표문의 031-941-0025, 031-940-9400
홈페이지 www.seowongolf.co.kr
주소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산48-1

● **대영힐스 CC**
기간 2012년 12월 ~
혜택 4인 1티 기준, 주중에 한하여 KLPGA 회원에 한해 그린피 50% 할인 (1팀 당, 1명 할인 적용)
이용방법 내장 시 KLPGA 회원카드 제시 필수
대표문의 043-850-8601~3(예약실)
홈페이지 www.dyhills.basccc.co.kr
주소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성충두당길 114

● **마른뉴데이 CC**
기간 2021년 8월 ~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할인 혜택 주중 : 165,000원 주말 : 225,000원
이용방법 ① 마른뉴데이 골프장 인터넷 회원

가입 ② 온라인 예약 ③ 내장 시 회원카드 확인
대표문의 041-623-5500
홈페이지 https://maronnewday.com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복면 남안5길 74

● **롯데스카이힐 부여**
기간 2021년 8월 ~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KLPGA 회원에 한해 그린피 할인 - 주중 : 50% 할인 - 주말 : 30% 할인
이용방법 KLPGA 회원카드 지참 및 제시 필수
대표문의 041-939-1701~4
홈페이지 www.lotteskyhill.com
주소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 35-1

● **드비치골프클럽**
기간 2021년 8월 ~
혜택 주중 그린피 140,000원(부에 한함)
이용방법 ① 사전에 예약실로 문의하여야 함. ② 드비치골프장 입장 시, 프런트에서 회원증 확인 및 방문록 작성
대표문의 055-736-3000
홈페이지 debeach.co.kr
주소 경남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573

● **문경 GC**
기간 2021년 2월 ~
혜택 4인 1팀 기준, 주중에 한하여 KLPGA 회원 1인만 적용 - KLPGA 정회원 : 그린피 면제 - KLPGA 준회원 : 그린피 50% 할인
이용방법 내장 시, 프런트에서 회원카드 제시 (미 확인 시, 할인 불가)
대표문의 054-550-5000
홈페이지 www.mgle.co.kr
주소 경북 문경시 문경골프장길 240

● **블루윈 상주 골프리조트**
기간 2015년 1월 ~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4인 1팀 기준, 주중에 한하여 KLPGA 회원 1인만 50% 할인
이용방법 내장 시, 프런트에서 회원카드 제시 (미 확인 시, 할인 불가)
대표문의 1899-1888
홈페이지 www.blueone.com
주소 경북 상주시 모서면 화현3길 127

● **캐슬렉스 제주 CC**
기간 2015년 4월 ~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그린피 할인 - 주중 : 70,000원, 주말 : 90,000원
이용방법 예약실 통해서 회원가 적용 가능 / 일반 부킹사이트 적용 불가
대표문의 064-793-6600
홈페이지 www.castlexjl.com
주소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1241

● **해비치 CC**
기간 2014년 4월 ~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주중에 한하여 그린피 10% 할인
이용방법 예약실을 통해 사전 예약 및 문의 후 이용
대표문의 064-766-6200
홈페이지 www.haevichi.com
주소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산 30번지

● **코럴오션리조트 사이판**
기간 2014년 4월 ~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① KLPGA 회원 MRI 호텔 투숙 시, 코럴 오션 골프장 그린피 할인- FIT 가격 기준 40% 할인(성수기)~50% 할인(비수기) ※ MRI 그룹 : 코럴 오션 리조트, 캔싱턴 호텔 사이판,

PIC 리조트 사이판 ② 동반 플레이어가 3인 이상 코럴 오션 골프장 예약하는 경우, KLPGA 회원 본인에 한해 18홀 금액으로 무제한 플레이 ※ 상기 혜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이용방법 예약 시점, 회원가 적용을 위한 KLPGA 공식 회원증 제출 필수, 예약 시, 메일발송 : reservation@mrisaipan.com, jung_dami01@eland.co.kr (라운드 인원 수, 성향/연락처, 라운드 일자/티오프 시간, KLPGA 회원증 사진, MRI호텔 투숙 시, 그린피 할인을 위한 호텔명과 예약번호 기재)
대표문의 070-5168-4913
홈페이지 www.coralcoceansaipan.com
주소 P.O. Box 501160, Saipan, Northern Mariana Islands

● **가야CC**
기간 2024년 9월~
혜택 정/준회원 그린피 할인(일, 주말/공휴일에 적용) 정회원 67,000원, 준회원 80,000원(비회원 3인 동반 시)
대표문의 055-337-0091
홈페이지 https://www.gayacc.com
주소 경남 김해시 인제로 502

● **대구CC**
기간 2024년 9월~
혜택 정회원 그린피 할인 ① 대구, 경북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KLPGA 정회원에 한하여 평일 1/2부에 적용(60,000원) ② 주말은 비회원 정상요금으로 세금만 제외함 ③ 타지역 정회원의 경우, 세금만 제외함
대표문의 053-859-5277
홈페이지 https://www.daegucc.co.kr
주소 경북 경산시 진량읍 일연로 718-42

● **보성CC**
기간 2024년 9월~
혜택 정회원 그린피 할인 ① 평일, 주말(일/요일), 공휴일 본인 1인 운영요금에서 2만원 할인(KLPGA 회원증 또는 증명서류 확인 후 본인 1인 포인트 결제 시 한정적용) ② 선결제 및 패키지 예약 간 이용 불가 ③ 온라인 예약 및 전화예약 후 현장결제 적용으로만 가능
대표문의 061-804-1000
홈페이지 https://www.bosungcc.co.kr
주소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조성3길 338

02 골프연습장

● **아반컨트리클럽**
기간 2024년 5월~2025년 12월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① 음료/주류 제외 전 메뉴 30% 할인 ② 첫 방문 시, 최대 1개 식사 1천원
이용방법 ① 회원증 또는 명함 제시 ② 네이버 영수증 리부 필수 ※ 중복할인 불가
대표문의 010-2959-6669
홈페이지 @urbancc.official(인스타그램)
주소 경기 남양주 다산 중앙로153, 218호

● **백아드**
기간 2022년 10월 ~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① KLPGA 무료(숯게임(55분),1회) ② 동반(레슨)입장 시, 동반객은 정상요금
이용방법 ① 네이버 예약으로 예약 ② 입장 시, KLPGA 회원확인(모바일 회원카드, 홈페이지) 검색 후 이용
대표문의 031-620-1106
홈페이지 @backyard.official(인스타그램)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131, B1

● **J.NOVIUM GOLF STUDIO**

기간 2019년 5월 ~
혜택 ① KLPGA 회원 트랙맨 스튜디오 할인(트랙맨이 세팅된 개인연습공간 제공) ② KLPGA 회원 1시간무료 연습가능 * 1시간 이후, 21,000원에 이용
이용방법 우선 예약 후, 당일 취소 불가
대표문의 031-989-8778
홈페이지 https://j-novum.com
주소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83-4, 9층

● **더 프라자 골프 스튜디오**
기간 2017년 2월 ~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① 교육 및 세미나 : 무료(10회 / 1개월) ※ 단, 09시~12시, 18시~23시만 가능 ② 첫 고객 레슨 : 무료(프로 1명당 회원 5명까지) - 신규매장에 한함(3개월까지) ③ 영상(YouTube 촬영) : 무료 ※ 단, 18시 ~ 23시/주말,공휴일에 한함 ④ 정규투어 시드권자 및 시드우선 순위자 개인연습 : 무료(2시간/1일) 단, 정규투어 시드권자 및 시드우선 순위자 확인 후 혜택 이용 ⑤ 투어프로 및 프로 개인연습 : 1만원 할인 / 1시간
이용방법 사용 전, 본사(삼성점) 및 해당 지점에서 가능 여부 확인 후 예약해야함. **지점** (서울) 신사점, 학동1호점, 청담점, 한남점, 옥수점, 여의도점, 삼성점, 잠실점, 독성점 (부산) 센텀시티점 <경>아 동탄점, 정자점, 판교점
대표문의 02-6949-6736(삼성점)
홈페이지 https://thelazagolf.com

● **TGX 골프아카데미**
기간 2023년 11월 ~
혜택 아카데미/스튜디오 골프타석 할인 ① 일일권 50% 할인 - 아카데미(6,500원/주중, 15,000원/주말) - 스튜디오(25,000원 / 주중, 주말) ② 정기권 30% 할인 ③ 쿠폰 20% 할인
이용방법 HAPPY HOUR 시간 제외
대표문의 02-6490-9455
홈페이지 https://www.tgxgolf.co.kr/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몰 B2

● **골프플래닛**
기간 2024년 06월 ~
혜택 ① 타석/스투이어 사용 : 무료 ② 기어스 스윙데이터 : 연 1회 무료 ③ 피트니스/필라테스 : 50% 할인 ④ 피팅분석 : 연 2회 무료 ⑤ YOUTUBE 촬영 대관 : 연1회 제공
이용방법 사전 예약 필수 및 KLPGA 회원카드 제시
대표문의 02-553-5550
홈페이지 https://www.golfplanet.kr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로 7길 17, B1

● **캘러웨이 아웃도어 퍼포먼스센터**
기간 2019년 9월 23일 ~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 퍼팅상당(55,000원) 후 연습장 1시간 무료 이용 * 연습장 이용 : 22,000원 / 1시간 (드라이빙레인지, 퍼팅그린, 벙커)
이용방법 캘러웨이골프 홈페이지에서 KLPGA 회원 인증 및 예약 진행 후 이용
대표문의 031-631-4643
홈페이지 www.callawaygolfkorea.co.kr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64 캘러웨이골프 이천 아웃도어 퍼포먼스센터(사우스 스프링스CC 내)

● **캘러웨이 아웃도어 퍼포먼스센터**
기간 2019년 9월 23일 ~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 퍼팅상당(55,000원) 후 연습장 1시간 무료 이용 * 연습장 이용 : 22,000원 / 1시간 (드라이빙레인지, 퍼팅그린, 벙커)
이용방법 캘러웨이골프 홈페이지에서 KLPGA 회원 인증 및 예약 진행 후 이용
대표문의 031-631-4643
홈페이지 www.callawaygolfkorea.co.kr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64 캘러웨이골프 이천 아웃도어 퍼포먼스센터(사우스 스프링스CC 내)

03 골프용품

● **폴스윙 코리아**
기간 2024년 5월~2025년 12월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폴스윙 키트 레슨패키지 - 구성 : 폴스윙키드+아이패드+Onform 1년 구독 - 가격 : 8,190,000원(100만원 할인)
이용방법 KLPGA 회원임을 밝혀야 함
대표문의 폴스윙 코리아(02-555-4653)
폴스윙코리아 인스타그램 DM발송
홈페이지 https://www.fullswinggolf.k
주소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39, 3층

● **미즈노**
기간 2024년 6월~
혜택 드라이버, 우드, 하이브리드, 아이언 40~50%, 웨지, 파터 50%, 스탠드백, 골프화 60%, 골프장갑, 볼 70% 할인 적용 ※ 단, 각 제품 별 연간 구매 수량 제한 있음.
이용방법 ① 미즈노 본사 담당자 문의 : 02-6360-0221 ② 미즈노 퍼포먼스 통합센터 문의 : 02-543-6997 ※ 상기 두곳에서만 가능하며, 문의 시 KLPGA 회원임을 밝힌 후 KLPGA 회원카드/회원증 또는 KLPGA 홈페이지/어플에서 조회되어야 함.
홈페이지 https://corpkr.mizuno.com/
주소 서울 마포구 삼산대로 76, 13층

● **3P 골프**
기간 2017년 7월 ~
혜택 골프그림 세척다운 '체커다',골프발판스 연습용 패드'실스탤' 등 홈페이지 전 상품 50% 할인
이용방법 ① 3P골프 홈페이지(http://www.3pgolf.com)접속 후 회원가입 ② 본사로 전화(02-333-3840)하여 본인 인증 후, KLPGA회원으로 등급변경 ③ 공식 홈페이지에서의 총 결제금액의 50%만 결제 ④ 모든 상품은 체커다 공식 홈페이지 또는 본사 유선상 구입에만 적용
대표문의 02-333-3840(영정에 실장)
홈페이지 http://www.3pgolf.com
주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9, 1102호

● **범양글러브**
기간 2016년 8월 ~
혜택 프로급과 준용 특가를 - 최대 80% ※ 단, 상품별 할인율은 상일할 수 있음
이용방법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후 1대1 문의 게시판에 KLPGA 회원번호 남기기 - 프로회원 특가를 접속 권한 부여 - 프로회원 특가를 사이트에서 할인 구입
대표문의 02-714-4403
홈페이지 http://www.kglove9.com
주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7가 184-4, 605호

● **보이스캐디**
기간 2019년 2월 ~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보이스캐디 거리측정기 약 40%할인
이용방법 ① 보이스캐디 주문신청서 다운로드(KLPGA 홈페이지에서 확인) ② KLPGA@vcin.co.kr 로 신청서 발송

③ 지정된 계좌번호로 입금 후 제품 택배 수령 ※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은 신청서 작성 시, 비교란에 내용 기입 ※ 카드결제를 원할 경우, 본사 내방시 결제 가능
대표문의 1577-2862
홈페이지 www.voicecaddie.co.kr
주소 서울 서초구 매훈로16, 4층

● **타미카퍼**
기간 2016년 2월 ~
혜택 타미카퍼 전문목 30%할인 ※ 단, 정상 소비자가 대비 ※ 연간 개인 한도 200만원
이용방법 ① 타미카퍼 홈페이지 구매시만 혜택적용 ② 타미카퍼 홈페이지(www.tommiecopper.co.kr) 접속 후, 회원가입 ③ 카카오톡에서 타미카퍼 친구 추가 후, 타미카퍼ID와 KLPGA 회원번호 발송 ④ KLPGA 회원전용등급으로 변경 후 구입 ※ 포인트 적립 불가 / 기타 할인 및 프로모션 쿠폰 중복 적용 불가
대표문의 070-4277-3134
홈페이지 www.tommiecopper.co.kr
주소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15길 26, 210호

● **REVO**
기간 2016년 6월 ~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30% 할인
이용방법 REVO 공식 홈페이지(http://www.revokorea.com)로 이동 - 상품 선택 후, 대표번호(02-571-1800)으로 연락 - 구매 요청 시, 이름 / 회원번호 / 연락처 전달 -> 결제(무통장 입금) 확인 후 상품 발송
대표문의 02-571-1800
홈페이지 www.revokorea.com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길 70, 4층

● **SR30**
기간 2018년 5월 ~
혜택 KLPGA 전체 회원 대상 SR30 통통형 글러브 50% 할인 ※ 단, 회원 인당 2회까지 20대 가능
이용방법 ① 본사 대표번호(062-671-5447)로 구매 ※ 본사 단독 진행으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적용되지 않음 ② KLPGA 회원임을 증명해야 함
대표문의 062-671-5447
홈페이지 www.SR30.com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로 49번길 34

● **SYNLAWN(골프잔디)**
기간 2022년 2월 ~
혜택 프라이빗! 골프연습장 무료 컨설팅 ① 스튜디오(퍼팅, 타석 등) 구성 인조잔디(타석, 퍼팅, 러프) 10%할인 ※ 총 30베베이션 추가 5%할인 ※ 총 50베베이션 추가 10%할인
이용방법 협회 회원임을 증명해야함.
대표문의 010-7196-4838
홈페이지 https://synlawnkorea.com/putting-greens/
주소 서울 강남구 선릉로 138길 18, 1~2층

04 골프의류

● **페어리이어**
기간 2024년 5월~2025년 4월
혜택 전 제품 40% 할인(최초 소비자가) ※ 한도 : 1인당 300만원/연※ 마일리지 및 행사쿠폰 적립불가 ※ 정해진 자점내에서 교환 가능, 환불 불가
이용방법 ①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및 플래그십스토어 도산점에서만 이용가능 ② KLPGA 회원임을 알리고, KLPGA 회원카드 제시/본인 인증 후 할인 적용 ③ 현장에서 당일 구매건은 본인에 한하여 할인 ④ 타 프로모션 및 쿠폰 중복 적용 불가
대표문의 02-953-4337
홈페이지 https://www.fairliar.com/

● **가스텔바작**
기간 2016년 6월 ~
혜택 KLPGA 회원 대상 전문목 30% 할인 (1인 1회 한도 100만원) ※ 마일리지 적립 불가, 기타 할인 및 판촉행사 금액권 중복적용 불가
이용방법 ① 패سن그를 형지 가스텔바작 회원 가입 시, 적용 ② 백화점 및 프리미엄아울렛을 제외한 전국 대리점 및 직영점 대상으로 함
대표문의 02-3498-0401
홈페이지 www.castelbajackkorea.com

● **대상트골프, 르코프골프, 멘싱웨어**
기간 2022년 7월 ~
혜택 대상트코리아 공식 온라인몰 골프브랜드(대상트 골프, 르코프 골프, 멘싱웨어) 30% 할인(이월상품 제외) ※ 연간 소비자가 300만원 이내 (매년, 1월 1일에 사용금액 갱신됨)
이용방법 ① 대상트 코리아 공식을 회원가입 (https://shop.descentekorea.co.kr/DESCENTEGOLF/event/detail/59848) ② D/ 성함을 본사 담당자 이메일(eunsoo@descente.co.kr)로 발송 ③ 본사 담당자가 협회 사이트에서 회원 여부 확인 후 일주일 이내 혜택 부여 ④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KLPGA VIP 등급 및 한도 확인
대표문의 070-7733-9002
홈페이지 https://upperstop.com

● **레노마골프**
기간 2017년 4월 ~
혜택 KLPGA 회원 대상 신상품 30% 할인 ※ 정상 소비자가격(TAG 부착 가격)한함 ※ 연 500만원/1인 한도 ※ 주요도시 정상대리점에서만 가능, 상설대리점 제외
대표문의 02-2211-6921(오지원 주임)
홈페이지 http://www.renomasports.co.kr/
이용방법 구매 시, 고객등록(성명, 회원번호, 연락처 기입) 및 문자인증 절차 필요

● **바이스골프**
기간 2023년 11월 ~
혜택 전 품목 30% 할인 ※ 전국 바이스골프 오프라인 정상매장 (온라인몰, 아울렛 제외)에 한함 ※ 연간 한도 : 정회원 - 1000만원, 준회원-700만원, 티칭회원-500만원(TGA가격 기준)
이용방법 매장 방문 시, KLPGA 회원증 제시 및 할인 구매 양식 작성 제출
대표문의 1833-4354
홈페이지 vicesgolf-korea.com

● **아디다스골프(골프존마켓 입구정점)**
기간 2020년 7월 ~
혜택 전 품목 30% 할인
대표문의 02-516-4161
이용방법 아디다스 골프 골프존입구정점 방문 시, KLPGA 회원증 지참(본인에 한함)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72

● **어뉴골프**
기간 2023년 11월 ~
혜택 전 품목 30% 할인(신규가입 및 프로모션 할인 중복불가) ※ 전국 어뉴골프 오프라인 정상매장(온라인몰, 아울렛 제외) ※ 연간 한도: 정회원 - 1000만원, 준회원-700만원, 티칭회원-500만원(TAG가격 기준)
이용방법 매장 방문 시, KLPGA 회원증 제시 및 할인 구매 양식 작성 제출
대표문의 1833-4354
홈페이지 https://www.anewgolf.com/

● **어퍼스트름**
기간 2023년 4월 ~
혜택 ① 어퍼스트름 골프라인 70%, 캐주얼라인 50% 할인(한도 : 1인당 500만원/월) ② 스컬피그 판매가의 20%할인 제공, 정가의 최대 85%할인
이용방법 ① 어퍼스트름(https://upperstop.com/)스컬피그(https://skulpig.com/) 공식을 회원가입 ② 자사를 게시판에 KLPGA 회원증빙서류 제출 ③ 본사 담당자가 회원 여부 확인 후 일주일 이내 혜택 부여 ④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KLPGA VIP 등급 및 한도 확인
대표문의 070-7733-9002
홈페이지 https://upperstop.com

● **톨비스트**
기간 2019년 4월 ~
혜택 신상품 30% 할인(TGA가격 기준) (한도 : 1인당 100만원/월) ※상품권, 할인권 중복 사용 불가
이용방법 KLPGA 회원 제시 및 회원 가입후 할인 구매
대표문의 02-3456-9196
홈페이지 www.torlist.co.kr

SERVICE INFORMATION

숯게임힐스

기간 2022년 10월 ~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① 2시간 입장으로 결제 시, 1일 무제한 연습 가능 - 주중 : 30,000원 - 주말 : 35,000원 ② KLPGA 회원이 레슨으로 손님 3명 이상과 이용 시, 무료 ③ 숯게임힐스 이용 시, 바베크 무료
이용방법 ① wellto 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후 인터넷 DM으로 회원카드 전송 ② 레슨 올때 미리 인터넷 DM 발송
대표문의 0507-1436-2122 **홈페이지** @shortgamehills(인스타그램)
주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일산리 408-30



서원힐스

기간 2015년 6월 ~ **혜택** ① 4인 1팀 내장 시, KLPGA회원 1인 그린피 50% 할인(KLPGA 회원 2명 이상이어도 KLPGA 회원 1명에게만 적용) ② 서원 프렌즈로 자동 가입 후 타석 및 숯게임장 할인 - KLPGA 회원 : 50% 할인 ③ 연습장 입점 아카데미 소속 선수 중 KLPGA 정회원 또는 준회원 입회(승격)한 자의 한하여 라운드, 연습장, 숯 게임장 무료. - KLPGA 정회원 : 2개월 - KLPGA 준회원 : 1개월 ※ 단, 그린피 할인 행사보다 제휴요금이 낮은 경우 할인행사 요금 적용
대표문의 031-941-0025, 031-940-9400 **홈페이지** www.seowongolf.co.kr
주소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산48-1



05 숙박

● 신라스테이 서울

기간 2021년 3월 ~

해택 숙박요금 37~74% 할인

이용방법 객실 예약 시, KLPGA 회원임을 밝힘
대표문의 02-2230-0700(예약문의)

홈페이지 www.shillastay.com

주소 ① 삼성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06

② 서초 : 서울 서초구 효령로 427

③ 역삼 : 서울 강남구 언주로 517

● 센배리호텔(여주)

기간 2018년 12월 ~

해택 ① 객실 : 13만원~22만원

② 조식패키지 : 16만원~25만원

③ 워터파크키즈 : 16만원~26만원

④ 풀패키지 : 20만원~30만원

이용방법 ① 02-3660-3307(센배리호텔

예약실)로 예약하여 KLPGA 회원임을 밝힘

② 체크인 시, KLPGA 회원카드 제시

대표문의 02-3660-3007

홈페이지 www.sunvalleyhotel.co.kr

주소 경기도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45

● 라마다 용인호텔

기간 2018년 1월 ~

해택 ① 숙박 : 자사 홈페이지 예약가(최저가)의 10% 할인 ② 레스토랑: 석식 (성인) 7만원/ (아동)3만7천원,

조식: (성인)2만4천원/ (아동)1만6천원

이용방법 예약 시, KLPGA 회원임을 밝히고

예약을 진행해야 함.

대표문의 031-8097-6500

홈페이지 www.ramadayongin.com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356-6

● 호텔 원티드

기간2019년 6월 ~

해택 최대 64% 할인 제공

(65,000원 ~ 250,000원/조식포함)

이용방법 전화 예약 시, KLPGA 회원임을 밝힘

대표문의 032-585-8900

홈페이지 www.hotelwanted.modoo.at

주소 인천 서구 북항로 32번길 20

● 오크밸리 리조트

기간 2018년 8월 ~

해택 정가의 30~40% 할인

(15만원~31만원/계절별 가격 상이)

이용방법 ① 1588-7676 내선 2번 콘도(오크밸리 예약센터)로 예약,

② 예약 시, KLPGA 회원임을 밝혀야 함.

대표문의 1588-7676(1번)

홈페이지 www.oakvalley.co.kr

주소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2길 58

● 웰리힐리파크

기간 2022년 3월 ~

해택 ① 숙박 : 정가의 40% 할인 등 특별할인 제공 ② 워터플레이션 시즈페이스 : 정가의 36~38% 할인 제공

이용방법 ① 1544-8833 내선 1번 에서 예약, 제휴사명 KLPGA으로 요청

② 리조트 본관 3층 프런트에서 예약확인 및 KLPGA 회원카드 제시

대표문의 1544-8833(ARS 1번)

홈페이지 www.wellhillpark.com

주소 강원 횡성군 둔내면 교원로 451

● 호텔탐스텐 강릉

기간 2018년 5월 ~

해택 ① 숙박 : 디럭스패밀리더블 : (일~목)

11만원 / (금) 13만원 / (토~일,공휴일) 18만원

② 조식 : 10% 할인 (중복할인 불가/ 본인 포함 최대 4인)

이용방법 033-530-4800 으로 사전 문의하여야 하며 예약 시, KLPGA 회원임을 밝힌 후

회원카드 제시

대표문의 033-530-4800

홈페이지 www.hotel-topsten.co.kr

주소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한화로 455-34

● 씨마크호텔

기간 20220년 10월 ~

해택 프리미엄 디럭스, 이그제큐티브룸

3~48% 할인(사전 전화문의 필수)

* 2인 조식: 객실로 포함

이용방법 예약, 체크인시 KLPGA 회원카드 또는

명함 제시

대표문의 033-650-7000

홈페이지 www.seamarghotel.com

주소 강원 강릉시 해안로 406번길 2

● 신라스테이 해운대

기간 2021년 3월 ~

해택 숙박요금 37~74% 할인

(121,000원 ~ 330,000원)

이용방법 전화 예약 시, KLPGA 회원임을 밝힘

대표문의 02-2230-0700(예약문의)

홈페이지 www.shillastay.com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70번길 46

● 신라스테이 서부산

기간 2021년 3월 ~

해택 숙박요금 37~74% 할인

(90,000원 ~ 240,000원)

이용방법 전화 예약 시, KLPGA 회원임을 밝힘

대표문의 02-2230-0700(예약문의)

홈페이지 www.shillastay.com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 더그루브

기간 2020년 1월 ~

해택 최대 44~55% 할인 제공 (69,000원 ~ 220,000원)

이용방법 예약 시, KLPGA 회원임을 밝힘.

대표문의 063-464-0505

홈페이지 thegroove.jalib.site

주소 전북 군산시 소룡1길 55

● 라한호텔 전주

기간 2020년 10월 ~

해택 숙박요금 37~74% 할인

(95,000원 ~ 207,000원)

이용방법 전화 예약 시, KLPGA 회원임을 밝힘

대표문의 02-2230-0700

홈페이지 https://lahanhotels.com/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85

●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

기간 2020년 10월 ~

해택 숙박요금 37~74% 할인(100,000원 ~ 200,000원)

이용방법 전화 예약 시, KLPGA 회원임을 밝힘

대표문의 02-2230-0700

홈페이지 https://lahanhotels.com/

주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1

●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호텔세종

기간 2021년 11월 ~

해택 KLPGA 회원 특별가 제공

(110,000원~495,000원)

이용방법 체크인 시 회원카드 확인

대표문의 043-330-3300

홈페이지 www.hotelsejong.kr/ko

주소 세종시 도움로 7

● 청풍리조트

기간 2018년 6월 ~

해택 KLPGA 회원 특별 할인(25~60%) 제공

이용방법 전화 예약 시, KLPGA 회원임을 밝힘

대표문의 043-640-7000

홈페이지 www.cheongpungresort.co.kr

주소 충북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1798

● 호텔락희

기간 2017년 3월 ~

해택 KLPGA 회원 특별할인가 제공

- 스탠다들 더블 : 85,000원

- 디럭스 더블 : 100,000원

- 디럭스 패밀리 : 110,000원

이용방법 전화 예약 시, KLPGA 회원임을 밝힘

대표문의 043-909-5000

홈페이지 http://www.hotellacky.com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88-126

● ICC호텔

기간 2022년 7월 ~

해택 호텔 객실 이용 시, 20%할인

이용방법 전화 예약 시, KLPGA 회원임을 밝힘

대표문의 042-866-5001

홈페이지 www.hotelicc.com

주소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55

● 라한셀렉트 경주

기간 2020년 10월 ~

해택 특별 할인가(1만원~20만원) 제공

이용방법 전화 예약 시, KLPGA 회원임을 밝힘

대표문의 1644-8005

홈페이지 https://lahanhotels.com/

주소 경북 경주시 보문로338

● 라한호텔 포항

기간 2020년 10월 ~

해택 특별 할인가(13만원~35만원) 제공

이용방법 전화 예약 시, KLPGA 회원임을 밝힘

대표문의 1644-8005

홈페이지 https://lahanhotels.com/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 265번길 1

● 아이스퀘어호텔

기간 2018년 5월 ~

해택 ① 숙박 : 디럭스(더블/트윈)143,000원

(61%할인) ② 조식 : 21,300원(15%할인)

이용방법 예약 시, KLPGA 회원임을 밝힘

대표문의 055-344-5000

홈페이지 www.isquare-hotel.com

주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60

● 기린밸리리조트

기간 2022년 1월 ~

해택 KLPGA 회원 특별 할인가 제공

(주중 70%, 주말 65%, 성수기 60%)

이용방법 예약 시, KLPGA 회원임을 밝힘

대표문의 064-805-3007

홈페이지 kylinvillaresort.com

주소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427-1

● 서귀포 JS호텔

기간 2020년 11월 ~

해택 ① 숙박 : KLPGA 회원 특별가

- 스탠다드 : 55,000~65,000원

- 디럭스 트윈 : 66,000~76,000원

- 디럭스 패밀리 : 77,000~87,000원

② 조식 : 성인 15,000원/아동 10,000원

이용방법 예약 시, KLPGA 회원임을 밝힘

대표문의 064-802-3002

홈페이지 www.seogwipojshotel.com

주소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 745-5

● 루체빌

기간 2022년 1월 ~

해택 KLPGA 회원 특별가(8만원~10만원)

이용방법 예약 시, KLPGA 회원임을 밝힘

대표문의 064-805-0115

홈페이지 www.luceville.com/ko/index.do

주소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산록남로 786

● 토스카나 호텔

기간 2018년 5월 ~

해택 ① KLPGA 회원 특별가 제공

(200,000원 ~ 460,000원)

② 조식 : (성인)25,200원(아동)16,100원

이용방법 전화 예약 시, KLPGA 회원임을 밝힘

대표문의 064-735-7000

홈페이지 www.hotelloscana.co.kr

주소 제주 서귀포시 용흥로 66번길 158-7

● 파르나스 호텔 제주

기간 2022년 8월 ~

해택 ① 숙박 : KLPGA 회원 10% 할인

② 식사 : 뷔페 레스토랑 15% 할인

이용방법 전화 예약 시, KLPGA 회원임을 밝힘

대표문의 064-801-5100

홈페이지 www.parnashoteljeju.com

주소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100

●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

기간 2022년 8월 ~

해택 특별 할인가(1만원~20만원) 제공

이용방법 전화 예약 시, KLPGA 회원임을 밝힘

대표문의 1644-8005

홈페이지 https://lahanhotels.com/

주소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875

● 라온호텔앤리조트

기간 2019년 1월 ~

해택 KLPGA 회원 특별가 제공

(56,000원~150,000원)

이용방법 전화 예약 시, KLPGA 회원임을 밝힘

대표문의 064-796-7730

홈페이지 http://hotelraon.co.kr

주소 제주 제주시 한림읍 금능남로 127

06 의료

■ 안과

● 하늘안과의원

기간 2014년 7월 ~

해택 KLPGA 회원 안과 시술 우대

① 안종합검진: 30여 가지 첨단 안 정밀검사 무료

② 시력교정 수술비 해택 제공

③ 라식, 라섹 책임보증서 발급 / 평생 관리 보장 서비스

④ ONE-DAY 라식/라섹

⑤ 시력교정 시술 최대 49% 할인

이용방법 사전 예약제, 반드시 예약 후 내원.

대표문의 02-573-9779

홈페이지 bweye.co.kr

주소 ①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09 6~10층

● **서울메디케어**
기간 2019년 1월 ~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혜택 제공 ① 종합검진 : 300,000원
② 정밀검진 : 500,000원
이용방법 이용 시, KLPGA 회원임을 밝힘
대표문의 과장(02-709-6783)
홈페이지 www.seoulmedicare.com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6(공덕동475)

● **국립암센터**
기간 2017년 10월 ~
혜택 KLPGA 회원 및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전용 검진 패키지 이용(정상이 대비 10% 할인)
※ 대장내시경 시행 시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 용종의 크기와 관계없이
당일 대장용종수술이 가능
※ 국가암(공단) 검진 대상자의 경우 KLPGA
검진과 병행 가능(중복되는 항목 제외하여 감면 효과 있음)
이용방법 대표전화로 예약(KLPGA 회원 전용
패키지 이용 가능)
대표문의 031-920-1212
홈페이지 www.ncc.re.kr

● **한신메디파아**
기간 2017년 9월 ~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할인 제공
- 종합검진 300,000원
- 정밀 종합검진 500,000원
- 암 발병 의심 시 PET-CT 무료 촬영
- 입원치료 필요 시 병원 협력병원으로 우선 조치
- 건강검진 후 정기적인 관리 제공
이용방법 예약 시 KLPGA 회원임을 밝히고,
회원증 또는 증빙서류 제시
대표문의 한지훈 과장(1588-1541)
홈페이지 www.medikind.com
주소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94
한신공영빌딩 2층, 3층

● **참좋은 그레이스병원**
기간 2021년 3월 ~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할인 제공
① 종합검진 프로그램 약 60% 할인
② 하이푸(HIFU) 시술 10% 할인
이용방법 예약 시 KLPGA 회원임을 밝히고,
회원증 또는 증빙서류 제시
대표문의 031-901-4000(담당자 : 허길행 부장)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073

● **메디스캔 의원**
기간 2021년 3월 ~
혜택 KLPGA 회원(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 추가
검사, 예방접종 패키지 20~30% 할인
이용방법 이용 시 KLPGA 회원임을 밝힘
대표문의 064-801-5100, 010-4800-0120(유예진)
홈페이지 www.mediscan.co.kr
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
에이플러스에셋타워 20층

● **서울아산병원**
기간 2018년 8월 ~
혜택 KLPGA 회원 및 직계가족 대상 우대
재휴 프로그램 제공 - 건강검진 후 유소견 시
외래 진료 예약 지원 - 건강검진 고객을 위한
특성화된 맞춤형 외래진료
- 스포츠건강의학센터 연계 지원

이용방법 이용 시 KLPGA 회원임을 밝힘
대표문의 02-3010-5000
홈페이지 health.amc.seoul.kr

● **세브란스 헬스 체크업**
기간 2014년 9월 ~
혜택 KLPGA 회원(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 대상
세브란스체크업 검진비 30% 할인
(선택검사 포함)
- 신속한 상담 및 예약을 위한 전담 직원 배치
- 추가 진료 필요 시 우선진료(Fast Track)
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연계 진료 제공
- 희망 고객에 한하여 검진 후
영상기록 무료 제공(CD)
이용방법 사전예약제, 예약 필수.
대표문의 1588-7757
주소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남대문로5가 84-11)
연세세브란스빌딩 4, 5층

● **명지나과**
기간 2022년 11월 ~
혜택 KLPGA 회원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혜택 제공
① 비급여 검사 및 검진 50% 할인
② 골프특화 치료비용(체외충격파, 도수치료,
주사치료 등 50% 할인)
이용방법 내원 전 병원 담당자에게 연락 후 예약
대표문의 김영진 실장(010-5360-6850)
주소 부산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29
성광타워 3~4층

● **차병원&차움**
기간 2023년 1월 ~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KLPGA 회원 재휴프로그램 우대 할인가 제공
이용방법 전화 예약 시, KLPGA 회원임을 밝힘
대표문의 02-3015-5500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442(차움)

■트레이닝센터

● **닥터골프**
기간 2020년 10월 ~
혜택 ① SFMA(선택적 움직임 평가), CSM(동속성 근기능 검사), TPI 골프기능검사 : 월 1회 무료
② 분석장비(TRACKMAN, V1 pro, SAM PUTT, K-VEST, Fligt Scope) : 월 1회 무료
③ 라운지, 스파, 스크린연습, 세미나: 월 1회 무료
※KLPGA 공식대회 참가선수는 준비
기간부터 대회종료까지 무제한 이용
이용방법 방문 시, KLPGA 회원카드 지참 및 제시
대표문의 051-710-8006
홈페이지 https://drfit24-golf.com/
주소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29

● **닥터FIT24**
기간 2020년 10월 ~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① 피트니스클럽(비회원제) 50%할인
② SFMA(선택적 움직임 평가), CSM(동속성
근기능 검사) - 월 1회 무료
※GX(Group Exercise) 룸 무료 ④ TPI
골프기능검사 월 1회 무료
⑤ 재활운동 스텔링 월 1회 무료
※KLPGA 공식대회 참가 선수의 경우,
준비기간부터 대회종료까지 무제한
이용 가능
대표문의 051-582-0100
홈페이지 https://drfit24-golf.com/

대표문의 051-582-0100
이용방법 방문 시, KLPGA 회원카드 지참 및 제시
주소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29

07 교육

● **파고다 여학원**
기간 2016년 4월 ~
혜택 파고다여학원 및 파고다인강 각 月 1과목
수강료 할인
이용방법 파고다여학원 해당 학원 등록데스크
방문 신청(KLPGA 회원증 및 신분증 필수
지참) / 파고다인강 팩스(02-533-8066) 또는
메일(pagodastar@pagoda21.com) 신청
(KLPGA 회원증 및 신분증 사본, 할인신청서
발송) ※ 할인신청서 : KLPGA 홈페이지 -
정보센터 - 회원혜택 - 파고다여학원 참조
기타 ① 파고다여학원 (평일 06:30~21:30,
주말/휴일 10:00~18:00), 파고다인강 (평일
09:00~18:00)
대표문의 강남(02-2051-4000), 신촌 (02-2274-4000), 신촌 (02-717-4000),
부종사면 (051-797-4000), 파고다인강
고객센터(02-6907-2489)
홈페이지 www.pagoda21.com /
www.pagodastar.com

● **파고다 SCS(전화외국어)**
기간 2014년 4월 ~
혜택 KLPGA 회원 무료 전화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① 영어 60명, 중국어 10명, 일본어 10명,
화상영어 10명 / 총 90명
② 매주 월요일 ~ 금요일(주3회 교육) /
매일 06:00~24:00 중 선택
이용방법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담당자 E-Mail로 발송
대표문의 02-560-4424
홈페이지 klpga.npagoda.com

● **한국글로벌화(회원인문소양교육)**
기간 2020년 1월 ~
혜택 KLPGA 회원 아카데미 무료 교육
이용방법 klpga.cyberkma.or.kr에서 개인이
원하는 KLPGA 전용 교육을 신청.
대표문의 02-3274-9200
홈페이지 www.kma.or.kr

● **KLPGA 회원진로서비스(인·적성/작무능력검사)**
혜택 KLPGA 전 회원 무료(검사비 + 해설비)
① 검사방법 : 온라인으로 개별 신청 후 검사
진행 ② 검사시간 : 총 110분(인·적성 검사
298분항, 직무능력 검사 70분항)
③ 검사결과 : 1주일 내로 개별 이메일
발송(KMA에서 전달), KMA로 연락 시
결과 해석 및 개별 상담 가능
④ 참가신청 - KLPGA 홈페이지 정보센터 →
회원혜택 → 교육서비스에서 공지 확인 후 교육
담당자에게 별도 신청
→ 개별적으로 검사 아이디 및 비밀번호 발급
- 홈페이지 검사사이트 링크(klpga.kma.or.kr)
접속 → 발급받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검사 진행
담당자 KLPGA 이선희 차장
문의 02-560-4424 / lsj@klpga.com

대표문의 051-582-0100
홈페이지 https://drfit24-golf.com/

08 기타

●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기간 2021년 10월 ~
혜택 KLPGA 프렌즈카드 가입 시 KLPGA 회원
상시 10% 할인(정상상품, 일부 제외)
- 신규 발급 시 5만원 상당 할인권 증정
- 상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이용방법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카드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 내 QR코드
통하여 카드 신청
상대인 홍상 전 제품 할인 (달임 제품 제외)
문의 02-3449-4449 카드신청 |
명품관 방문 or QR카드
홈페이지 https://dept.galleria.co.kr/
주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4번지

● **롯데렌터카**
기간 2020년 8월 ~
혜택 KLPGA 회원 본인 및 가족 렌터카 할인
- 장기 렌터카 표준가 대비 최대 2~6% 추가 할인
- 단기 렌터카 30% 할인(제주의 경우 기간별
대여료 차등됨)
이용방법 장가 담당자(장혁순 대리) 유선 문의
단기 : 롯데렌터카 고객센터로 KLPGA 회원임을
밝히고 장가거래업체 확인을 안내받으세요.
홈페이지 https://www.lottarentacar.net
대표문의 010-5329-1129(장혁순 대리) /
1588-1230(고객센터)
위치 전국 롯데렌터카 지점

● **롯데면세점**
기간 2018년 10월 ~
혜택 KLPGA 회원 대상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월드타워점, 부산점에서 GOLD VIP카드
즉시 발급(최대 15% 할인 / 일부 브랜드 제외)
이용방법 대상점 발급데스크 방문하여 회원증과
본인 여권 제시
대표문의 1688-3000
홈페이지 kr.lottedls.com

● **보보리스 네트웍**
기간 2020년 7월 ~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헤어, 메이크업 할인(회원 40%, 회원 가족
30%, 회원 지인 30%) ※ 메이크업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미 지정 시에 한하여 할인혜택 가능,
(지정할 경우 할인 불가.)
이용방법 사전 예약(최소 1일 전 필수) 시
회원번호 및 성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문의 02-549-3030
주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1-23 보보리스

● **썬모리엔**
기간 2017년 2월 ~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회원 할인가 제공
모리엔 헤어샴푸, 헤어토닉 제품 35% 할인
이용방법 분사 홈페이지 및 전화 주문 구매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송신로 567-48
대표문의 051-929-6916 / 051-9733-9733
홈페이지 www.ks1004.kr

● **엘씨바바이오**
기간 2019년 4월 ~
혜택 KLPGA 회원 제품 구매 시 전제품
정가의 25% 할인
대표문의 02-464-3377
홈페이지 mccbio.co.kr
주소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2길 6

● **몬도델비노**
기간 2021년 3월 ~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와인 제품 최대 30% 할인 혜택 제공
이용방법 주문 시 KLPGA 회원임을 말씀해주세요.
홈페이지 www.mondodelvino.co.kr
대표문의 1566-4494 / 010-5500-0876
주소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174-10, 417호(자곡동)

● **백재홍상 주식회사 삼대인**
기간 2019년 10월 ~
혜택 KLPGA 회원 및 직계가족 대상
삼대인 홍상 전 제품 할인 (달임 제품 제외)
홈페이지 온라인 구매 30% 할인 전화
주문, 오프라인 구매 25% 할인
※이벤트 할인으로 추후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
이용방법 홈페이지 주문 시 가입 후
본사에 전화하여 제공받은 쿨론 적용해
온라인 결제 / 전화 주문 시 KLPGA 회원 성명,
회원번호, 회원과의 관계를 전달 /
매장 방문 시 회원 카드 제시

● **신정회계법인**
기간 2021년 10월 ~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제반 회계 및 세무 서비스
수수료 20% 할인
이용방법 상기 연락처로 유선상 상담을 통해 회계
및 세무 서비스를 결정. 메일로 KLPGA 회원증
확인한 후 할인 적용
대표문의 010-3230-9676 / shkim@sjcpa.co.kr
홈페이지 https://www.sjcpa.co.kr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02
에임하이타워 6층

● **헤초**
기간 2023년 11월 ~
혜택 KLPGA 회원 대상 프리미엄 웨딩 40% 할인
/ 회원 및 가족, 지인 대상 헤어,메이크업 시술
할인 (회원 50%, 가족 40%, 지인 30%)
이용방법 회원번호와 성함을 알려주시고
예약 후 방문해 주세요.
대표문의 010-4626-3473(송진주 원장)
홈페이지 jinjoolo@hanmail.net
위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88
한나빌딩5층 HETZ

● **와이드모바일**
기간 2018년 5월 ~
혜택 ① 전 국가 15%, 도시락 USIM ESIM 5% 할인
② 보조배터리 무료제공
이용방법 KLPGA 회원 전용

예약사이트 예약 접수 시 혜택 제공
대표문의 1566-9070
홈페이지 www.wifidosirak.com

● **키즈나.아**
기간 2020년 12월 ~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키즈나.아 서울 입장권 30~40% 할인혜택 제공
이용방법 이용일 전일 오후 5시까지 전화 예약 후
이용 가능(당일 예약 불가), 입장 시 KLPGA
회원증 또는 증빙서류 제시
대표문의 1544-5110
홈페이지 www.kidzania.co.kr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40

● **Y.케이라이프**
기간 2020년 12월 ~
혜택 유별과 반신욕기 45% 할인
이용방법 ① 반신욕기 모델유별과 930P 적삼/편백
선택 후 신청
메일 발송(mrbn211@naver.com)
② 메일 작성 시 성명 및 회원번호 필수 기재
③ 지정 계좌번호 입금 후 제품 택배 수령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03-855845,
와이제이케이라이프) ※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은
이메일 작성 시 기재 요망
대표문의 010-4089-8454(김연기 담당자)
주소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3층

● **비율**
기간 2017년 1월 ~
혜택 KLPGA 회원 대상 이용요금 50% 할인,
회원 가족 대상 이용요금 30% 할인 제공
※ 기장추가 별도 계산
담당자 명상 원장 대표문의 | 010-9971-9141
홈페이지 beal-beauty.com
주소 강남구 도산대로78길 6

● **세계골프역사박물관**
기간 2014년 10월 ~
혜택 KLPGA 회원 당사자 및
동반 1인 관람료 무료 (관람료 5,000원)
※ 일요일, 국경공휴일 휴관
이용방법 입장 시 KLPGA 소속 회원임을
밝히는 증명 제시(회원증 등)
대표문의 02-2192-3005
홈페이지 www.superiori.com

● **도넛킹**
기간 2022년 9월 ~
혜택 본점 방문 시 오리지널 클레이즈+

아메리카노 세트 증정
이용방법 매장 방문 후 KLPGA 회원 확인 필요
대표문의 010-7443-1282(박은수 프로)
주소 제주시 구남로6길 25

● **케어바이미**
기간 2022년 02월 ~
혜택 ① 골프케어 연 1회 무료
- 3D 피부 정밀 분석 후 개인의 피부상태에
맞는 케어 진행
② 관리 등록하시는 분들께 첫 방문 시 30% 할인
③ 프로그램 이용 시 10% 할인 제공
(물광테라피, 클라겐테라피, 비타민테라피)
이용방법 예약 시 KLPGA 회원임을 확인하시고
내방 시 KLPGA 회원카드 제시
대표문의 010-7666-7697(김지은 실장)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6 현악빌딩 15층

● **제주 퍼시픽랜드**
기간 2018년 5월 ~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및 회원가족 대상
- 상그릴라 오토(60분) 40%(성인) 할인
- 비바제트보트(15분) 40% 할인
- 잠수제트 20% 할인
- 마린스테이지공연 30%(성인) 인
- 엘마리노뷔페 10% 할인
※ 성인 기준 할인율이며,
자세한 내용은 문의 전화 확인
이용방법 예약 시 KLPGA 회원임을 밝힘
대표문의 1544-2988
홈페이지 www.pacificland.co.kr

● **강남심리치료센터**
기간 2022년 6월 ~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회원 할인가 제공
- 심리치료적 골프멘탈 클리닉 20%~30% 할인
- 심리 워크숍/심리 캠프 프로그램 참여 20%
할인
이용방법 예약 시 KLPGA 회원임을 알려주세요.
주소 ① 서울본점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06,
광명빌딩 4층 ② 평택비전점 :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22번길 40, 베다리정원 4층
홈페이지 www.mindtutoring.com

● **시너텍(EMP 애플)**
기간 2022년 2월 ~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혜택 제공
- EMP 신제품 출시 اولین 멀티방/센세릴/

트러블세럼 출시 기념 프로모션
* 멀티방 소비자가 : 59,000원
* 센세릴 소비자가 : 39,000원
* 트러블세럼 소비자가 : 79,000원
* 메디힐 광채크림 사은품 증정
(소비자가 28,000원 상당)
-세트가격 소비자가 : 177,000원 → 50% 할인/
88,000원 진행
※ 구매감사 고객 명의 1만 원 기부 진행
이용방법 ① 네이버/다음 'EMP화장품'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구입 진행
② 메모란 KLPGA 회원구매자 명시 후 혜택 진행
대표문의 010-5419-9709(김현정 이사)
홈페이지 www.bmc.beauty
주소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353, 414호 JK루체스타

● **골스튜디오**
기간 2021년 8월 ~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온라인 스토어 할인
① 골스튜디오 공식 온라인 스토어 GRAB-ITY
BALANCE 제품군 30% 할인(의류 제품 제외)
② 대상 제품 : GRAB-ITY BALANCE™ PRO,
BASIC, FLUFFLOP / 이상 3개 ※ 구입 한도 : 3개
제품 합산 연간 1,200,000원 내
※ 해당 혜택은 온라인 스토어에서만 적용
가능하며, 오프라인 매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용방법 ① 골스튜디오 공식 온라인 스토어
회원가입 ② ID/성함/KLPGA 회원번호를 분사
담당자에게 이메일 icpark@wagti.com 발송
③ 분사 담당자가 회원 여부 확인 후 일주일 이내
혜택 부여, 상세내용 이메일 최신
④ 로그인 → 주문하기 → 할인쿠폰 적용
대표문의 skau410@wagti.com /
010-2963-3619
홈페이지 https://goalstudio.com

● **LG라이프케어**
기간 2024.07 ~
혜택 LG케열사(LG전자, LG생활건강,
LG아트센터 등) 제품 및 생필품, 건강,
여행, 스포츠, 문화 등 라이프 콘텐츠 제공 및 할인
이용방법
- KLPGA FIT(회원 전용어플) 로그인
- 메인화면 하단 'THE 특별한 혜택'
- 라이프케어 북지물' 배너 선택
- KLPGA 회원 전용 북지물 사이트로 이동

SERVICE INFORMATION

LG라이프케어
기간 2024.07 ~
혜택 LG케열사(LG전자, LG생활건강,
LG아트센터 등) 제품 및 생필품, 건강,
여행, 스포츠, 문화 등 라이프 콘텐츠 제공 및 할인
이용방법
- KLPGA FIT(회원 전용어플) 로그인
- 메인화면 하단 'THE 특별한 혜택'
- 라이프케어 북지물' 배너 선택
- KLPGA 회원 전용 북지물 사이트로 이동



닥터골프

기간 2020년 10월 ~
혜택 ① SFMA(선택적 움직임 평가), CSM(동속성 근기능 검사), TPI 골프기능검사 : 월 1회 무료 ② 분석장비(TRACKMAN, V1 pro, SAM PUTT, K-VEST, Fligt Scope) : 월 1회 무료 ③ 라운지, 스파, 스크린연습, 세미나: 월 1회 무료
※KLPGA 공식대회 참가선수는 준비
기간부터 대회종료까지 무제한 이용
이용방법 방문 시, KLPGA 회원카드 지참 및 제시
대표문의 051-710-8006 **홈페이지** https://drfit24-golf.com/
주소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29



빈 칸 을

QUIZ EVENT

채 워 라

〈KLPGA 멤버스〉 가을호에 실린 선수 인터뷰를 읽고 아래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맞춰주세요!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선수의 사인볼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제

무려 ○○m 길이의 오르막 버디 퍼트를 넣고 2타 차이로 점수를
벌리며 승부를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다.

※힌트 : 7페이지

이벤트 기간

11월 1일(금) ~ 11월 15일(금)

이벤트 참여 방법

① KLPGA 인스타그램 팔로우 ②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댓글 달기

당첨자 발표 및 당첨자

11월 20일(수) / 4명(개별 안내)



instagram.com/klpgatour

척추엔 행복, 관절엔 웃음 슬병원의 마음입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공식 지정 병원으로
선수들의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LPGA
공식 지정 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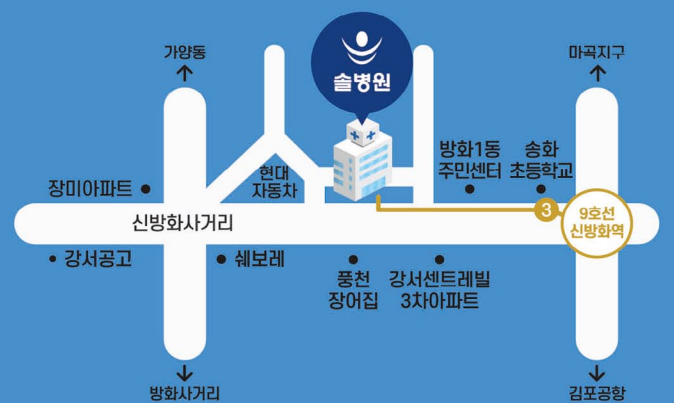


강서구 방화대로 352 신방화역 3번 출구
신방화사거리 방면

평 일 오전 09:00 ~ 오후 06:00
점심시간 오전 01:00 ~ 오후 02:00
토 요 일 오전 09:00 ~ 오후 01:00

! 토요일 점심시간 없이 진료/ 일요일·공휴일 : 휴진

TEL 02.2064.7575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은

전세계 관심 높은 전기차와 더불어 자동차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으며 항상 고객님께 최고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자동차를 넘어 Premium Lifestyle Provider로 고객님의 품격에 맞는 최상의 퍼스트클래스 서비스와 고객만족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해 나아갈 것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
시승 신청하기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

공식 전시장 • 강남대로 02) 575-7500 • 송파 02) 3434-4000 • 구리 031) 579-0900 • 스타필드 하남 031) 8072-8900 • 분당 정자 031) 786-6000 • 안양 평촌 031) 689-8900
• 용인 수지 031) 5183-9200 • 동탄 031) 880-0200 • 천안 041) 620-7000 • 청주 043) 299-9000

인증 중고차 • 하남 02) 3443-1999 • 죽전 031) 786-6171 • 천안 041) 555-5070

서비스 센터 • 강남대로 02) 570-1111 • 송파 02) 2152-3333 • 서초 02) 3488-2400 • 도곡 02) 575-7340 • 신사 02) 540-7900 • 안양 평촌 031) 596-2600 • 죽전 031) 786-6100
• 용인 수지 031) 290-3700 • 구리 031) 579-0970 • 동탄 031) 880-0288 • 하남 02) 3433-1900 • 천안 041) 620-7070 • 청주 043) 299-9090

※ 위 사진으로 소개된 차량은 'The new E-Class' 입니다.